



데이빗 영맥주석

웁기

David Spriritual Commentary

들어가는 말

'데이빗 영맥주석'은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한 주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셨을 때는 분명히 무슨 의미를 두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올바른 성경해석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데이빗 영맥주석'은 저자가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그 의미를 여쭙가면서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주석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값질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싶다면 이 주석을 권해 드립니다. 이 주

석으로 성경을 읽을 때 당신 삶이 놀랍게 변화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 게 될 것이며 <로고스>가 아닌 <레마>로 성경 이 심령 속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 주석은 설교하는 목회자에게도 매우 귀한 주석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목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아무쪼록 이 주석을 통해 성경이 활짝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저자 데이빗리 목사 올림

[욥기 1장] =====

[욥 1:1]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기는 역사서가 아닙니다. 욥기는 시가서입니다. 욥기는 크게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구분되는데 본론이 시가서 형식이지만 서론과 본론은 산문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학 형식은 잠언서와 전도서, 아가서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욥을 실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성경학자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욥은 실제인물이 아니라 소설 속의 주인공처럼 만들어진 인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욥이 현존했던 인물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존했던 인물을 얼마든지 소설로 꾸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를 누가 썼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가 욥기를 썼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욥기에 나타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보다 잘 알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욥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욥기의 저자는 욥을 가리켜 "... 그 사람은 순전하고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1절)고 기록하였습니다. 저자의 표현대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의인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욥처럼 의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순전한 자가 되기 원하고 있으며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욥기를 통해 깨닫게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기 때문에 더욱 깨달음이 많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씩 욥에 대해 살펴 볼 것입니다. 욥에 대해 살펴 볼 때에 하나님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온전하다'<탐>은 말은 '완전한', '완벽한'이란 말입니다. 이는 매우 건전하고 착실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성품입니다. '온전하다'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 매우 순결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정직하다'<야사르>라는 말은 '곧은', '정직한', '올바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해 정직함을 뜻합니다. 따라서 욥은 인간적으로도 매우 순결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있어서도 매우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성품을 소유한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주로 이런 성품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인격적으로 순결하고 영적으로 깨끗하다고 스스로 주장한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순결하거나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경외하다' <야레>라는 단어는 '두려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영적으로 깨끗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는 순결한 사람이 아닙니다. 깨끗한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고 가르치셨습니다.

“[마 10:28]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들은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도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옴은 몸과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살아생전에 가장 두려워했던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부자여서 아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장 큰 복을 누렸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가 두려워했던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복을 다 빼앗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모든 악에서 떠났습니다. 그가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싫어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악에서 떠났던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악한 삶을 좋아하신다면 그는 악을 행했을 것입니다. 옴의 관점은 오직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만이 그에게서 복을 빼앗아 가실 수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욥의 깨달음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 이시요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악에서 떠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순전할 수 있고 정직할 수 있습니다.

“[욥 1:21]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 1:2]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욥 1:3] 그의 소유물은 양이 칠천 마리오 낙타가 삼천 마리오 소가 오백 겨리오 암나귀가 오백 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소생이 10명이나 되었습니다.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명이었습니다. 아들이 7명이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완전한 복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일곱(7)'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완전수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딸의 숫자가 3인 것을 주목하십시오. '셋(3)'이라는 숫자 역시 완전수를 상징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하시듯 3이라는 숫자는 신적인 완전함을 뜻합니다.

요셉의 소유물에는 양이 7천이며 약대가 3천이었습니다. 이 역시 요셉이 완전한 복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받을 복이 없을 정도로 많은 복을 받았음을 뜻합니다. 소가 500 겨리요 암나귀가 500이라는 사실 역시 충만한 복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50이라는 숫자는 '희년'을 뜻합니다. 희년이라는 뜻은 기쁨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복을 받았으며 기쁨이 충만했던 자입니다. 이러한 기쁨에다가 10을 곱해서 500이라는 숫자가 나왔으니 요셉이 받은 복은 완전해다가 완전을 곱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10은 숫자적으로 완전수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가리켜 "...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3절 하)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훌륭하다'<가돌>이라는 말은 '크다', '위대한'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높은 지위를 차지해서 위대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어서 위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은 자가 위대한 자입니다. 순전하고 정직한 자가 위대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위대한 자입니다. 악에서 떠난 자가 위대한 자입니다.

[욥 1:4]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욥 1:5]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자녀들로 하여금 성결케 되도록 가르쳤습니다. 생일날이 되면 욥은 자녀들을 불러 드렸습니다. 욥의 자녀들은 생일날을 맞이하면 형제 자매와 함께 생일잔치를 가졌습니다. 욥이 생일날 후

에 자녀들을 불러 드린 이유는 저들을 성결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생일잔치를 통해 혹시라도 죄를 지을 수 있음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5절 중).

그렇게 자녀들을 성결케 한 후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번제'라는 것이 짐승을 태워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제'를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신령과 진정어린 예배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드리는 예배와는 다릅니다. 신령한 예배는 영적 예배입니다.

"[롬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히려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제일 염두에 두었던 것은 혹시라도 자녀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5절 하). 우리도

자녀를 양육할 때 옳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자녀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배반할지도 모른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은 금세 죄를 짓고 세상적인 방법에 의해 양육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 것입니다.

[욥 1:6]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아들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6절).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사탄이 다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은 실제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물론 천사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뵈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 18:10] 삼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천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사탄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기 저자가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섰다고 표현했던 것은 사실적인 내용이라기 보다는 소설적인 형식을 취한 것입니다. 소설의 구성을 보면 완전히 허구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구성된 것도 있지만 다소 실제적인 내용을 약간 각색해서 구성된 것이 있습니다. 욥기는 다소 실제적인 내용에다가 약간 각색해서 쓰여진 소설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습니다. 실제로 사탄은 천사 중 하나였으며 매우 뛰어난 존재였습니다. 그가 너무나 뛰어난 천사였기 때문에 모든 천사 중에 으뜸이었습니다. 그가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교만하여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만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사탄의 정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사 14:12]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밟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사 14:13]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앉으리라
[사 14:14]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사탄을 가리켜 ‘계명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그만큼 사탄의 존재가 뛰어났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계명성’은 새벽별을 의미합니다. 새벽별은 모든 별보다 더 밝은 별입니다. 그만큼 사탄의 존재가 모든 천사보다 아름답게 지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계명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새벽별’로 언급했습니다.

”[계 22:16]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그렇다고해서 예수께서 다른 피조물과 같은 존재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

다 먼저 나신 분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사도요한은 예수님의 존재가 '새벽별'과 같은 존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굳이 예수님과 사탄을 언급할 때 사용되고 있는 '새벽별'에 대해 구분을 하자면,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사탄은 단순히 'the Morning Star'인데 예수님은 'the bright Morning Star'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사탄은 하나님에 의해 쫓김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늘전쟁에서 패하여서 이 땅에 내어 쫓김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요한은 하늘전쟁에 대한 기록을 다음과 같이 남겨 놓았습니다.

"[계 12:7]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계 12:8]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계 12:9]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

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욥기가 기록되었을 당시에는 이미 사탄은 이 땅에 쫓김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욥이 언제 살았던 사람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아브라함 시대 때 살았던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이미 그 당시에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이미 사탄은 아담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 땅으로 쫓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사탄이 하늘에서 쫓김을 당한 사실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눅 10:18]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 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욥 1:7]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나이다

[욥 1:8]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 1:9]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 1:10]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욥 1:11]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 (8절 상)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8절 하) 고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욥에 대한 그런 칭찬의 말씀이 사탄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욥을 향한 하나님의 칭찬이 사탄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탄처럼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사탄이 욥 때문에 배가 아플 필요까지는 없지만 모든 영광을 자신의 몫으로 챙기려는 사탄의 마음에 욥이 구멍을 뚫어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모든 영광을 내 몫으로 챙

기려는 마음 때문에 주변 사람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마음의 구멍이 생기고 맙니다.

사탄은 "...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9절 하)라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큰 복을 내리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욥의 복을 거두게 되면 욥이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사탄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야'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좋지 못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똑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있던지 없던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이는 당신이 하나

님의 복을 받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욥 1:12]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탄의 말을 들은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붙이
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사탄이 원하는대로 욥을 시
험하라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12절 중).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은 욥의 생명만은 취하지 말
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은 욥을 시험합니다. 욥
의 생명만은 취하지 않는 조건으로 욥의 믿음을
시험할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이러한 권한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 같
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사탄에게 우리를 붙이셨습
니다. 우리는 지금 사탄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시험 받는 중입니다. 욥이 당
한 시험은 곧 우리의 시험입니다. 욥이 어떻게 사
탄의 시험을 받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어

떻게 시험을 당할 것인지 알게합니다. 부디 사탄의 시험을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욥 1:13]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만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욥 1:14]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욥 1:15]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욥 1:16]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욥 1:17]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세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욥 1:18]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만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욥 1:19]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

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지므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드디어 사탄이 욥을 쳤습니다. 사탄이 욥을 쳤더니 욥에게 큰 환난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한 순간에 그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의 소와 나귀와 양과 약대를 잃었습니다. 그가 부리던 종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심지어 그의 열자녀 모두 일시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욥은 한 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함' 또는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십계명은 완전한 계명이며 충만한 계명입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욥처럼 환난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소유물을 빼앗기는 환난을 당합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잃어버린 사건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습니다. 배우자의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의 죽음도 당합니다. 이러한 인생의 환난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아마도 욥 역시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난으로 인한 고통이 아닙니다.

환난으로 인한 잃어버림이 아닙니다. 왜 환난이 내게 닥쳤는나는 것이 더욱 큰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사에 죄를 짓지 않았던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 의인에게 이런 환난이 임했다는 것은 욥에게 더욱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욥은 이러한 사실 때문에 더욱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욥처럼 힘들어 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제법 죄를 짓지 않는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환난이 닥칠 때 마음이 혼란스러워집니다.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라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현을 합니다.

나보다 순전하지도 않고 나보다 정직하지도 않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도 우리에게는 큰 아픔입니다. 어쩌면 아픔을 넘어 환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사람이 나보다 훨씬 잘 되는 것을 볼 때에 이

것 역시 우리 삶에 임하는 환난입니다. 늘상 죄만 짓고 사는 더러운 자가 나보다 훨씬 잘 사는 것을 볼 때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삶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차라리 나의 소유가 빼앗기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아픔이 이러한 억울한 상황보다 덜 고통을 준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욥이 당하는 고통은 극심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물이 진멸당하고 자신의 모든 자녀들이 죽임을 당한 것으로 인한 고통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 주지 아니하시고 내버려뒀다는 그것 때문에 더욱 고통스러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욥 1:20] 욥이 일어나 겹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 1:21]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 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 1:22]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놀랍게도 욥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조금도 원망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경배할 때에 "...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21절 하)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죠? 어떻게 욥이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도대체 욥은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반응했을까요? 욥의 모습이 너무나 우리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데 욥은 참으로 다르게 행동합니다.

우리는 욥처럼 반응해야 합니다. 욥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욥기 저자의 의도입니다. 욥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에게도 환난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도 환난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극도의 억울함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서도 오직 하나님을 경배

하고 찬송할 줄 아는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옅처럼 하나님을 뵈 수 있으며 옅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옅기의 저자는 이 장면에서 "이 모든 일에 옅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히니라"(22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옅은 자신이 당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는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를 범하고 맙니다. 이는 환난 때문에 우리의 심정이 극도로 고통스럽거나 분노로 가득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에게도 분풀이를 할 때가 맙습니다. 이럴 때 종종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맙듭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맙니다. 이런 모든 것이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옅기의 저자는 '원망하지 았았다'라는 말을 표현맙습니다. 옅이 어리석게 원망하지 았았다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에는 '어리석게'라는 단어를 뺐지만 개역한글에는 '어리석게'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기치 았는 환난을 당할 때에 원망을 맙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

람을 원망합니다. '어리석다'<티플라>라는 말은 '나쁜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남을 원망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며 이러한 행위는 나쁜 행위인 것입니다.

[욥기 2장] =====

[욥 2:1]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욥 2:2]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 저기 다녔나이다

[욥 2:3]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3절 상)라고 말씀하시면서 욥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순전과 정직함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사실을 사탄에게 인식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3절 중)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욥에게 닥친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나왔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닥치는 고난 중의 많은 부분이 마귀에 의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언급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인간을 해롭게 할 권한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계 9:4]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허락치 않으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을 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마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지 못합니다. 사탄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욥기의 저자는 하나님과 사탄과의 이러한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관계에 대해 욥기를 읽는 독자에게 알려주길 원했던 것

입니다. 그래서 그는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난 표현으로 그러한 관계를 잘 꾸몄던 것입니다.

[욥 2:4]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족으로 가족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욥 2:5]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 2:6]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욥 2:7]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사탄은 욥을 칭찬하는 하나님이 싫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는 것이 마치 사탄을 창으로 찌르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 가족으로 가족을 바꾸오니..."(4절 상)라는 말을 하면서 "...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

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4절 하)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의 계획을 말한 것입니다. 그는 욥의 생명으로 하여금 욥의 모든 소유물을 대신하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가족으로 가족을 바꾼다’라는 말은 물물교환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는 짐승의 가족이 물물교환을 위해 매우 유용한 것이었습니다. 사탄의 말은 욥의 생명을 취할 때에 더 이상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될 것임을 주장한 것입니다. 첫번째 욥에 대한 시험은 욥의 소유물에 대한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그의 생명을 취하게 될 때에 더 이상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는 못 버틸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결국 사탄은 욥의 몸을 찢습니다. 욥의 뼈와 살을 찢습니다. 그랬더니 욥의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욕창이 생겨났습니다. 욥은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욕창이 생긴 환부를 긁었습니다. 너무나 가려웠기 때문입니다.

[욥 2:8]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욥 2:9]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 2:10]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기와 조각으로 욕창을 긁고 있는 모습을 바라본 욥의 아내는 "...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9절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기와 조각으로 욕창을 긁고 있는 욥의 모습이 너무나 한심스러워 보였던 것입니다. 모든 소유물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까지 죽임을 당한 상태에서 남편에게 욕창까지 생겼으니 욥의 아내인들 오죽했겠습니까? 그녀의 분통함이 남편에게 저주스러운 말로 표현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욕설을 퍼부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심한 욕설을 퍼붓는 이유는 바로 나 자신 때문입니다. 나에게 있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자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욥의 아내가 욥을 저주했던 것에 대해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도 욥의 아내였으면 그렇게 하고도 남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욱의 입장에서서는 아내의 그런 저주스러운 욕설로 인해 큰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소유물을 잃은 것보다 더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욕창 때문에 온 몸이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주변 사람으로부터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의 저주스러운 욕설 때문에 상대방이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합니다.

욱은 아내의 저주스러운 욕설을 들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10절 중). 욱의 이러한 말은 욱의 아내에게만 들려진 게 아닙니다. 욱기의 저자는 욱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복과 함께 재앙이 섞여있기 때문입니다. 욱기의 저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욱기의 저자 역시 하나님의 복과 함께 재앙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누가 재앙없는 복만 받겠습니까? 이 세상의 그 누가 복없는 재앙만 받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복과 재앙을 더불어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앙을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복만 바라본다고 해서 재앙이 없어지는 것

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세어볼 때에 재앙이 제법 참을만해집니다. 그래서 복을 세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감사할 줄 아는 삶입니다. 감사는 복을 세는 것입니다. 결코 재앙을 세는 것이 아닙니다. 재앙을 바라보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욥 2:11] 그 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데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욥 2:12]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겹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욥 2:13] 밤낮 칠 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의 친구가 욥을 찾아왔습니다. 욥에게는 매우 친한 친구가 세 명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

데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11절 중)입니다. 이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 욥을 봤을 때 울었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겹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12절). 그들은 진정한 욥의 친구였습니다. 친구 욥이 죽은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를 조문하러 온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옷을 찢으며 티끌을 날려 그들 머리에 뿌렸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욥의 모습이 마치 죽은 자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칠 일동안이나 욥과 함께 있었습니다. “밤낮 칠 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13절 상). 그들은 욥과 함께 땅에 앉았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제법 품위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이 땅바닥에 앉아 기와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고 있는데 어찌 친구들이 의자에 앉겠습니까? 참으로 좋은 친구들입니다. 욥기 저자는 욥의 친구들에 대해 좀 더 상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13절 하). 친구들은 아

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어떤 말로도 욕을 위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든 자를 찾아가 그 옆에 있어야 합니다. 욕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함께 울어야 합니다. 함께 고난을 당한 자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친구입니다.

[욥기 3장] =====

[욥 3:1]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 3:2]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욥 3:3]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욥 3:4]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욥 3:5]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욥 3:6]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욥 3:7] 그 밤에 자식을 배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욥 3:8] 날을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욥 3:9]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라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욥 3:10]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으로구나

[욥 3:11]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욥 3:12]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욥 3:13]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욥 3:14]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욥 3:15]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욥 3:16]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욥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저주합니다. "...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1절 하).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사람은 태어난 것을 후회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사는 게 힘이 들었으면 자신의 태어난 것을 저주하겠습니까? 욥이 자신의 태어난 것을 저주한 까닭은 그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태어남을 저주한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옹처럼 너무나 힘이 들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힘든 사람은 모든 것이 귀찮아 집니다. 그래서 직장도 그만 둡니다. 하는 일을 멈춥니다. 일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의욕도 갖지 못합니다. 그저 죽지 못해 사는 것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을 싫어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어합니다. 부모도 싫어합니다. 심지어 배우자도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둠을 좋아합니다. 숨을 곳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동굴을 찾습니다. 석회암 동굴이 아니라 심령의 동굴을 찾습니다. 빛도 싫습니다. 심지어는 달빛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둠을 찾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런 상태라면 스스로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 스스로 '나는 누구이지?'라는 생각을 가져 봐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빛으신 당신입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귀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이 감춰졌던 것 뿐입니다. 마귀가 당신을 어둠 가운데 거하게 한 것입니다. 당신을 어둠 속으로 집어 넣

기 위해 당신의 삶을 힘들게 만든 것 뿐입니다. 그렇게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당신의 무너짐을 원치 않으십니다.

욥을 괴롭게 한 장본인이 누구인지 생각하십시오. 마귀가 욥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한 고난은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당신을 힘들게 만든 마귀에게 일침을 가하십시오. 반격할 때입니다. 고난을 극복하십시오.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외치십시오. 그것이 마귀를 향한 반격의 신호입니다. 천군천사가 당신을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욥 3:17]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욥 3:18]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욥 3:19]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욥 3:20]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욥 3:21]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욥 3:22]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욥 3:23] 하나님에게 둘러 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욥은 '거기서'라는 말을 자꾸 표현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욥은 '본향'이 어디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20절)라는 말로 하나님에 의해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났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미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에는 천사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육신으로 살게 하신 것

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잠 8:22]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잠 8:23]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잠 8:24]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잠 8:25]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잠 8:26]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잠 8:27]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어떤 성경학자는 솔로몬의 말을 단순히 시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으나 성경말씀은 일단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상징적이거나 영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솔로몬의 말은 문자 그대로 우리들이 태초 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로 받아드려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욥기의 저자도 솔로몬처럼 우리가 태초 전에 하나님과 함께 했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 역시 태초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에도 우리가 태초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욥 38:4]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욥 38:5]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욥 38:6]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잇돌을 누가 놓았느냐

[욥 38:7] 그 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성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을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했

다는 증거입니다.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단순히 '천사'라고 해석합니다. 물론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옳은 해석일 것입니다. 어찌하여 성경학자들은 성경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해석하려고 애를 쓰는 걸까요? 무슨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저들이 그렇게 애를 쓰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창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과감하게 드러내기가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된 것을 '천사'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야 부담도 덜되고 사람들의 궁금증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세상 창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거했던 것인가요?라고 묻는다면 성경학자들이 무슨 말로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이 대답할 수 없으니 질문할 수 없도록 막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저들은 모르는 것일까요?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왜 세상

창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왜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일까요? 어쩌면 마귀는 성경학자들로 하여금 눈을 가리우고 지혜를 막아서 '천사'로 표현하도록 유도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버젓이 성경에 나와있는 내용을 이렇게 쉽게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오늘날 성경학자들보다 더 뛰어난 자였습니다. 솔로몬은 매우 지혜로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매우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는 이 세상과 천국에 대한 연결고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인간과 천국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 12:7] 흠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사람이 죽은 후에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돌아간다'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왜 솔로몬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표현을 했을까요? '돌아간다'라는 말은 <슈

브>인데 이 단어는 '돌아가다', '회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고 회복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천사들도 하나님과 함께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된 우리들도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렇게 선택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엡 1:4]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엡 1:5]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욥 3:24]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욥 3:25]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 3:26]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은 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모든 소유물을 다 잃고 자녀들까지 모두 잃었으니 그에게 무슨 사는 재미가 있었겠습니까? 비록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리석은 원망의 말을 하지 않을지라도 그의 마음까지 기쁨으로 가득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 뿐이었습니다. 그는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26절)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음식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음식을 먹기 전에 탄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일 앓았습니다. 그의 앓는 소리는 마치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24절). 욥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에 그가 무서워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취해 가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늘 무서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취해 가시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 사람들

과의 사이에서 순전하고 정직하며 정성껏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일체의 죄를 짓지 않았습니 다. 이 모든 노력이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 함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성껏 자녀들로 하여 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은, 욥처럼 순전하고 정 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에게 이러한 인생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욥에게 이런 고난이 닥쳤던 것은 순전히 마귀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 께서 마귀에게 욥을 치는 것을 허락치 않으셨다 면 결코 욥에게는 이런 고난이 닥치지 않았을 것 입니다. 물론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 기 위해 임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에서 떠 난 삶을 살아간다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 람을 더욱 크게 사용하고 싶어하시는데 그 사람 이 평범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길 원한다고 고집 부릴 때에는 그 사람이 비록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욥에 게 임하는 고난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 문에 만일 당신이 사람들에게 순전하고 하나님께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짓지 않는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에 고난이 닥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크게 쓰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실을 빨리 깨달을수록 당신에게 임하는 고난은 빨리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명을 거부한다면 당신의 고난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욥기 4장] =====

[욥 4:1] 데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욥 4:2]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싫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욥 4:3]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욥 4:4]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
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욥 4:5] 이제 이 일이 네게 이르매 네가 힘들어
하고 이 일이 네게 닥치매 네가 놀라는구나

[욥 4:6] 네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네 소망이
네 온전한 길이 아니냐

[욥 4:7]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
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욥 4:8] 내가 보건대 악을 밭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욥 4:9]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
김에 사라지느니라

[욥 4:10]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
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욥 4:11]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 가고 암
사자의 새끼는 흠어지느니라

욥의 친구 중 데만 사람 엘리바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욥의 당한 고난이 욥의 악행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8절). 우리들 중에도 불 난 데 부채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으며 고난으로 인해 매우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욥의 당한 고난이 욥의 악행 때문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면은 욥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욥은 엘리바스의 권면으로 인해 더욱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는 율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쩌면 율법이 모든 것의 진리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들 중에도 율법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결과를 율법의 잣대로 규정을 합니다. 욥처럼 문제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그만 한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 좋지 않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이 우리의 악행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 인생에 문제를 주시는 때도 많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악행 때문이라고 일축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욥 4:12]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
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욥 4:13]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욥 4:14]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욥 4:15] 그 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주뻗하였느니라

[욥 4:16]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
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 앞에 있었
느니라 그 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
으니

[욥 4:17]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
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욥 4:18]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욥 4:19] 하물며 흙 집에 살며 티끌로 터를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욥 4:20]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욥 4:21] 장막 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
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엘리바스가 율법만 해박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율법만 해박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다니엘이나 요셉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이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뵈냈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상당히 그러한 부분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엘리바스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들 중에도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을 줄 안다는 것을 매우 뵈내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 오직 한 형상이 내 눈 앞에 있었느니라 그 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16절). 엘리바스는 하나님으로부터 들

은 말씀을 욥에게 적용시켰습니다. 그는 "장막 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21절 상)라고 말하면서 "...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21절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욥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욥이 자신처럼 하나님의 환상을 보거나 음성을 들을만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친구인 욥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까? 친구가 어리석음으로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친구를 봤습니까? 혹 당신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없으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언제 엘리바스와 같은 친구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가 친구 중에서 가장 먼저 욥을 정죄했던 것도 그가 대단히 잘났기 때문입니다. 친구들 중에 가장 자신이 뛰어났다고 스스로 자랑하는 자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의 의로움을 정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죄하는 것이 상대방의 죄악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수준높은 정죄는 상대방의 의로움을 까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의로움을 정죄했

습니다. 그가 어떻게 옉의 의로움을 정죄했는지 들어 보십시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17절). 옉은 결코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옉은 결코 하나님보다 성결하다고 주장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옉이 스스로 하나님보다 의롭게 살려고 하고 스스로 하나님보다 깨끗한척 한다고 정죄했습니다. 혹 당신은 이런 수준높은 정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들 중에도 엘리바스처럼 스스로 먼저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자랑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엘리바스입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사를 마치 자신의 지혜인양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것이지 결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 음성만을 전달해 주는 전달자에 불과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지혜가 되지는 않습니다. 결코 그것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람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친구는 절대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친구도 정죄합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까지 정죄할 것이니 조심하십시오.

[욥기 5장] =====

[욥 5:1] 너는 부르짖어 보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욥 5:2]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욥 5:3]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욥 5:4]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욥 5:5] 그가 추수한 것은 주린 자가 먹되 덧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욥 5:6]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욥 5:7]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 가는 것 같으니라

[욥 5:8]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권고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담을 통해 깨닫게 된 것들을 욥에

게 들려주었습니다. 어쩌면 엘리바스는 꽤나 많은 경험과 체험을 겪은 사람인듯 싶습니다. 인생의 많은 경험과 체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훨씬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경험보다 더 좋은 학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깨달음을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경험과 체험이 많아서 지혜가 많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말해야 합니다. 어쩌면 옳은 엘리바스에 비해 인생의 경험과 체험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옳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자신의 깨달은 지혜를 언급했겠지만 오히려 엘리바스의 권고 때문에 더욱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엘리바스처럼 인생의 경험이나 체험을 통해 깨달은 지혜를 가지고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나의 깨달은 지혜로 인해 배우자가 상처를 입습니다. 때로는 나의 깨달은 지혜로 인해 자녀가 상처를 입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최대한 고려해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엘리바스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2절)라고 말했습니

다. 좋은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좋은 말이고 맞는 말입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입니다. 시가가 어리석은 자를 멸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욱에게 해당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엘리바스의 말대로 욱의 분노 때문에 미련한 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욱의 시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이 죽임을 당했을지라도 결코 엘리바스는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엘리바스처럼 자주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엘리바스는 한 술 더 뜹니다.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3절). 엘리바스는 욱더러 미련한 자라고 말합니다. 욱이 미련해서 그의 마음이 나무와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듯이 어찌나 욱이 미련했든지 욱의 마음이 깊이 뿌리박혀 있음으로 그의 마음이 완고하고 고집스러워졌다는 표현입니다. 결국 욱의 미련함으로 인해 그런 고난을 당하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비록 욱이 뿌리깊은 나무처럼 미련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 시간에 글을 읽는 것을 잠깐 멈추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더듬어 봅시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을 미련하다고 말하지

않았는지... 오, 주여!

엘리바스는 욥에게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고까지 말했다는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욥이 얼마나 시기가 많았던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불 난 데 부채질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쩌면 엘리바스는 평소에 결코 욥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욥의 도움을 받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욥이 어마어마한 부자였기 때문에 어쩌면 그의 친구들은 욥의 도움을 받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단 한 번도 욥에게 그렇게 직설적으로 거친 말을 내뱉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엘리바스는 이렇게 직설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욥이 망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망하면 친구도 망합니다. 사람이 병들면 친구도 병듭니다. 사람이 가난하면 친구도 가난해집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친구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욥의 재산이 멀리 날라갔기 때문에 친구들의 마음도 멀리 날라간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 가는 것 같으니라"(7절)고 말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뱀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꼴입니다. 그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

다. 그가 아무리 인생의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욥 앞에서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지금 가장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엘리바스가 인생의 큰 고난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욥과 같은 고난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겪은 고난이 제일 큰 고난처럼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비록 엘리바스가 욥의 친구이지만 친구의 당하는 고난보다 자신이 당했던 고난이 더욱 큰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는 엘리바스가 이기적인 사람임을 드러냅니다.

결국 그는 해서는 안 될 말을 내 뱉고 맙니다. 그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위탁하리라"(8절)고 말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교만의 최고봉입니다. 이처럼 교만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는 마치 욥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처럼 말합니다. 욥에게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 뿐인데도 불구하고 엘리바스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욥은 엘리바스를 친구로 둔 것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굶고 있는 기와 조각으로 그의 면상을 굶고 싶었을 것입니다.

[욥 5:9]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욥 5:10]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욥 5:11]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욥 5:12]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욥 5:13]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욥 5:14]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욥 5:15]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욥 5:16]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엘리바스의 본인 자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욕창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를 앞에 두고서 하나님을 자랑하다니 참으로 형편없는 친구입니다. 우리들 중에도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힘들어 하는 사람

앞에 두고서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곧 죽을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하지는 맙시다. 이제 곧 죽을 사람 앞에서 "아~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하지 맙시다. 지금 이혼 도장을 찍고서 눈물을 흘리는 친구에게 "아~ 나에게 사랑스런 배우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하지 맙시다. 회사가 쫓딱 망해서 해외로 도망치려는 사람에게 "아~ 역시 해외 여행은 좋은거야!"라고 말하지 맙시다.

엘리바스의 하나님 자랑은 특등입니다. 너무 자랑을 잘해서 문제입니다. 자랑할 것도 상황을 파악하면서 해야 합니다. 오죽이나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었으면 그런 상황에서까지 자랑하겠습니까? 어쩌면 엘리바스의 하나님 자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랑한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9절)라고 말하면서 비를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시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은 악한 자를 파하시고 간교한 자로 하여금 자기 궤환에 빠지게 하

시며 사특한 자의 계교를 파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15절)라고 말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엘리바스의 하나님 자랑은 전혀 틀린 말이 없습니다. 모두가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욥 역시 모두 알고 있는 바입니다. 어쩌면 욥은 엘리바스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제일 많이 아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앞에 앉아있는 욥은 자신보다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사람이라고 여겼는지 모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친구였습니다. 많은 친구 중에 그래도 욥이 고난을 당할 때 함께 눈물을 흘렸던 친구였습니다. 그런 가까운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욥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가까운 친구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배우자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합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합니다. 가까운 친구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겠습니까?

[욥 5:17] 불지어다 하나님께 징계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욥 5:18]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욥 5:19]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욥 5:20]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욥 5:21] 네가 혐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욥 5:22]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욥 5:23]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욥 5:24] 네가 네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네 우리를 살피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욥 5:25] 네 자손이 많아지며 네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네가 알 것이라

[욥 5:26]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 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욥 5:27]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 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엘리바스의 하나님 자라는 끝이 없습니다. 이제는 아예 찬양까지 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모든 것을 잃은 상태에서 온 몸의 욕창 때문에 기와 조각으로 긁고 있는 상태인데 엘리바스는 오히려 나팔을 불며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는 "볼지어다..."(17절 상)라고 말하면서 욥의 시선을 자신에게 돌이키게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장 중요한 말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 하나님께 징계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17절)라고 권고했습니다. 물론 엘리바스의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의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도 엘리바스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 5:10]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 5:11]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디까지나 주를 위해 살아갈 때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복음을 반대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파괴하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핍박을 의미합니다. 이는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반대자에 의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욥의 고난은 예수님의 말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에 의해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 의해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욥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에 의한 시험이었습니다.

엘리바스는 그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주를 위해 고난을 당한 자에게 복이 임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당사자가 자신 스스로에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욥이 스스로 그런 말을 할 때에는 맞습니다만 엘리바스가 대신해서 할 말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는 자를 방문해서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의 수감일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당신을 두들겨 패기 때문입니다. 욥이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지 힘이 있었다면 엘리

바스는 병원신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엘리바스가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할 지라도 그것이 전혀 욕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던 것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하나님 자랑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행여라도 엘리바스처럼 행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단은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욥기 6장] =====

[욥 6:1]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욥 6:2] 나의 분한을 달아 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으면

[욥 6:3] 바다 모래보다도 무거운 것이라 그림으
로하여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욥 6:4]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히매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
하여 치는구나

[욥 6:5] 들 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
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욥 6:6]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욥 6:7] 이런 것을 만지기도 내 마음이 싫어하나
니 못된 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욥 6:8]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 주시기를 내가 원하나니

[욥 6:9]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그 손
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라

[욥 6:10]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
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욥이 친구 엘리바스의 권고에 자신을 변호하였습니다. 엘리바스의 권고의 말은 욥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은 엘리바스의 말 때문에 더욱 상처를 받았습니다. 욥의 마음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난을 당할만한 일을 절대로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분한을 달아 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으면 바다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2-3절)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 억울한 감정이 들었던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을 만나기 전에는 이 정도로까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순전함과 정직함을 잃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어떠한 말로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말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내의 욕설과 친구의 책망의 말을 듣고 난 후부터 욥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변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

나눔에 대해 원망하고 싶은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끝까지 경외할 뿐이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향해 분노를 펼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불평의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서서히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서서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욥은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매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4절 상)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당한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전능자의 살'이라는 표현은 그가 당한 재앙을 말한 것입니다. '독을 마셨다'는 표현은 그가 하나님의 재앙을 아주 심하게 받았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는 "...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4절 하)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욥이 느꼈던 감정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정을 감춥니다.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살이 내 몸에 박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독을 마시는 것 같을지라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척 할 때가 많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사람들 앞에 순전한척했고 정직한척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나아갔고

범죄하는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욕이 그렇게 했던 것은 그가 사람 앞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 앞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이상 그 앞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감출 필요가 없어졌던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보다 자신의 고통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고통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이 보이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 속에 감춰져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터져 표출된 것입니다. 어쩌면 욕은 그런 감정들을 감추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그런 좋지못한 감정들을 감추고 있는지 모릅니다.

욕은 사실대로 고백합니다. 그는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5절)고 말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는 풀이 없기 때문이며 꼴이 없기 때문임을 고백했습니다. 사실상 우리들도 욕과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풀이 없어 울고 꼴이 없어 우는지도 모릅니다.

욕은 자신이 진정 원하는 바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

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6-7절)고 말하면서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은 소금 없는 음식도 아니고 닭의 흰자위도 아님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진정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해 주시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 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8절).

어쩌면 욥의 말은 우리의 진실을 표현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역시 욥처럼 똑 같은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십니다. 내가 갖고 싶은 집을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강을 주시길 원합니다. 내 자녀가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해 주길 원합니다. 남편이 승진하길 원합니다. 남편이 더 많이 돈 벌어다 주길 원합니다. 아내가 더 이상 바가지 안 긁어주길 원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욥도 사실상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이 원하는 것은 대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욥이 당한 고난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멸하실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결코 자신이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9절)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욥이 하나님께 느꼈던 감정이었습니다. 이제서야 그가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드러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욥처럼 큰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속 마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속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 스스로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가끔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주십니다. 우리의 속 마음을 알고 싶어하시는가 봅니다.

그런데 욥의 말을 들어 보십시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10절). 욥의 말에는 약간의 교만기가 베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자격이 있고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가 그렇게 자신을 자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욥 6:1]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욥 6:2] 나의 괴로움을 달아 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욥 6:3]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운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욥 6:4]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매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욥 6:5]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욥 6:6]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욥 6:7]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욥 6:8]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 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욥 6:9]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

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욥 6:10]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
이라

욥이 고난 때문에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 (11절 상). 욥은 하나님께서 속히 자신을 구원해 주시길 원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주지 않으면 이대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는 욥의 이런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죽을 것만 같아도 느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욥 6:21]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욥 6:22]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욥 6:23]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

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
라 하더냐

[욥 6:24]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
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욥 6:25]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
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나

[욥 6:26]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욥 6:27]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
를 팔아 넘기는구나

[욥 6:28]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욥 6:29]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
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욥 6:30]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
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욥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졌던 불편한 마음이 친
구들에게 화살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
님께 서운한 마음이 있을 때 주변 사람에게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욥은 친구에게 이렇게 심한 말
을 했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22절). 우리도 가끔씩 친구들에게 이렇게 화를 내지 않습니까?

욥은 친구에게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29절 상)고 말하면서 친구들이 불의한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친구들이 한 것이라고는 욥을 돕기 위해 찾아 온 것이고 함께 울면서 욥을 위로한 것 뿐입니다.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욥을 위로하고자 권고의 말을 한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오히려 그런 친구를 향해 “불의한 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30절 상) 라고 자신의 의를 강조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욥의 이런 표현을 들으시면서 무척이나 놀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순전한 사람인줄로만 아셨는데 욥의 이런 말은 결코 그가 순전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욥기는 실제적인 내용이 아니라 소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만 욥기의 저자는 욥이 지극히 작은 자에 불과할 뿐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신자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욥처럼 낮은 자일 뿐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

다.

[욥기 7장] =====

[욥 7:1]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욥 7:2] 종은 저녁 그들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샅을 기다리나니

[욥 7:3]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욥 7:4]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욥 7:5]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 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욥 7:6] 나의 날은 베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욥 7:7]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욥 7:8]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욥 7:9]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욥 7:10]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욥은 친구의 권면의 말에 위로를 받지 못한채 스스로 비관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비관적인 말을 합니다. 욥은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그의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소망이 사라졌던 이유는 그의 고난이 너무나 길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걱정되었구나"(3절)라고 그가 왜 모든 것을 포기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곤고를 받다'라는 말은 원문을 직역하면 "내가 무익한 달들을 부여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욥이 수개월동안의 시간을 무익하다고 표현했던 것은 그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극복하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잃어버린 재산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자녀를 갖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피부병을 고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고난의 긴 터널 속에서 그만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도무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입니

다.

우리도 고난의 긴 터널 속에 있을 때 무너지곤 합니다. 너무나 캄캄하여 도무지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무너집니다. 재정의 그림자가 너무나 짙어서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로 인해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로 인해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 문제로 무너집니다. 우리 역시 옴이 겪었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4절)라고 말하면서 그의 겪는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망 없는 사람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뭔가 문제로 인해 골머리를 때리는 사람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너무나 터널이 어두워서 눈을 감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옴은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 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5절)라고 자신의 병이 얼마나 위중한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옴의 피부는 썩어 들어갔습니다. 썩은 곳에서 구더기가 생겨났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몸에

서 움직이고 있는 구더기를 보는 것은 큰 고통입니다. 흙 조각이 의복처럼 입혀졌습니다. 그의 피부병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의 살가죽이 합창되었다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살가죽이 다시 새롭게 되었다고 또 다시 썩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살이 썩고 터져 고름이 생기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은 다른 질병보다 훨씬 고통스럽습니다. 모든 질병이 다 고통스러운 것이나 옴의 고통은 극심한 고통을 가져다 주는 질병 중 하나였습니다.

옴은 자신의 인생에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빠져 나갈 구멍이 전혀 없음을 느꼈던 것입니다. 천지가 캄캄하여 도무지 빛을 볼 수 없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옴은 자신의 인생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곧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는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7절 상)라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한 호흡'이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숨을 쉬고 죽겠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옴에게 있어 하나님은 소망 그 자체였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그에게는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이나 다름 없었던 것입니다.

[욥 7:11]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욥 7:12]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
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욥 7:13]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욥 7:14]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
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욥 7:15]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
리이다

[욥 7:16]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 것
이니이다

욥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의
고통이 힘들었기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
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
던 진짜 이유는 질병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제대로 잠을 자길 원했습니다. "...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13절). 원래 아픈 사람은 제대로 잠을 자길 원합니다. 잠을 잘 때에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꿈에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옴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이는 그가 꿈에서 자꾸 좋지 않는 환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14절). 옴은 좋지 않는 환상을 마치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자신이 주는 불안한 생각들입니다. 자신의 불안함이 꿈에 형상으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의 자아가 무너진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환경이 좋지 않고 험난한 고난이 우리 인생에 닥친다 할지라도 어지간하면 자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자아는 살아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옴은 그 자아까지도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엔 외부 환경이 나쁘지 않은데 오히려 자아가 파괴된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적으로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자아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만 때

로는 외부적인 환경과는 상관없이 자아가 무너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최근에는 더욱 이런 현상이 가증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져 가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의 자아는 더욱 궁핍해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심화되는 것은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외부적인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정신세계를 파괴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신은 우리에게 의지를 부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역을 혼의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인식하는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의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감정체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활성화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단순한 지식에 불과합니다. 감정체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이러한 혼의 영역을 파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우리의 육을 공격합니다. 욕에 대한 공격은 일차적으로 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욕의 재산을 파괴하고 욕의 자녀를 몰살하고 욕의 육신에 피부병이 생기게 했던 것은 모두 육적인 공격

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외부적인 공격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외부적인 공격을 통해 우리의 내면이 파괴됩니다. 내면이 파괴되기 위해서는 먼저 감정이 파괴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감정이 메말라집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배우자에 대한 야릇한 감정이 전혀 없는 사람은 이미 감정이 파괴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눈물이 나오지 않는 사람도 감정이 메말라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미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이 파괴되고 나면 지식이 흩어집니다. 지식은 눈처럼 모와져야 합니다. 그래야 지식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파괴될 때 지식도 파괴됩니다. 감정이 메말라지는 것처럼 지식은 없어집니다. 지식이 메말라지지는 않습니다. 지식은 흩어지고 사라집니다. 이러한 지식이 사라지게 되면 배우자가 배우자인지 모르게 됩니다. 자녀가 자녀인지 모르게 됩니다. 부모가 부모인지 모르게 됩니다. 목사가 목사인지 모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시대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지식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신차리지 않

으면 더 심하게 파괴됩니다.

이렇게 지식이 파괴되고 나면 의지가 파괴됩니다. 언제 있었느냐는듯이 존재하지도 않게 됩니다. 이전에는 아주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갑자기 일을 안 합니다. 이전에 공부 열심히 했던 자녀가 갑자기 공부를 안 합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 갑자기 그만 둡니다.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갑자기 달라집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혼이 파괴된 모습입니다. 마귀가 이것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입니다.

욥은 먼저 육의 공격을 당하였고 그로 인해 그의 혼이 공격을 당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육적인 모든 것을 잃었으며 혼적인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연관된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에게 주어진 것은 죽음 뿐이었습니다. 소망되신 하나님이 없어지니 결국 남는 것은 죽음 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도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의 공격 때문에 소망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육의 공격을 받으면 소망이 더 살아나는 법입니다. 하지만 육의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잘 유지하지 못하면 혼의 공격

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마저 잃게 되면 우리의 삶은 끝입니다. 우리의 자아(Ego)는 혼의 영역이 무너질 때 심한 충격을 받습니다. 마치 지진이 일어날 때 건물이 흔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어지간하면 자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죽을 때에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매우 튼튼한 구조가 자아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침범 당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의학도 과학도 자아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이는 마치 우주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아도 파악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큰 장소이며 깊은 장소입니다. 하지만 혼의 영역이 파괴될 때 우리의 자아가 서서히 파괴됩니다. 자아만 살아있다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이 자아가 우리의 영의 영역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습니다. 이 자아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귀는 우리의 자아를 파괴하기 위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 깊은 속에는 초자아(Super Ego)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나'를 표현하는 모든 것이지만 초자아는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하는 나의 공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초자아 공간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단 한 번도 만

나거나 체험하지 못한채 죽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초자아는 깊고도 깊습니다. 이러한 초자아의 세계를 발견하려면 성령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성령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초자아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초자아 공간에서 우리의 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발견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아간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활동이라기 보다는 혼의 영역의 활동일 뿐입니다. 영적인 활동을 느끼는 것은 그리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영의 세계를 만나고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성령하나님과 절대적인 공유가 필요합니다. 마치 슈퍼컴퓨터와 컴퓨터가 연결되듯이 모든 정보가 주고 받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욥은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단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고난을 통해 자아가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자아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이 더욱 선명해지듯이 고난 속에서 우리의 자아는 더욱 빛을 발하

게 됩니다. 그런데 옅은 고난을 겪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에게 닥친 고난들로 인해 아주 빠르게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결국은 그가 자아까지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육신이 숨조차 쉬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 하듯이 그의 자아 또한 매우 힘들게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므로 내가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뼈보다도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15절)라고 죽기를 희망했습니다. '뼈보다도'라는 말은 '생명보다도'라는 말입니다. '뼈'는 곧 '생명'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 것이니이다"(16절 하)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고백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고백입니까?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욥 7:17]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욥 7:18]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욥 7:19]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

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욥 7:20]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
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과녁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
게 하셨나이까

[욥 7:21]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
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
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흠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
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 있지 아니하리
이다

욥은 이제 하나님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힘든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지만 결국
은 하나님 때문에 힘들어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서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자 되
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욥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의지하는 대상 때문에 괴로
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의지의 대상 때문에 괴로움을 당합
니다. 배우자를 많이 의지하는 사람은 배우자 때
문에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녀를 많이 의지
하는 사람은 자녀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
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것

이 누구이든지 간에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의지 대상은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돈을 의지하면 돈 때문에 괴롭게 됩니다. 집을 의지하면 집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CCTV와 같다고 했습니다.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18절). 하나님의 CCTV는 어찌나 성능이 좋은지 쉴 시간조차 주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19절). 이정도 되면 사람이 못 견딥니다. 이걸 최상급 잔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최상급 잔소리를 경험하는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잔소리가 잔소리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잔소리 때문에 삽니다. 잔소리가 싫은 것은 자유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벗어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안 보이는 곳으로 달아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놀기 위함입니다. 좀 일을 안 하고 싶을 때 잔소리가 싫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잔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항상

나를 권징하심이 너무 좋습니다. 분초마다 잔소리
하시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사
람들이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은 왜?

[욥기 8장] =====

[욥 8:1]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욥 8:2]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욥 8:3]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욥 8:4]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욥 8:5]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욥 8:6]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욥 8:7]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번에는 욥의 친구 빌닷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지극히 기본적인 기준에 맞춰서 욥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3절)라고 말하면서 욥의 고난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욥에게 그런 고난이 당한 이유는 그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4절).

아마도 욥은 마음이 찢어질듯 아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구 빌닷의 말이 조금도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코 욥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지도 않았으며 욥 자신도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 빌닷은 욥의 고난은 분명히 범죄함으로 인한 결과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들은 내가 고난을 당한 이유가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없으면 결코 고난이 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배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뭔가 잘못을 하지 않았으면 왜 그 사람이 당신에게 그렇게 했겠어?"라고 말합니다. 배우자로부터 그런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아픕니다. 뭔가 잘못된 일이 없을지라도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답답합니다. 때로는 자녀가 부모를 그런 식으

로 원망합니다. "아빠가 뭔가 잘못을 했기에 그런 안 좋은 일을 당한거잖아요!"라고 말할 때 아빠의 마음이 찢어질듯 아픕니다. 뭔가 잘못했기에 그런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안 좋은 일은 항상 생길 수 있는 것임을 자녀가 몰라줄 때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뭔가 범죄한 일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암에 걸립니다. 뭔가 범죄한 일이 있기 때문에 암에 걸린 것은 아닙니다. 물론 범죄하였기 때문에 암에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암 걸린 모든 사람이 모두 범죄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빌닷처럼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우리 주변에 빌닷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참으로 복있는 사람입니다.

빌닷은 욥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5-6절)고 말했습니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해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께 부지런히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청

결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기본적인 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부지런히 구하지 않아도 형통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청결하지도 않고 정직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청결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청결하고 정직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쉽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어린 사람입니다.

빌닷은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인생의 전체를 결론지으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모든 말이 옳지만 그의 말이 인생의 전부를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빌닷처럼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을 것입니다. 인생은 빌닷의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로 가득채워져 있

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인생의 고난을 당하는 사람 중에는 지금도 욥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혹 인생의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을 만날 때 어쩌면 그 사람이 욥과 같은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으로 고난 당한 사람을 가르치려 할 것입니다.

[욥 8:8]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욥 8:9]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
으니라)

[욥 8:10] 그들이 네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욥 8:11]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욥 8:12] 이런 것은 새 순이 돌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욥 8:13]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
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욥 8:14]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
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욥 8:15]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욥 8:16]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욥 8:17]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욥 8:18] 그 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욥 8:19]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욥 8:20]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욥 8:21] 웃음을 네 입에, 즐거운 소리를 네 입술에 채우시리니

[욥 8:22]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빌닷은 옛시대 사람에게서 배우라고 말했습니다. "...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8절). 옛시대 사람은 열조를 말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터득한 것을 배우라는 말입니다. 이는 옛날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쌓아놓은 지식과 지혜를 말합니다. 나이드는 사람은

나이어린 사람에 비해 지혜롭습니다. 더 오래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이먹은 사람이 나이어린 사람보다 모두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나이어린 사람도 나이먹은 사람보다 훨씬 지혜로운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빌닷의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옛시대 사람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배울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옛시대 사람에게서 배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이먹은 사람에게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이먹은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배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옛시대 사람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옛시대 사람보다 더 나이가 많아서 지혜로우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배울 때 나이와는 상관없이 지혜롭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린 사람 중에서도 매우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공급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빌닷의 말은 대부분 맞습니다. 왕골이 진펄에서 나는 것도 맞습니다. 갈대가 물 없이 자랄 수 없는 것도 맞습니다.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

겻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겻느냐”(11절). '왕골'은 파피루스의 한 종류입니다. 애굽의 늪에서 많이 자란 식물입니다. 왕골이나 갈대는 물이 없으면 아주 빠르게 시들어 버립니다. "이런 것은 새 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12절). 빌닷의 말은 모두 옛시대 사람들을 통해 깨달은 지식이었습니다.

그가 욥에게 가르치는 말들은 옛시대 사람을 통해서 얻은 지식들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13-15절)고 말했는데 이 또한 옛시대 사람들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입니다.

빌닷은 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실은 그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욥에게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20절)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욥은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순전한 사람 중의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순전함은 하나님도 알아 주실만큼 위대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옹의 친구 빌닷은 옹이 그렇게 순전한 사람인줄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친구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서 시의원인 자기 아버지 자랑을 마구 해대는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빌닷이 이처럼 어리석을 수 있었던 것은 옛시대 사람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을 통해 지식을 쌓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통해서 지식을 쌓아가는 사람에 비해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지식을 쌓아가는 사람은 비록 학력이 낮고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지혜롭습니다. 우리 친구 빌닷은 언제 성숙해져 갈까요?

[욥기 9장] =====

[욥 9:1]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욥 9:2]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욥 9:3]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 마디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욥 9:4]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
할 자가 누구이라

[욥 9:5]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웁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욥 9:6]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욥 9:7]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욥 9:8]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욥 9:9]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욥 9:10]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
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욥 9:11]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

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
하느니라

[욥 9:12]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
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
랴

[욥 9:13]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
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욥 9:14]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
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욥 9:15]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
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욥 9:16]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
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
지 아니하리라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
해서 잘 몰랐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생을
함께 살았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욥에게 있었던 이유는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단지 '신'(God)이었을 뿐
입니다.

어쩌면 우리들 중에도 하나님을 단지 신으로만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좀처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단지 신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고...."(15절 상)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있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던 것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신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음성을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은 인간의 음성을 들으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는 생각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그는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16절)라고 말함으로써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잘 표현해 주었

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단지 신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관계를 맺을 수도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욥처럼 살아갑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은 인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욥 9:17]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욥 9:18] 나를 숨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욥 9:19]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욥 9:20]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욥 9:21]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욥 9:22]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욥 9:23]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욥 9:24]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욥 9:25]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욥 9:26]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욥 9:27]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 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욥 9:28]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욥 9:29]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욥 9:30]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욥 9:31]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욥 9:32]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욥 9:33]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
나

[욥 9:34]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
기를 원하노라

[욥 9:35]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욥은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워 했습니다. 너무나
두려워했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
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
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
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32절 상).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임하는 모든 고난을 제거해
주실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고 말했습니다.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
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34-35절).

옳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두려워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아버지이십니다. 결코 우리는 아버지 앞에 두려움으로 나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부드러운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사랑이 많으신 분이 없습니다.

[욥기 10장] =====

[욥 10:1]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욥 10:2]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 10:3]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욥 10:4]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욥 10:5]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욥 10:6]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욥 10:7]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욥 10:8]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욥 10:9]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

내려 하시나이까

[욥 10:10]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킨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욥 10:11]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욥 10:12]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욥이 하나님께 자신의 원통함을 호소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1절 상). 어지간하면 그가 입을 열지 않을 것인데 그의 인생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이런 고난을 당할만큼 죄 지은 적이 없는데 극심한 고난을 당한 것에 대해 원통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께 그대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1절 하).

사람이 웬만하면 마음의 괴로움을 말하지 않습니다. 보통적으로 마음의 괴로움을 참습니다. 이는 사람은 짐승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짐승은 뭔가 괴로울 때 곧 바로 그것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어지간하면 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는

것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괴로움을 참을 때 병이 납니다. 괴로움을 참을 때 심령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괴로움은 오히려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자신의 원통함을 발설하고 괴로운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욥의 그러한 태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것입니다.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욥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욥에게 원하셨던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환난이 사탄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라면 틀림없이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과 환난을 겪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일 지금 당신이 어떤 고난과 환난 중에 있다면 그것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로부터 온 것인지를 확인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그런 고난을 받아도 될만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만일 당신이 그런 고난을 받을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욥에게 당면한 고난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처럼 당신에게도 그런 기회가 온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2절 하)라고 따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3절)라고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녀를 학대하고 악인을 선대하여 악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자녀를 학대케 하는 그런 부모로 취급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이 보는 것처럼 실수 투성임을 강조했습니다.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4절).

이제는 하나님을 마치 사람처럼 취급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사람처럼 취급한 것은 하나님과 맞짱을 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시면 두들겨 패고 싶은 심정에서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먹살이라도 잡고서 횡패를 부리고 싶은 심정에서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욥은 참으로 잘 한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평생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 중에도 욥처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신으로만 여기면서 신과 인간은 결코 대화를 나눌 수 없으며 그 어떠한 관계도 맺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욥은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이 감사한 것은 죽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으니 감사한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실 작정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8절). 욥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으니 책임지라고 따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했으면 왜 나를 만드

셨습니까!”라고 따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억 하옵소서...”(9절 상)라고 말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흠을 뭉치듯 욥을 만드셨음을 상기하시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흠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 내려 하시나이까”(9절). 욥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지극히 옳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욥이 이전에는 이렇게 말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든 적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욕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이왕에 죽을 목숨이니 말이라도 제대로 하고 죽자는 식이었는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오히려 욥에게 득이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막혔던 길이 뚫렸습니다.

[욥 10:13]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욥 10:14]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욥 10:15]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

문이니이다

[욥 10:16]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욥 10:17]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욥 10:18]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욥 10:19]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욥 10:20]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욥 10:21]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욥 10:22]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저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욥은 자신이 죽은 후에 지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기 때문입니

다. 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보이는 것은 죽은 자녀들의 시신 뿐이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옴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은 버림받음 뿐이었습니다. 그는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갈 곳은 지옥 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21절)라며 평안히 죽게 내버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저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22절)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갈 곳을 말한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옴은 그렇게 인생의 고난 중에 지옥을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옴처럼 지옥을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인생의 고난이 닥칠 때 지옥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도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방에 갇혀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옴은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지옥을 경험한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자에게는 지옥이 보입

니다.

[욥기 11장] =====

[욥 11:1]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욥 11:2]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욥 11:3]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욥 11:4] 네 말에 의하면 내 도는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욥 11:5]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욥 11:6] 지혜의 오묘함으로 네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욥 11:7]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욥 11:8]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욥 11:9]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욥의 친구 소발이 입을 열었습니다. 욥의 말을 들으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소발이 친구 중 가장 늦게 입을 연 것은 그만큼 그가 참을 성이 다른 사람보다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때로 우리 주변에 말이 없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없다고해서 아주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말은 없지만 생각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소발이 그런 친구였습니다. 입은 늦게 열었지만 그의 생각은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강력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소발은 욥을 심하게 정죄했습니다. 그는 욥에게 "네 말에 의하면 내 도는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4절)라고 말하면서 욥이 스스로 깨끗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의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 질책하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6절 하)고 꾸짖었습니다. 소발은 지금 욥이 어떤 상태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듯 합니다. 욥이 모든 재산을 잃고 모든 자녀까지 잃었으며 욕창때문에 육신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인줄 모르고 있는듯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욥

이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벌에 네 죄보다 더 가볍다"란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은 "네가 당하는 형벌은 모두 네 죄 값이다"고 말한 것입니다. "네게 저주가 임한 것은 모두 네 죄로 인함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소발처럼 심하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욕이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심하게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마도 욕은 소말의 말을 듣고서 기절할 뻔 했을 것입니다. '저런 놈이 내 친구라니!'라며 스스로 소발을 친구 삼은 자신을 한심스러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소발처럼 비판합니다. 소발처럼 남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소발처럼 남의 잘못을 질책하며 저주스러운 말까지 합니다. 너무나 담대하게 그런 말을 합니다. 비록 우리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닐지라도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은 곤란합니다. 우리는 남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줘도 된다는 면허증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누구의 사주를 받고 남에게 상처를 가하는 청부업자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남에게 상처를 가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의

말로 인해 누군가 상처를 입었다면 그것은 또 다른 죄입니다. 죄 지은 친구가 죄인이 아니라 그런 친구를 죄인이라고 정죄한 내가 더 큰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죄를 더 크게 여기십니다. 결코 죄인을 정죄하는 사람을 죄없다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비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비판하는 자는 비판하는 것으로 비판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판하실 것입니다.

“[마 7:1]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마 7:2]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욥 11:10]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소냐

[욥 11:11]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욥 11:12]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욥 11:13]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욥 11:14]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욥 11:15]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욥 11:16] 곧 네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기억
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욥 11:17] 네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
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욥 11:18] 네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욥 11:19]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네게 은혜를 구하리라

[욥 11:20]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
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
두는 것이니라

소발은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 (11
절 상)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행하
는 자를 상세히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언급
했습니다. "...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
나 다 보시느니라" (11절 하). 소발이 욥에게 이러

게 말한 것은 옴이 당한 고난이 모두 하나님에 의해 내려진 형벌이라는 것을 말함입니다. 옴의 죄악 때문에 결국은 그런 형벌을 받게 되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발은 옴에게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 (14절 상)라고 권고했습니다. 소발의 말에는 그 자신이 매우 의롭다고 알리는듯 합니다. 마치 그에게 아무런 고난이나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가 죄가 없이 살며 의롭게 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듯 보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고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도 없고 불행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고난이나 형벌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 속에 사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난과 불행한 일에 대해 소발처럼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결코 우리의 의로움이나 죄가 없기 때문에 고난이나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고난이 없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절대로 소발처럼 스스로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욥기 12장] =====

[욥 12:1]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욥 12:2] 너희만 참으로 백성으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욥 12:3] 나도 너희 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욥 12:4]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욥 12:5]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욥 12:6]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욥 12:7]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 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 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말하리라

[욥 12:8]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소발의 질책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욥이 소발의

질책의 말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소발의 질책은 오히려 옥의 마음에 상처를 줬습니다. 옥은 소발의 말을 듣고서 오히려 부정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었지만 소발의 질책의 말이 옥의 내면에 숨어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끄집어 올린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의 질책으로 인해 어떤 사람이 부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질책의 말은 이처럼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질되게 만듭니다. 남편의 질책의 말은 부정적인 아내를 만들어 냅니다. 아내의 질책의 말은 남편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사람이 되게 합니다. 부모의 질책의 말은 자녀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성장케 합니다.

옥은 "너희만 참으로 백성으로구나..."(2절 상)라고 말하면서 잘난체 하는 친구들을 못마땅스러워했습니다. 옥은 그들에게 "...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2절 하)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이는 친구들이 옥 앞에서 자신의 지혜를 뽐냈기 때문입니다. 옥은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고난당한 사람에게 지혜를 뽐내는 것처럼 구역질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난체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고난당한 사람 앞에서는 더더욱

해서는 안 됩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나도 너희 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3절)고 말하면서 잘난체 하는 친구들의 면상을 짓밟았습니다. 욥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온 것은 친구들이 그렇게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고난당한 사람을 공격적인 사람으로 만들곤 합니다. 쓸데 없는 말을 할 때에도 상대방이 공격적이 될 수도 있지만 주로 고난당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더욱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욥은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6절 상)라고 말하면서 세상이 불공평함을 호소했습니다. 욥은 스스로 자신이 의롭고 순전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4절 하).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임한 고난이 불공평한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친구처럼 못된 놈들이 오히려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는 자들이 평안한 것을 볼 때 욥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솟아 올랐던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이런 감정이 솟아 오름을 느낍니다. 강도같은 자들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섬

기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 부정적인 감정이 치솟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도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자신은 의롭고 순전한데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에 비해 극심한 고난을 당합니다. 차라리 죄를 짓고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훨씬 마음이라도 편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로움이 조금도 도움이 안 되고 자신의 순전함이 오히려 고난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욥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욥 12:9]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욥 12:10]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욥 12:11]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욥 12:12]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욥 12:13]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욥 12:14] 그가 혈으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욥 12:15]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욥 12:16]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욥 12:17]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 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욥 12:18]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욥 12:19]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 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욥 12:20]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욥 12:21]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욥 12:22]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데로 나오게 하시며

[욥 12:23]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욥 12:24]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

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욥 12:25]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 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욥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았습니다. 인생의 복이 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고 인생의 고난도 하나님에 의해 이뤄진 것임을 알았습니다. 욥은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10절)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는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13절)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지혜와 생각이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 것도 저절로 세워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허락없이는 아무 것도 무너지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부자도 하나님 손에 있으며 가난한 자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하나님 손에 있으며 병든 사람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욥과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 당신은 당신의 지혜와 뜻과 의지대로 인생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스스로의 인생이니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삶은 부족한 삶입니다. 그런 삶을 비어있는 삶입니다. 채울 수 없으며 만족할 수 없는 삶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당신의 삶이 조금이라도 편해질 것입니다. "왜요?"라는 질문보다 "아멘!"으로 답하십시오. 하나님은 "왜요?"라고 질문하는 자보다 "아멘!"하는 자를 더 좋아하십니다. 당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아멘하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건강을 잃을 때에도 아멘하십시오. 가난해질 때에도 아멘하십시오. 누군가와 싸울 때에도 아멘하십시오. 사기를 당했을 때에도 아멘하십시오. 모든 삶에 아멘하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당신은 잃어버린 평안을 찾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런 삶이 지극히 소극적인 삶이

라도 말할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말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 삶이 소극적인 삶이 될지라도 그런 삶에는 평안이 따릅니다. 욥이 이처럼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던 것은 그가 스스로 평안을 찾기 위함입니다. 욥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 역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봤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자세가 그에게 평안을 주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일어난 일에 아멘으로 답하였을 때가 더욱 평안함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지만 때로는 소극적인 자세도 필요합니다. 매사에 적극적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매사에 소극적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적절하게 적극적인 자세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그것이 소극적인 것보다 낫습니다. 하지만 빚어진 결과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로 받아 드리십시오. 그것이 적극적인 것보다 낫습니다.

[욥기 13장] =====

[욥 13:1]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욥 13:2]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욥 13:3]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욥 13:4]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 없는 의원이니라

[욥 13:5]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욥 13:6]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 보라

[욥 13:7]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욥 13:8]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욥 13:9]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 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욥 13:10]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욥 13:11]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

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욥 13:12]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
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욥 13:13]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
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욥 13:14]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욥 13:15]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
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욥 13:16]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욥 13:17]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 줄 것이 있느니라
[욥 13:18]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욥 13:19]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라 그러면 내
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욥은 더 이상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았
습니다. 친구들의 말이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
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욥은 친구들의 말에 상처
만 받았습니다. 친구들이 욥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친구들은 욥을 비판하

고 판단하고 정죄할 뿐 옹의 마음을 달래주지 못했습니다. 옹은 친구들에 대해 화가 났습니다. 그는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2절)며 잘난체 하는 친구들에게 화를 퍼부었습니다.

옹은 친구들이 미웠습니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 친구들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차라리 그런 친구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을 정도로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13절 상)고 말하면서 더 이상 아무 것도 상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내가 당하는 것이니 더 이상 상관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13절 하).

아마도 옹의 친구들은 옹의 말로 적잖은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옹의 친구들도 옹의 말에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옹의 심정을 이해해야만 했습니다. 옹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친구들은 옹처럼 고난 중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옹의 친구들이 옹의 말에 서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옹의 말은 그의 친구들의 마음을 서운케 했습니다. 결국 옹의 말은 친구들로 하여

금 더욱 비난의 화살을 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옹과 친구와의 관계는 그렇게 점차 멀어져만 갔습니다. 옹은 고난 받아서 힘들어 했지만 친구들은 옹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아서 힘들어 했습니다. 어찌보면 옹의 친구들이 참으로 잘난체 하는 사람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토록 고난을 당하는 친구이니 무슨 말을 해도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옹의 친구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옹의 잘못된 생각을 뜯어 고치고야 말겠다는 마음으로 옹을 더욱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 역시 옹의 친구처럼 고난 중에 있는 친구를 비판하고 정죄하는지도 모릅니다. 친구는 아파서 죽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옆에서 "네가 지은 죄가 커서 고통을 받는거라구" 정죄하는 목소리를 크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고난 중에 있는 친구에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옹은 결국 친구들의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친구들과 그 어떠한 변론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변론은 서로의 감정이 상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변론하기

로 작정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과 변론하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친구와의 변론보다 하나님과 변론하는 것이 훨씬 지혜롭고 효과적인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변론하기 보다는 사람과 변론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을 통해 위로를 받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변론하는 것을 더 선호해야 합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사람보다 못하시겠습니까?

[욥 13:20]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욥 13:21]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욥 13:22]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욥 13:23]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 13:24]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욥 13:25]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불을 뒤쫓으시나이까

[욥 13:26]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욥 13:27] 내 발을 차꼬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욥 13:28]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욥은 하나님과의 변론에서 하나님께 두 가지 사항을 지켜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욥을 더 이상 치지 말아달라는 것과 주의 위엄으로 욥을 두렵게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21절).

욥이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은 욥의 인생에서 이 두 가지가 가장 끔찍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그동안 이 두 가지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치심으로 인해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모든 소유를 잃었으며 모든 자녀를 잃었습니다. 이것은 욥에게

가장 큰 고난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외에 욥에게 극심한 고통을 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두렵게 하신 것입니다.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두려움 자체였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감히 나아가질 못했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버지이심에도 불구하고 욥은 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너무나 커서 감히 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생각조차 못했으며 하나님께 눈을 뜨지도 못했습니다.

혹 당신도 욥과 같은 심정입니까? 당신도 욥처럼 그런 간구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도 욥처럼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당신도 욥처럼 고난을 당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신도 욥처럼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너무나 위엄이 크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욥의 심정은 우리의 심정과 같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나님께 당하였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재정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습

니다. 하나님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셨으면서도 너무나 당당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너무나 크신 위엄으로 계십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은 뻔뻔하실까요? 어쩌면 그렇게 미안해 하지도 않으시는 것일까요? 언제까지 우리는 그런 뻔뻔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봐야만 하는 것일까요?

욥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욥과 같은 우리가 너무 불쌍합니다. 욥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연유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싫어하는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23절). 욥은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진정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자로 여기신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자로 삼으셨다고 욥이 느꼈다는 것은 욥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쩌면 우리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자로 삼으셨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24절).

옘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환경적으로도 버림받았으며 내면적으로도 버림받았습니다. 그의 소유를 모두 잃고 그의 모든 자녀를 잃을 때에도 그는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의 육신에 욕창이 생겼을 때에도 버림받았다는 느낌뿐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욕창이 낫지 않고 환경이 변화되지 않은 것 때문에도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버림받은 느낌을 받은 옘은 낙엽소리에도 깜짝 놀랐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불을 뒤쫓으시나이까”(25절). 굴러 지나가는 검불덩이 때문에 옘은 놀랐습니다. 모든 소리에 놀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놀랐습니다. 눈을 감아도 놀라움이 찾아 왔습니다. 모든 것이 옘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옘은 “내 발을 차꼬에 채우시며 ...”(27절 상)라는 말로 자신의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가뉘두심을 느꼈던 것입니다. 아무 곳도 가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느꼈습니다. 마치 발을 차꼬에 채우신 것처럼 느꼈던 것입니다. 그

는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28절)라고 자신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실로 썩어버린 존재였습니다. 좀 먹은 의복처럼 낡은 존재였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새로운 날들이 없었으며 거듭 태어나는 역사가 없었습니다. 죽는 날만 기다릴 뿐 그 어떠한 희망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은 욥의 고백을 동의할 것입니다. 욥이 느낀 것과 똑 같은 느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해자이십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피해자는 항상 숨을 뿐이며 가해자는 항상 당당할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커다란 의문입니다.

[욥기 14장] =====

[욥 14:1]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욥 14:2]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
자 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욥 14:3]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
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욥 14:4]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
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욥 14:5]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 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욥 14:6]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 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욥 14:7]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썩힐지라도 다시
움이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욥 14:8]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욥 14:9]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
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욥 14:10]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
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욥 14:11]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찾아서 마름 같이

[욥 14:12]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욥의 인생은 비참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너무나 짧고 괴로움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1절)라고 말하면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비참한지를 표현했습니다. 욥이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은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도 누릴만큼 누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치 부부가 이혼을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이별을 했던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욥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잘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하나님의 잘못이 더 클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욥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욱을 외면하셨기 때문입니다. 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욱은 더 이상 살 맛을 잃었던 것입니다. 전혀 살 맛을 못 느꼈던 것입니다. 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살 맛을 못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욱기를 읽으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하나님은 곧바로 욱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빨리 욱에게 반응을 하셨더라면 욱의 심정이 이처럼 비관적이지는 않았을텐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우리도 욱처럼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손을 뻗어도 잡히지 않습니다. 눈을 떠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손을 잡아봤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가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욥 14:13]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욥 14:14]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욥 14:15]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욥 14:16]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йка

[욥 14:17]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욥 14:18]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흠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욥 14:19]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욥 14:20]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 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욥 14:21]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욥 14:22]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욥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처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해 더욱 소리를 높였습니다. 욥은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 (13절 상)라고 간구했습니다. "스올(음부)에 감춰달라"는 말은 차라리 이럴 바에야 나를 죽여 달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스올(음부)라는 것 자체가 죽은 자가 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욥은 소망을 잃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더 이상의 소망이 없어짐을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진노하셨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13절 중)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차라리 죽을 지언정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하고 싶다는 솔직한 그의 심정을 드러낸 것입니다.

당신은 이런 감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의 진노는 참

을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참으로 없다는 감정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옴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그만큼 더 고통을 당하여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옴의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욱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맺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옴의 그러한 심정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옴의 그런 심정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당신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욥기 15장] =====

[욥 15:1] 데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욥 15:2]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욥 15:3]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욥 15:4]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욥 15:5] 네 죄악이 네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욥 15:6]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네 입술이 네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욥 15:7]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나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욥 15:8]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욥 15:9]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나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나

[욥 15:10]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욥 15:11]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네게 작은 것이냐

[욥 15:12] 어찌하여 네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네 눈을 번뜩거리며

[욥 15:13] 네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네 입을 놀리느냐

[욥 15:14]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욥 15:15]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욥 15:16]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을 심하게 정죄하였습니다. 이는 더 이상 욥의 변론을 듣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욥의 말을 들을 때 욥이 자기자신을 의인으로 생각하고서 마치 욥이 당한 고난이 의인에게 임한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볼 때는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그의 죄값으로 인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질책을 가합니다. 원래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해서 욥의 잘못

됨을 지적하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그는 자신의 경험과 그동안 쌓아올린 지혜를 가지고서 욱을 질책했습니다. 그는 욱에게 "네 죄악이 네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5절)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의 말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 봤습니까? 맨 정신으로는 이런 말을 못하는 게 친구입니다. 하지만 엘리바스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상관치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상대방이 자신의 거룩한 경험과 높이 쌓아올린 지혜를 무시할 경우에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는 자입니다. 그런 엘리바스는 욱이 자신의 친구인지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을 주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엘리바스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인정하지 않거나 다른 주장을 내세워 그것을 막으려 한다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록 상대방이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용납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의

경험을 무시한다 할지라도 참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의 지혜대로 살지 않을지라도 그냥 내버려둬야 합니다. 꼭 상대방이 내 경험을 중시여기고 내 지혜대로 살아야 속이 시원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은 상대방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사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꼭 상대방이 내 뜻대로 사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엘리바스와 같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엘리바스의 뜻대로 살길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내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세상과 다를 수도 있고 세상이 나와 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엘리바스는 욱을 향하여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네 입술이 네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6절)라고 질책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그의 말에서 욱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엘리바스 자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정죄한 것은 네 입이다"라고 말할 때 이미 그가 욱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욱은 결코 자신의 입으로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욱은 억울함을 호소했을 뿐입니다. 욱은 결코 자신을 뱉내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곧 죽을 지경인데 어찌하여 욱이 뱉

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엘리바스가 욕을 바라볼 때 욕이 스스로를 자랑하고 스스로를 뽐내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이는 엘리바스 스스로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진 것입니다. 그 스스로 뽐내는 인생을 살았으며 그 스스로 잘난 체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사람의 마음 속을 드러다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를 가리켜 '제 3의 귀'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으면 그 사람의 생각을 드러다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한 말만 듣습니다. 누군가 "야, 너 바보야"라고 말한다면 주먹을 꼭 지고서 한 대 때려줄 분노가 생깁니다. 이런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 엘리바스가 어떤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정죄를 잘 하는 사람입니다. 언뜻 보면 욕이 스스로의 입을 통해 자신의 죄악으로 자기자신을 정죄하는 것처럼 느

꺼지지만 실상은 엘리바스의 정죄의 화살이 욥을 관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욥 15:17]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욥 15:18]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욥 15:19]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욥 15:20]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헛수는 정해졌으므로

[욥 15:21]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욥 15:22]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욥 15:23]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욥 15:24]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욥 15:25]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

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욥 15:26]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
께 달려드니

[욥 15:27]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
름이 엉기었고

[욥 15:28]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
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욥 15:29] 그는 부요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
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
이라

[욥 15:30]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
가 불려가리라

[욥 15:31]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
라

[욥 15:32]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
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욥 15:33]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 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욥 15:34]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
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욥 15:35]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

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엘리바스는 자신의 지혜를 자랑합니다.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서 마음껏 욕을 도륙합니다. 마치 칼로 생선을 자르듯이 그렇게 욕을 해부합니다. 욕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잊어 버렸습니다. 욕이 자신의 친구라는 사실도 잊어버렸습니다. 오직 자신의 지혜만 뽐낼 뿐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이런 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지혜를 뽐내기를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아픔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곤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상관치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지혜만 뽐낼 뿐입니다.

그는 욕을 이방인으로 여겼습니다. 욕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욕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에 욕은 엘리바스보다 훨씬 하나님의 자녀된 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는 바입니다. 하지만 엘리바스가 생각할 때에 욕은 이방인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는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19절)라고 말하면서 욕을 '외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외인'이라는 말은 '이방인'이란 말

입니다. 엘리바스는 외인된 욥은 결코 '이 땅',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에 거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참으로 참혹스런 말 아닙니까? 욥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엘리바스는 그렇게 참혹스런 말을 한단 말입니까?

그가 말한 땅은 '지옥'입니다. 그는 욥을 향하여 "지옥에나 떨어져라!"는 저주의 말을 퍼부은 것입니다. 그는 "...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헛수는 정해졌으므로"(20절)라고 말하면서 욥이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당할 자로 여겼습니다. 어찌 친구에게 이런 심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간혹 화가 날 때에 "지옥에나 떨어져라!"는 말을 해댁니다. 친구에게도 하고 부모에게도 합니다. 배우자에게도 합니다. 자녀에게도 합니다. 그러고보면 우리도 엘리바스와 같은 자임이 분명합니다.

엘리바스는 왜 욥이 지옥에 떨어져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25절). 엘리바스의 말이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욥에게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을 대적하지도 않았습니니다.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

지도 않았습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가 그렇게 말했던 것은 그의 눈에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의 생각에 그렇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욥은 당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고난 뿐이었지만 그가 당한 고난 때문에 덤으로 친구의 정죄까지도 당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잘 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지만 내가 잘 못 되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정죄합니다. 내가 잘못된 것이라고는 잘 못된 것 뿐인데 잘못된 것이 그토록 죄가 될 줄은 몰랐습시다. 그래서 사람은 잘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욥처럼 고난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을 받거나 곤경에 처한 상황이 되면 친구도 욱하고 배우자도 욱하고 맙니다.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의 고충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욱하고 떠날 뿐입니다.

[욥기 16장] =====

[욥 16:1]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욥 16:2]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욥 16:3]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욥 16:4]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 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욥 16:5]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욥 16:6]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욥 16:7]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욥 16:8]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욥 16:9]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 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욥 16:10]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뱀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욥 16:11]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욥은 친구의 정죄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적잖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욥이 받은 충격은 그 어떠한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었습니다. 어쩌면 모든 소유물을 잃고 모든 자녀를 잃은 고난에 못지 않는 큰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욥은 모든 소유물을 잃었을 때에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자녀를 잃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욥을 정죄했을 때에는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친구의 정죄가 욥에게 있어서 매우 큰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정죄함으로 인해 아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정죄함으로 인해 가족이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정죄함으로 인해 교인들이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배우자가 제일 많은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녀들도 큰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

다. 이처럼 우리의 정죄는 주변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욥은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11절)라고 고백했습니다. 친구들을 악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욥을 보십시오. 그만큼 욥은 정죄하는 친구들을 악인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욥 16:12]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숴뜨리시며 나를 세워 과녁을 삼으시고

[욥 16:13]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 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욥 16:14]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 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욥 16:15] 내가 붉은 베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땀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욥 16:16]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욥 16:17] 그러나 내 손에는 포학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욥 16:18]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

짓음이 실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욥 16:19]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욥 16:20]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욥 16:21]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
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욥 16:22]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
로 갈 것임이니라

욥은 하나님께서 친구들의 정죄함을 막아달라
고 간구했습니다. 더 이상 친구들의 정죄함을 견
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의 친구는 나
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
리니"(20절)라고 말하면서 친구들의 정죄로 인해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는 오직 하나님만이 증인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결백함을 증명해 주실 분이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과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셨습니다. "지금 나
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19절).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셨야
만 욥의 결백함을 증명해 주실텐데 높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욕의 느낌을 동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 높은 곳에 계십니다. 아무리 소리쳐 불러봐도 대답하지 않을 정도로 멀리 계십니다.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의 마음에 아픔이 남습니다.

욕은 하나님께서 모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구합니다.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친구들의 정죄가 참으로 어리석고 사악한 것임을 밝혀달라고 간구합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21절). 맞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얽힌 문제와 오해들을 풀어주십니다.

욕은 수 년이 지나면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음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길 원했던 것입니다.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22절)

우리들 중에는 옅처럼 수 년 내에 죽게 될 것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어서 지금도 힘들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바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지금'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에는 '나중'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원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더 없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로봇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날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 17장] =====

[욥 17:1]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 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욥 17:2]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욥 17:3]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 줄 자가 누구리이까

[욥 17:4]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욥 17:5]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욥은 친구들이 미웠습니다. 자신을 이해하지 않으며 자신을 알아주지 않은 친구들이 미웠습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의 자녀들이 눈이 멀도록 저주했습니다.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5절). 욥이 그런 저주의 말을 내뱉은 것은 친구들이 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미운 사람을 저주합니다.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이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오히려 나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의로운데 오히려 나를
죄인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누구라도 저
주의 말을 내 뱃을 수 있습니다. 욥도 그런 상황
에서 저주를 퍼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아무
리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친
구들의 정죄를 인내하지는 못했습니다.

[욥 17:6]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욥 17:7]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욥 17:8]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욥 17:9]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욥 17:10]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욥 17:11]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
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욥 17:12]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욥 17:13]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으매

[욥 17:14]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
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욥 17:15]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욥 17:16]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욥은 모든 소망을 잃었습니다. 그의 모든 소유를
잃었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의 모든 자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의 소망이
끊어진 것도 아닙니다. 친구들이 욥의 마음을 몰
라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의 소망이 없어진 것
은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유일한 소망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 욥의 소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이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았을 때 하나님은 멀리 계셨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애타게 찾았을 때 하나님은 출장
중이셨습니다. 욥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욥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셨
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화가 났던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
께 배신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하
나님인데 오히려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배신을 당

한 것입니다. 배신을 당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화가 납니다. 욥도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욥이 화가 났을 때 어느덧 소망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욥이 하나님에 대해 불만을 가졌을 때 어느덧 소망이 빛을 잃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에 대해 불평했을 때 어느덧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욥은 소망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15절).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의 소유도 잃었습니다. 그의 자녀도 잃었습니다. 그의 친구도 잃었습니다. 그의 하나님도 잃었습니다. 결국 욥은 소망없는 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남은 것이라고는 이제 생명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남은 생명도 이제 음부로 내려갈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16절). 그의 인생은 끝이 났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끝이 난 것입니다. 소망이라도 있어야 했지만 그 소망마저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소망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소망을 놓지 마십시오. 소망마저 잃으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으십시오. 욥은 하나님을 잃었습니

다. 하지만 당신은 결코 하나님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옍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옍은 실제 인물이 아닌 소설속의 주인공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옍처럼 하나님을 잃은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옍기의 저자가 마치 하나님이 옍을 버리신 것처럼 꾸몄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옍기를 다 읽고 난 후에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결코 옍처럼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도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당신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십니다. 당신이 힘들어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결코 소망없는 자처럼 살지 마십시오. 소설 속의 옍은 다시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옍기를 끝까지 읽으십시오. 지금 이 대목에서 멈춘다면 당신은 소망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욥기 18장] =====

[욥 18:1]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욥 18:2]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맏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욥 18:3]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욥 18:4]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욥의 친구 빌닷은 욥의 말에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는 욥이 자신을 가리켜 짐승처럼 여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욥이 그를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3절).

하지만 욥은 빌닷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욥은 친구들이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에 대해 화가나서 한 소리 했던 것 뿐입니다. 만일 욥이 고난 중에 거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친구들에게 화를 내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런 저주의 말도 내뱉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닷이 욕을 이해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욕은 고난 중에 있는 자이지만 빌닷은 고난 중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병든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든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간에 그렇게 신경쓰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이 심한 말을 할지라도 참습니다. 욕설을 퍼붓더라도 그냥 못들은체 하고 맙니다. 이는 상대방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욕 역시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소유를 잃었고 모든 자녀까지 잃었습니다. 육신마저 욕창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욕을 정상적인 사람처럼 대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과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를 볼 때 불쌍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이는 거지는 나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는 도울 자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갈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와 같지 않습니다. 나와 같지 않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쌍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만일 우리는 거지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었다 할지라도 인내할 것입니다. 상대방은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물건을 훔쳐갈지라도
모른체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불쌍하기 때문입니
다.

옉의 친구 빌닷은 다 가진 자입니다. 하지만 옉은
다 잃은 자입니다. 빌닷은 옉을 불쌍히 여겨야 합
니다. 나와 똑 같은 사람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빌닷은 옉에 비해 너무나 가진 게 많은 사람입니
다. 하지만 옉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
다. 그런 사람을 우리와 똑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빌닷은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옉
의 몸은 건강치 못합니다. 빌닷은 풍성한 소유를
가지고 있으나 옉은 없습니다. 지나가는 거지보다
더 거지같은 옉이었습니다.

그런 옉에게 우리가 보여야 할 감정은 '동정'입니
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빌닷은 조금도 옉
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옉의 말에 기분
이 상했습니다. 옉의 저주를 용납하지 않았습니
다. 참으로 빌닷은 악한 자입니다. 처음 옉을 충고
했을 때부터 알아봤아야 하지만 지금 보니 참으
로 악한 자입니다. 그런 자는 친구가 아닙니다. 모
든 것을 잃어버린 친구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친구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자
입니다.

빌닷은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옛시대 사람의 가르침을 욥에게 전할 뿐이었습니다. 오늘날 병들어 있는 사람에게 세종대왕의 명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일이면 죽을 사람에게 이순신 장군의 명언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듯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던 빌닷이 오히려 욥의 말에 기분나빠하고 그것을 참지 못하는 것은 그의 인격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욥 18:5]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욥 18:6]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욥 18:7]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욥 18:8]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욥 18:9] 그의 발 뒤꿈치는 덩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욥 18:10]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욥 18:11]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

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욥 18:12]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욥 18:13]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
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욥 18:14]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뿔히
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욥 18:15]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욥 18:16]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
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욥 18:17]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
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욥 18:18]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
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욥 18:19]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
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욥 18:20]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
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욥 18:21]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
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빌닷은 욱을 저주했습니다. 그는 욱을 악인으로 취급하면서 악인의 빛이 꺼질 것이라고 저주했습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5절). 그는 욱의 걸음이 피곤해 질 것이고 그의 발이 그물에 걸리고 그의 몸이 올무에 얽힐 것이라고 저주했습니다. 그는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12절)라고 저주했습니다. 아주 저주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는 얼마나 자신이 저주를 잘 퍼붓는지 실력을 최대한 보여줬습니다. 아낌없이 욱을 저주했습니다. 그의 저주는 아무도 따라올 자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욱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며 이내 곧 죽게 될 것이라고 저주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저주했습니다. "..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18절 하).

심지어 그는 욱의 가문이 끊어지길 저주했습니다. "그는 백성 가운데서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을 것이며 그의 거하던 곳에는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을 것이라"(19절). 어찌 친구란 자가 그렇게 심한 저주의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욱은 고난 중에 한 소리했지만 빌닷은 욱보다 훨씬 큰 저주의 말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거지보다 더 거지같은

불쌍한 자에게 말입니다. 웬만한 사람은 거지에게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런 저주의 말은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불쌍한 사람에게 저주의 말을 퍼붓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일을 옴의 친구 빌닷은 해 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는 옴을 불의한 자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취급했습니다.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그러하니라"(21절). 아무리 옴이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빌닷도 옴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말했던 것은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화가 났다고 해서 빌닷처럼 그렇게 심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어떤 사람의 자녀에게 "네 아버지도 모르는 놈 같으니라고!"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화가 날지라도 결코 그 사람의 아버지까지 들먹이면 안 될 것입니다. 옴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이십니다.

[욥기 19장] =====

[욥 19:1]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욥 19:2]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욥 19:3] 너희가 열 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
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욥 19:4]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
물이 내게만 있느냐

[욥 19:5]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
니와

[욥 19:6]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욥 19:7]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
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욥 19:8]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
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욥 19:9] 나의 영광을 거두어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욥 19:10]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
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욥 19:11]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 같이 보

시는구나

[욥 19:12] 그 군대가 일제히 나아와서 길을 돈우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욥 19:13]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욥 19:14]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욥 19:15]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욥 19:16]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욥 19:17]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욥 19:18]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욥 19:19]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욥 19:20]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 뿐이로구나

[욥 19:21]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

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옫은 친구들로 인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옫은 친구들의 충고의 말이 마치 자신을 꾸짖고
학대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열 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3절).
옫이 이렇게 느꼈던 것은 어쩌면 그가 고난 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고난 중이 아니라
보통 때였다면 그렇게까지 느끼지는 않았을 것입
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충고의 말을 전할 때 조심
해야 합니다. 특별히 상대방이 고난을 당하고 있
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은 이미 마음의 상처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
금만 심한 말을 해도 금방 상처를 입기 때문입니
다.

우리는 상처를 매우 쉽게 받는 사람을 알고 있습
니다. 그런 사람은 잘 놀다가도 갑작스럽게 화를
냅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
람이 마음의 상처를 쉽게 받는 이유는 이미 그 사
람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마음이
갈라지고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

은 말에도 쉽게 상처를 느끼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당신은 어쩌면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상처를 받았는지 모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그 사람에게 상처를 가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상처를 받았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처받은 사람은 당신의 생각과는 달리 매우 극심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이루고 온종일 당신을 생각할 것입니다. 당신이 좋아서 당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당신에게 복수를 해야하는지 궁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말에 상처를 받았을 법한 사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었겠구나 싶은 사람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생각이 나면 지금 메시지를 보내십시오. 미안하다는 말을 건네 보십시오. 그러면 어쩌면 당신은 그 사람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웁은 친구들의 말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 했습니다. 왜 친구들이 자신을 그토록 미워하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이 주는 핍박보다 친구

들의 핍박은 너무나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욥은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 오..."(21절 상)고 부탁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욥 19:22]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욥 19:23]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욥 19:24]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욥 19:25]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 19:26]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 19:27]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욥 19:28]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욥 19:29] 너희는 칼을 두려워 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

을 알게 되리라

욥은 친구들이 그의 살을 파먹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는 욥이 욕창으로 인해 자신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마치 욕창으로 인해 자신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듯이 친구들의 책망의 말은 욥의 살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주었던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22절)라고 항변했습니다. 욥의 말을 자세히 듣고 있자면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핍박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들까지 합세했으니 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확산된 것입니다.

욥은 이제 더 이상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소망은 조금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죽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는 하루하루 소망없이 살았습니다.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는 "...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26절 하)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죽은 후에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말한 것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를 전혀 들어주지 않으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에게 있어서 마지막 희망은 죽은 후에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욥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살아 생전에는 결코 하나님을 뵈 수 없는 처지가 되었기 때문에 불쌍한 것입니다. 죽어야만 뵈 수 있는 하나님. 죽은 후에서 뵈 수 있는 하나님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욥이 참으로 불쌍합니다.

혹 당신도 죽은 후에야 하나님을 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욥처럼 모든 것을 잃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불쌍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살 때 주님을 만나는 방법을 아십니까?

[욥기 20장] =====

[욥 20:1]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욥 20:2]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욥 20:3]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욥의 친구 소발 역시 욥을 책망했습니다. 그 역시 욥의 변론이 자신을 책망하는 소리로 들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책망은 욥이 들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책망했습니다. 욥은 단지 자신을 변론했던 것 뿐입니다. 단지 친구들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은 것에 대해 마음이 아팠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들은 마치 욥으로부터 자신들이 책망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발은 친구들 중에서 가장 욥을 책망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욥에 대해 심하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정죄의 대가였습니다. 이렇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책망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자신의 몫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책망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비판을 잘하고 정죄를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비판 받거나 정죄받는 것을 지극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만일 누군가 그 사람에게 조금만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하면 버럭 화를 내거나 심하게 분노하는 증상을 보입니다.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항상 그 사람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고 정죄를 받게 될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옴에게는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몇 안 되는 친구들이 모두 비판의 대가들입니다. 옴이 비판을 잘 해서 비판의 대가들을 친구로 삼았을까요? 아니면 옴이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저들도 의로운 사람들이었을까요?

소발은 옴의 말을 듣고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2절 상). '초조한 마음'<사이프>라는 말은 '나누어진 의견'을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의견을 옴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고보면 그가 옴을 심하게 비판하고 정죄했던 것도 사실상 그의 생

각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만큼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가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 '슬기로운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3절 하).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상당히 지혜롭습니다.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과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의 차이는 상당히 큼니다.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엔 지혜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이는 생각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상황 대처능력이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소발은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혜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생각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대부분 지혜롭습니다. 그들이 지혜롭다보니 잘난체합니다. 스스로 지혜로움을 칭찬합니다. 보기에 안 좋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그런 모습이 역겨울 때도 있습니다. 이는 저들이 사람의 지혜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일 저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을 많이 한다면 사람들의 태

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들은 자신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과 자신의 뜻으로 생각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현저합니다. 자신의 뜻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스스로 슬기로운 자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스스로 연약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깁니다. 이것이 저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현저함입니다.

[욥 20:4]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욥 20:5]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욥 20:6]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욥 20:7]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욥 20:8] 그는 꿈 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

을 것ियो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욥 20:9]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
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욥 20:10]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욥 20:11] 그의 기골이 청년 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흠에 누우리라

[욥 20:12]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
추며

[욥 20:13]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
고 있을지라도

[욥 20:14]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
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욥 20:15]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욥 20:16]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
을 것이라

[욥 20:17]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
을 보지 못할 것ियो

[욥 20:18]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
려 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
하리니

[욥 20:19]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음
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욥 20:20] 그는 마음에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욥 20:21]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

[욥 20:22]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
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욥 20:23]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
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
의 위에 비 같이 쏟으시리라

[욥 20:24] 그가 철 병기를 피할 때에는 낚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욥 20:25]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
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
에게 닥치느니라

[욥 20:26]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욥 20:27]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
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욥 20:28]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
의 날에 끌려가리라

[욥 20:29]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소발은 자신이 깨달은 지혜를 가지고서 찬란한 변론을 했습니다. 그의 변론에는 악인이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악인으로 선정합니다. 물론 자기 자신은 제외입니다. 항상 그렇듯이 자기 자신은 의인으로 삼습니다. 누군가를 타겟으로 삼고서 그 사람을 악인으로 모십니다. 그러고는 타겟이 된 사람을 향해 마구 비판과 정죄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소발은 정죄의 대가가 갖춰야 할 풍성대로 욥을 향해 정죄의 화살을 마구 쏘아댔습니다. 소발에게 욥은 악인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욥은 소발에게 있어서 악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소발은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정리된 아주 멋진 공식으로 욥을 공격했습니다. 욥은 총알받이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마구잡이로 당해야만 했습니다.

소발은 무수히 많은 총알을 악인 욥에게 발사한 후에 이런 말로 피어나는 화약연기를 감추었습니다.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29절). 어쩌면 우

리는 소발처럼 총잡이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도 멋지게 총을 난사한 후에 총부리에 피어오르는 화약연기를 입으로 불면서 가장 멋진 자세를 뽐내는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악인으로 삼고 그 사람에게 사정없이 총을 발사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멋있어 보일지 모릅니다.

대체적으로 비판과 정죄가 습관이 된 사람은 그것을 재미있어 합니다. 한번 비판과 정죄에 빠지면 좀처럼 헤쳐나오기 힘든 아주 재미나는 취미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비판과 정죄의 취미에 쏙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결코 비판과 정죄의 취미로부터 빠져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늪과 같아서 빠져 나오려고 하면 더욱 깊이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소발이 처음부터 정죄의 대가가 된 것은 아닙니다. 피나는 노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재미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당신이 이런 비판과 정죄의 취미에 쏙 빠져 있다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비판적인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악인으로 삼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

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정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방법이 되겠지만 하나님은 한 구절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비판과 정죄의 늪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빌 2:3]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마음 속에 떠오르십시오. 그런 다음 그 사람과 당신을 비교하십시오. 누가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당신이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겨진다면 당신은 지금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 할지라도 당신이 그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되면 이미 당신은 비판과 정죄의 늪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욥기 21장] =====

[욥 21:1]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욥 21:2]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욥 21:3]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욥 21:4]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
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욥이 친구들의 심한 질책을 받을 때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사이가 멀어지는 것은 느꼈기 때문입니다. 욥은 친구들과 사이가 멀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에게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4절 상)라고 그의 본심을 털어 놓았습니다. 물론 욥이 다소 친구들의 말에 서운하여 화를 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욥이 친구들에게 화를 낸 것은 친구들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변명의 말을 했습니다. 그 역시 사실인 것은, 하나님께서 욥같이 선한 사람에게 고난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욥은 스스로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짓지 않은 선한 사람이었지만 그런 선한 그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임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대해 적잖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적잖은 불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욥처럼 그렇게 선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극심한 고난을 당할만큼 악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이유도 없이 찾아온 고난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까닭없이 찾아온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욥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욥에게 동정심이 가는 것입니다.

[욥 21:5]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욥 21:6]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욥 21:7]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욥 21:8]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욥 21:9]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욥 21:10]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배고 그들의 암
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욥 21:11] 그들은 아이들을 양 떼 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욥 21:12]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
리 불어 즐기며

[욥 21:13]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욥 21:14]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
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욥은 하나님께 원망할 때에 그에게 임한 고난 때
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가
장 주된 것은 악인들이 형통한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죄 하나 짓지 않고 살았던 자
기 자신은 그렇게 심한 고난을 당하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도리대로 살지 않으며 악한 짓을 일삼는 악인들
이 형통한 모습을 보면서 더욱 하나님이 원망스
러웠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형통한 악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을 포기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단정지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하여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지 못하는지 참으로 답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시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야, 이것은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절대로 이런 일은 존재하지 않아'라는 생각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욥은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7절)라는 말로 악인이 의인보다 더 오래 사는 것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아야 하건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삽니다. 이런 사람은 자녀들의 복도 많습니다. 욥은 "씨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고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8절)라고 고백했습니다. 욥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믿지 않는

자의 후손이 번성하며 이 땅에서 땡땡거리며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옴도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즐겁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고 고난도 없고 만사가 형통하니 항상 즐거울 뿐입니다. 옴은 저들의 모습을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12절)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그렇게 즐겁게 사는 믿지 않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도리를 배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14절).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기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랴..."(15절).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들을 그들은 내 뱉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쉬지 않았던 기도를 저들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우리보다 더 잘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우리보다 만사 형통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목사에게 대해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사기꾼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코 이뤄지지 않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현실이지만 우리들에게는 비현실적인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만사형통이 없습니다. 오직 믿지 않는 자에게만 만사형통함이 있을 뿐입니다.

욥의 생각이 이러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혹 당신은 욥의 생각과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보다 믿는 자들이 더 만사형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형통합니까? 욥이 믿음이 적어서 그런 고난을 받았습니까? 당신에게는 심각하지 않을 질문일지 모르나 적어도 욥에게는 매우 심각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믿지 않는 자들이 나보다 더 형통해야 하나요?"

우리에게는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이 필요합니다. 아주 적절한 정답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편치 않을 것입니다. 죽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수고가 헛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욥의 말에 정답이 숨어 있습니다. 욥은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면서 "그 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에 음부에 내려 가느니라"(13절)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죽어 음부에 내려 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죽어 낙원에
거할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의 해답입니다.

내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살아갈 때에 이 해
답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인생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 펼쳐진다는 사실을 내가 믿
으면 이 해답은 너무나 값진 것입니다. 이 해답이
중요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됩니다. 그만큼 이 해답이
중요합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이 해답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이 해답이라고 말하니까 너무나
실망했습니까? 만일 당신이 그 해답을 듣고서 실
망했다면 당신의 믿음은 실망스러운 믿음입니다.

[욥 21:15]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
는구나

[욥 21:16]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욥 21:17]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
게 닥침과 하나님은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욥 21:18]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 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 같이 되었도다

[욥 21:19]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 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 시기를 원하노라

[욥 21:20]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욥 21:21] 그의 달 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욥 21:22]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 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욥 21:23]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욥 21:24]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 수는 윤택하고

[욥 21:25]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으므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욥 21:26]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욥은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형통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의인보다 더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며 세

상과 더불어 온갖 죄를 짓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오히려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죄 짓지 않는 사람에게 고난을 가하시는 것에 대해 욥이 화가 난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욥처럼 화가 났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런 하나님이 미워서 화를 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인데, 진짜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싫습니다. 왜 진정 하나님은 그런 사실을 모르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악인을 동정하고 의인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왜 욥같이 의로운 사람을 힘들게 하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얻기 위함일까요? 무슨 영광을 얻으시려고 그토록 욥을 힘들게 하시는 것일까요?

욥은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 어쩌면 욥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후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위해 정성을 다했던 세월이 자신의 실수였다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욥은 그런 마음으로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랴..."(15절)고 말했습니다. 욥의 이러한 고백은 혼자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숨어서 몰래 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온 세

상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친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듣길 위해서 한 말입니다.

욥이 이토록 큰 소리로 외쳤던 것은 그만큼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미움이 컸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욥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너무나 그런 하나님이 미워서 찢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욥은 "그들의 복록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16절 상)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복을 많이 주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복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니라"(16절 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의인으로 살았던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가 악인이었다라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았을텐데 오히려 의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온갖 나쁜 죄를 저질렀다면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텐데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죄 짓지

않고 살아온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한심스러웠던 것입니다.

욥은 결코 악인이 하나님에 의해 고난을 받아본 적이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악인의 등불이 꺼짐이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함이나 ... 곤고케 하심이나 ... 폭풍에 불려가는 겨같이 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17-18절)고 말하면서 결코 악인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적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물론 욥의 이러한 생각은 모두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하지만 욥이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욥이 이처럼 화를 내고 빈정스러운 태도로 하나님을 비꼬며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을 내뱉었던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원해서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하나님께서 욥에게 응답하지 않을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욕하고 그렇게 저주의 말을 퍼부으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기 싫어 무슨 말씀이라도 하실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늘 없었던 것처럼 없었습니다. 늘 경험했던 것처럼 경험했습니다.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항상 일방적인 사랑에 대한 일방적인 아픔 뿐이었습니다. 끝없는 욕의 사랑은 침묵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욕의 그런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신가?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시는가?

[욥 21:27]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욥 21:28]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욥 21:29]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 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욥 21:30]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욥 21:31]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 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라

[욥 21:32] 그를 무덤으로 메어 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욥 21:33]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

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 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욥 21:34]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욥은 하나님께 화풀이 하는 것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친구들을 향해 화풀이를 시작했습니다. 일종의 넋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화풀이를 들어줄 사람은 친구들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반응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넋두리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나마 눈에 보이는 친구들이 넋두리 하기엔 좋았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넋두리 하는 것이 실증날 때 종종 옆에 있는 사람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남편이 그 대상일 때가 많습니다. 영문도 모른채 아내의 화풀이를 당하는 남편의 수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화풀이가 어찌면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일어나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아내가 남편의 화풀이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참아줘야 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니 배우자라도 하나님 역할을 대신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옅은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비록 악인이 이 세상에서 형통한다 할지라도 저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멸망'뿐임을 밝혔습니다. "악인은 남기워서 멸망의 날을 기다리움이 되고 멸망의 날을 맞으러 끌려 나감이 된다..."(30절).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옅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졌을 것입니다. 그런 말이라도 해서 스스로 위로하지 않으면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볼 때에 더욱 비참해지기 때문입니다.

옅은 "그를 무덤으로 메어 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32절)고 말하면서 악인의 최후는 '죽음'뿐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비록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아무런 응답이 없을지라도 죽은 후에는 천국에 갈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비록 악인이 이 세상에서 형통하다 할지라도 죽은 후에는 죽음 뿐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옅에게 큰 은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옅에게 큰 위로가 된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에게 이러한 내용은 큰 위로가 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형통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악인의 삶보다 덜 형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최후가 멸망 뿐이요 죽음 뿐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서 적잖은 은혜가 되는 것

입니다. 그러한 보상 조차 없다면 아마 우리는 많이 힘들어 할 것입니다. 악인이 이 세상에서 형통할 뿐더러 죽은 후에도 형통하게 된다면 우리는 설 곳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마음은 녹아 버릴 것이며 아무 것도 생각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리고 말 것입니다. 지극히 끔찍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옅의 이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볼 수 있습니다. 옅의 실상은 현실이 아닙니다. 이는 소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악인이 형통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의인이 악인보다 더 끔찍한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실재가 아닙니다. 단지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음을 가정해서 소설화한 것입니다. 만일 옅기에 나와 있는 일들이 실재라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는 힘들 것입니다. 정말로 살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함께 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싫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실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의인

보다 더 형통케 하지 않습니다. 의인이 악인보다 형통합니다. 천국에서도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의인은 악인보다 더 많은 복을 받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만일 당신이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제가 욥처럼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악인입니다. 당신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실제로 당신은 악인입니다. 악인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욥이 될 수 없는 것은 가상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당신을 욥처럼 시험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당신이 하나님의 시험을 당할 때가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당신에게 원하고 계시는데 자꾸만 당신이 세상을 좇아 살아가기 때문에 당신을 하나님 곁에 붙잡아 놓으려고 당신에게 좋지 않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그것을 욥이 당한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욥은 철저하게 순전했고 정직했으며 하나님만 섬겼으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당신은 철저하게 그 반대가 아닙니까? 자꾸 당신이 욥처럼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약 1:13]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약 1:14]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욥기 22장] =====

[욥 22:1] 데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욥 22:2]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욥 22:3]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
이 되겠느냐

[욥 22:4]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문하
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나

[욥 22:5]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욥 22:6]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
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욥 22:7]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
하며 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욥 22:8]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
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욥 22:9]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
의 팔을 꺾는구나

[욥 22:10]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 있고 두
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욥 22:11]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으리라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또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지나친 의로움에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왜, 하나님은 의인을 벌하시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스스로 자신이 의로운 사람임을 말했습니다. 그것이 친구들에게는 못마땅스러웠던 것입니다. 친구들의 생각에는 욥이 불의하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역경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욥으로 하여금 그런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질책을 하고 정죄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수고가 전혀 욥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지 못했습니다.

엘리바스는 최종적으로 욥에게 진실을 전했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 입을 연 것은 총 세 번이었습니다. 이미 두 번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엘리바스는 처음 두 번의 실패로 인해 세 번째의 그의 충고가 욥에게 먹히지 않을 것을 예상했습니다. 이미 두 번의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욥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욥을 두고만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욥이 더 큰 고난을 당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것은 모두 그의 인생 경험에서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엘리바스는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친구였습니다. 그는 세차례 모두 자신의 인생 경험에서 배웠던 진리들을 가지고 욥을 가르쳤습니다. 빌닷과 소발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빌닷은 전통적으로 전해져 오는 진리를 가지고서 욥을 질책했지만 그에 비해 엘리바스는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해 깨달은 진리를 가지고서 욥을 질책했습니다. 또한 소발과도 달랐습니다. 소발은 매우 비판적이고 정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소발은 스스로 매우 의롭다고 여긴 사람이었기 때문에 욥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이번에도 엘리바스는 자신의 인생 경험에서 깨달은 진리를 가지고서 욥을 질책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질책과는 달리 이번 세 번째는 다소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질책보다는 가르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처음 두 번째의 그의 말보다 이번 세 번째의 말이 훨씬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우리들에게도 매우 필요한 말씀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게 된 이유를 말하였습니다. 그는 욥이 악한 사람이고 그의 죄악이 매우 극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극하니라”(5절). 하나님은 까닭없이 고난을 가하지 않으시며 이유없이 고통을 허락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까닭없이 형제의 물건을 볼모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갈한 자에게 물을 마시우지 아니하며 주린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였구나”(6-7절). 우리는 때로 물건이 볼모로 잡힙니다. 재산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헐벗고 굶주릴 때가 있습니다. 갈증을 느껴도 물을 먹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에 의하면 이런 고난이 까닭없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 보십시오. 지금 어떤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일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런 고난과 고통이 아무런 이유없이 찾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런 고난과 고통은 아무런 이유없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욥 22:12]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욥 22:13] 그러나 네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

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욥 22:14] 백백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욥 22:15]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욥 22:16]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 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욥 22:17]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욥 22:18]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욥 22:19]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욥 22:20]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욥 22:21]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21절).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면 그때 비

로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엘리바스는 그의 인생을 통해 이러한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들 중 많은 사람은 아직도 그런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적어서 깨닫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 환갑이 넘고 진갑이 넘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복은 세상을 통해 오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받는 복이 모두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재자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법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건널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 다리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건널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중재자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끊어진 다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요 14: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케 하십니다. 이는 예수께서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중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중재

자되십니다. 남편도 중재자가 될 수 없고 아내도 중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도 중재자가 될 수 없고 어머니도 중재자가 되지 못합니다. 자녀도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재자가 되십니다. 교회 담임목사도 중재자가 아닙니다. 그 어떠한 종교지도자도 우리의 중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중재자임을 압니다.

“[롬 5: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욥 22:22]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욥 22:23]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욥 22:24]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욥 22:25]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며 네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욥 22:26]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

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욥 22:27]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욥 22:28]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치리라

[욥 22:29]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욥 22:30]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네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권하였습니다. 모든 불의를 버리라고 권하였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복이 다시금 욥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히라"(23절).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28절 상).

엘리바스의 말은 진리였습니다. 그의 말은 욥을 향한 질책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욥을 위한 거룩한 충고였습니다. 우리는 엘리바스의 말을 들어

야 합니다. 이는 그의 말이 그의 인생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가지 진리를 깨닫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엘리바스의 말은 참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의 말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22절)는 그의 말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낯을 뵈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뵈는 것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26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이라면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과녁에서 빗나간 화살이 죄인 것처럼 정확하게 과녁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과녁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날아가야 합니다. 정확히 하나님께 꽂혀야 합니다.

[욥기 23장] =====

[욥 23:1]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욥 23:2]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욥 23:3]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욥 23:4]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욥 23:5]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욥 23:6]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욥 23:7]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는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욥 23:8]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욥 23:9]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뵈올 수 없구나

[욥 23:10]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자신에게 닥친 인생의 고난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 했습니다. 그는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2절)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괴로움을 표현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탄식을 합니다. 인생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힘이 들 때에 탄식 소리를 냅니다. 힘들기 때문입니다. 힘든 사람에게서는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러한 탄식 소리보다 오히려 재앙 때문에 더 힘들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탄식 소리를 낸다는 것은 호화로운 것이었습니다. 그가 겪는 고통이 너무나 커서 탄식하는 소리조차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욥처럼 인생이 힘든 사람은 탄식 소리조차 내지 못하며 삽니다. 너무나 당하는 고통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좌절합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욥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단련 기간이 끝나면 정금 같이 될 것을 믿었습니다. 지금 당하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시는 것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유명한 말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10절).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무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입이 있기에 욱의 고백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성우처럼 멋진 목소리로 읽을 수 있습니다. 다소 감정을 넣어가면서 멋지게 읽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욱의 고백은 그의 인생이 담겨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은 욱처럼 인생의 고난을 겪은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욱과 같은 고백을 할 자격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인생의 고난을 많이 당했기 때문입니다. 욱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당신은 복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의 인생에 많은 고난들의 흔적을 보면서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만은 당신을 복있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고난에 대해 불평하지 마시다. 오히려 정금 같이 만드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욥 23:11]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욥 23:12]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
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
도다

[욥 23:13]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
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욥 23:14]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
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 23:15]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욥 23:16]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욥 23:17]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
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겼
습니다.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12절 하).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긴 사람은 참으로 복있는 사람입니
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
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12절 상).

시편 기자는 복있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시 1:2]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까? 아니면 음식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음식보다 귀하다 여기는 사람은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시 119:103]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욥기 24장] =====

[욥 24:1]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욥 24:2]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욥 24:3] 고아의 나귀를 몰아 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욥 24:4]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 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욥 24:5]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 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욥 24:6] 밭에서 남의 꿀을 베며 악인이 남겨 둔 포도를 따며

[욥 24:7]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위도 덮을 것이 없으며

[욥 24:8]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욥 24:9]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으므로

[욥 24:10]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

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욥 24:11]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 틀을 밟느니라

[욥 24:12] 성 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
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
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욥은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를 보지 않으신다고
느꼈습니다. 악한 자들이 사람들의 양떼를 빼앗고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로 잡
을지라도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가만히 놔두십니
다. 욥은 많은 사람들이 불의한 자로 인해 상처받
고 신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나 도무지 하나님
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했습
니다. "성 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
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
지 아니하시느니라"(12절).

욥이 이렇게 말했던 것은 그가 그렇게 느꼈기 때
문입니다. 그 역시 불의한 자에 의해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
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를 통해 누군가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
니다. 욥은 자신이 불의한 자가 아니라고 생각했

습니다. 우리도 욱처럼 스스로 불의한 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왜 불의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의문을 갖습니다. 불의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을 향해 불만스러운 말을 내뱉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그런 불의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욱은 불의한 자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누군가 상처를 입거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욱의 친구들도 욱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우리 때문에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많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 불의한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나 스스로 불의한 자라고 생각할 때 비로소 나로 인해 상처 받은 사람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 불의한 자라고 인식할 때 나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나는 전혀 그런 불의한 자가 아니야"라고 말한다면 결코 나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을 볼 수 없으며 나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나로 인해 상처를 입고 나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의 상처를 위로해 주고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의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스스로 불의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훨씬 이 세상이 밝아집니다. 훨씬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옅은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를 벌하지 않으신다는 것 때문에 많이 화가 났습니다. 불의한 자가 이 세상에서 없어진다면 더욱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정작 불의한 자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를 처벌하셨다면 그 중에 옅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자르셨다면 옅도 잘라진 가라지 중에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불에 태워진 가라지처럼 그 역시 불에 태워졌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신 이유는 불의한 자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건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불의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불의한 자를 그

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욥 24:13]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욥 24:14]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 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 같이 되며

[욥 24:15]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욥 24:16]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니

[욥 24:17]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 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앎이니라

[욥 24:18]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만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욥 24:19]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으니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욥 24:20]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욥 24:21]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욥은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광명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 (13절 중).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나 가난한 자나 빈궁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적질을 합니다. 그들 중에는 간음하는 자가 있어서 날이 저물기만을 기다리며 아무도 그들을 보지 못하게 얼굴을 변장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침을 두려워합니다. 저들이 아침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광명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 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앎이니라" (17절). 저들이 흑암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 자신이 흑암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침을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흑암에 갇혀 있는 자들은 아침을 싫어합니다. 이는 아침에는 빛이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어두움을 더 좋아합니다. 이는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혹 당신은 어둠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빛보다 어

두움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빛에 거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떨리지 않습니까? 오히려 어둠에 거할 때 보다 안전하고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어두움에 거한 자입니다. 빛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요 3:19]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요 3:20]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욥 24:22]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욥 24:23]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욥 24:24]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욥 24:25]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하나님에 대한 욥의 불만 중의 하나는 하나님께서 강한 자들을 보존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22절 상). 여기서 '강한 자' <아비림>이라는 말은 '능한', '용감한'의 의미를 가진 <아비르>에서 파생된 말로서 자기 자신의 힘만 의지하는 교만하고 강한 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힘만 의지할 뿐 도무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욥은 이런 강한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오히려 저들의 삶이 평안함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런 자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만 의지하며 사는데도 오히려 잘 삽니다. 오히려 건강하며 오히려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강한 자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들을 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렇게 자신의 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강한 자들이 우리보다 더 형통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욥처럼 변하고 맙니다. 욥이 왜 그런 강한 자들에 대해 불만을 품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강한 자들 편에 서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

가 많습니다.

하지만 욥은 스스로 강한 자들의 최후를 예견합니다. 그는 강한 자들이 범인처럼 제압을 당하고 곡식 이삭 같이 베임을 입게 될 것을 예견했습니다. "...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24절 하). 이러한 그의 예견은 그가 강한 자들의 최후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순전히 욥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그런 강한 자들의 최후가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 것 뿐입니다. 어쩌면 욥의 희망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욥의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막연하게 강한 자들의 최후가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자 누구랴"(25절)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 자신 스스로도 강한 자의 최후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는 강한 자들이 형통한 삶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채 자신의 힘과 능력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강한 자들의 최후가 이삭 같이 베어짐을 당하는 꼴을 자주 봐야 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을 지켜 본다는 것은 매우 힘들기 때

문입니다. 강한 자들은 우리의 희망과는 달리 더
형통하고 더 건강할 뿐입니다. 그것이 욕의 마음
에 가득 차있는 불만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불만이 가득히 채워져 있는지 모
릅니다. 한 번 당신의 마음을 열어 보십시오.

[욥기 25장] =====

[욥 25:1]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욥 25:2]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욥 25:3]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욥 25:4]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욥 25:5]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욥 25:6]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욥의 친구 빌닷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빌닷은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사실을 유난히 강조한 친구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욥의 고난은 죄로 인한 고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사실을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가르침대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당신에게 있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빌닷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항상 높은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2절).

하지만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슬퍼하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미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화가 나실 때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화를 참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여러 죽어 나갑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권능과 위엄만 가지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여길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는 때때로 하나님은 지극히 인간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인간적인 하나님을 대할 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때로는 그런 인간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대할 때 하나님이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 인간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을 때 아무도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
니다.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욕하고 때리며
침 뱉으며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께서
상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하나님의 모
습을 너무 심할 정도로 바꾸려고 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화가 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인간을 화나게 해서.

오늘날도 하나님께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닷 같은 사람은 인간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
변에 많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인간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 예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하나님으로 그냥 하늘에 계셨더라면 오히려 사
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으셔야만 했습니

다.

물론 그렇게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미웠습니다. 너무나 그런 모습이 보기 싫어서 십자가에 매단 것입니다. 지금도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매일 죽으십니다. 인간의 모습을 하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매일 십자가형을 당하십니다.

혹 당신은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닙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인간의 모습을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만 존재하길 원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달리 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만 존재하신다면 언제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 오셔야 당신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당신이 하나님으로 변화될 수는 없잖습니까? 도대체 무슨 방법이 있기에 인간이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입니까?

만일 당신이 인간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당신은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동행하시기 위해 일부

러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생각엔 하나님께서 항상 하늘에 계신다고 믿으니 어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당신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라도 당신은 인간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도무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을 겁니다.

[욥기 26장] =====

[욥 26:1]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욥 26:2] 네가 힘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 주는구나
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욥 26:3]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빌닷의 충고는 욥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빌닷의 충고가 욥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이유 중의 가장 두드러진 것은 그가 지극히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지식만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지식이라 할 지라도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빌닷의 충고의 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충고는 오히려 욥의 마음에 상처를 가하고 말았습니다. 욥은 빌닷에게 "네가 힘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 주는구나..."(2절 상)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욥의 말은 빈정대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이는 빌닷의 충고를 통해 욥이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받은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욥은 또한 빌닷에게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가르

쳤구나..."(3절 상)라고 말했습니다. 이 역시 빈정대는 표현입니다. 빌닷의 충고는 이미 욱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니다. 빌닷의 충고는 욱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니다. 이미 욱이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입니니다.

간혹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집요하게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만날 때마다 똑 같은 내용을 계속 전하는 사람을 누군들 좋아하겠습니니까? 빌닷의 말이 모두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욱의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서 전하였기 때문에 욱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니다. 빌닷은 자신의 생각과 지식을 토대로 욱에게 충고할 때에 적어도 욱의 현재 처한 상태를 고려해야만 했습니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지식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했습니니다. 모두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욱의 처한 상태를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욱이 오히려 화가 난 것입니니다.

[욱 26:4]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네게서 나왔느냐

[욥 26:5]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어져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욥 26:6]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욥 26:7]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 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욥 26:8] 물을 뿜뿜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의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욥 26:9]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욥 26:10] 수면에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욥 26:11]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욥 26:12]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욥 26:13]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욥 26:14]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렛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욥은 전통적인 지식만을 고집하는 빌닷에게 맞대응을 했습니다. 빌닷이 전통적인 지식을 욥에게 말했듯이 욥 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였습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빌닷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욥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욥기 27장] =====

[욥 27:1]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욥 27:2]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 하노니

[욥 27:3]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욥 27:4]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욥 27:5]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욥 27:6]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욥 27:7] 나의 원수는 악인 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욥 27:8]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욥 27:9]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욥 27:10]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

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욥 27:11] 하나님의 숨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욥 27:12]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빼앗아갔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괴롭히는 장본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2절). 욥이 이러한 고백을 했던 것은 실제로 그가 그렇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악인으로 취급하셨기 때문입니다.

욥이 가장 괴롭고 힘들었던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악인으로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는 결코 욥을 악인으로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악인으로 취급하셨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욥의 인생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우리들 중에는 욥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

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인생이 비참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오해는 참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오해는 참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욥은 결코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악인에게 임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적어도 욥은 자신의 인생에 붙어닥친 환난과 고난을 형벌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욥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악인이라는 정죄를 받고 있다는 그의 생각은 그의 삶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욥은 영혼이 괴로웠습니다. 그의 인생에 문제가 많아서 괴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사람은 환난과 역경을 이겨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 붙어닥친다 할지라도 참아냅니다. 인생에 문제가 많다고 해서 영혼이 힘든 것은 아닙니다. 환난과 역경 가운데 서있다고 해서 영혼이 괴로운 것은 아닙니다. 홀로 서있다고 느껴질 때 괴로운 것입니다.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 괴로운 것입니다. 사람이 없다고 괴로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을 때 영혼이 괴롭습니다.

욥은 홀로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친구가 있었지만 여전히 홀로 있었습니다. 그가 홀로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욥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항상 욥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욥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으며 그것 때문에 그의 영혼이 괴로움을 당하였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욥처럼 영혼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생의 문제 때문에 영혼이 괴로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안 계심으로 영혼이 괴로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불러도 대답없는 하나님. 손을 내밀어도 잡히지 않는 하나님. 간구해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괴로움을 당합니다.

[욥 27:13]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욥 27:14]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욥 27:15]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욥 27:16] 그가 비록 은을 티끌 같이 쌓고 의복

을 진흙 같이 준비할지라도

[욥 27:17]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욥 27:18] 그가 지은 집은 쯔의 집 같고 파수꾼
의 초막 같을 것이며

[욥 27:19]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
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욥 27:20] 두려움이 물 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욥 27:21]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
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욥 27:22]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
져 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
라

[욥 27:23]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뻑치고 그
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욥은 친구들을 '악인'으로 여겼습니다. 딱히 친구
들이 악인이 될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욥을 위해
함께 하는 친구가 악인이 될만한 이유는 없습니
다. 친구들도 가정이 있고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 모든 것을
제쳐두고 욥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런 친구를 악인
으로 여길 수는 없습니다. 물론 친구들이 심한 충

고의 말을 해서 옴의 마음이 상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친구를 악인으로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옴과 같은 실수를 범합니다. 사실상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가장 의로운 법입니다. 비록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충고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합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합니다. 가까이 있다는 것이 악인이 되는 조건일까요? 아내에게 악인은 남편입니다. 남편에게 악인은 아내입니다. 부모에게 악인은 자녀입니다. 자녀에게 악인은 부모입니다. 담임목사에게 악인은 성도입니다. 성도에게 악인은 담임목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가까이 있다는 이유 말고 저들이 악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옴의 친구들이 옴에게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의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결코 옴은 그런 친구들을 향하여 악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인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

것이 의인이 되는 조건입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의인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멀리 있는 사람을 의인으로 여깁니다.

욥은 친구들을 악인으로 여길 때에 저들에게 형벌이 임하길 기도했습니다. 친구들이 악인이기 때문에 저들에게 형벌이 임할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욥을 돕기 위해 모든 것을 제쳐두고 찾아온 친구들을 위해 오히려 형벌이 임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욥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판단력은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판단력과 사뭇 다른 행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의 악인들을 위해 형벌을 당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악인으로 정죄받은 친구들이 형벌을 당하도록 간구합니다. 때로는 배우자가 형벌을 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물에 빠져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성도에게 벼락이라도 떨어지길 기도합니다. 참혹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친구를 위해 저주의 말을 내뱉습니다.

친구들이 욥에게 악인이 된 것은 충고 때문입니다. 만일 친구들이 욥에게 좋은 말만 했더라면 욥이 친구들을 악인으로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충고 때문에 친구들을 악인으로 정죄합니다. 충고를 듣기 싫어하는 습성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충고의 말을 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누가 당신에게 충고의 말을 하니까? 누가 당신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하니까? 혹 당신은 그 친구를 악인으로 여기지는 않습니까? 만일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신은 욥과 같은 사람입니다. 비록 욥은 순전하고 정직했으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죄를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으며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쩌면 당신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욥이 그렇게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없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여전히 철없는 자녀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직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철없는 자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전히 당신은 철부지입니다. 철부지는 철부지의 모습을 하고 삽니다. 당신에게 충고의 말을 하는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당신은 그 사람을 좋아합니까? 당신은 그 사람을 존경합니까? 당신은 그 사람의 충고의 말에 감사합니까? 당신의 답변은 당신이 얼마나 철부지인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욥기 28장] =====

[욥 28:1]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제련하는 곳이 있으며

[욥 28:2]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욥 28:3]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욥 28:4]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욥 28:5]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욥 28:6]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욥 28:7]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욥 28:8]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욥 28:9]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욥 28:10]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욥 28:11]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데로 끌어내느니라

[욥 28:12]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욥 28:13]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욥 28:14]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
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
니하다 하느니라

[욥 28:15]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욥 28:16]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
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욥 28:17]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욥 28:18]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
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욥 28:19]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
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욥 28:20]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
무는 곳은 어디인고

[욥 28:21]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
에게 가려졌으며

[욥 28:22]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저마다 할 일이 있습니다. 무언가 목적을 두고서 열심히 행합니다. 은을 캐는 사람도 있고 금을 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고 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금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들은 은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알길 원하고 금을 어디서 캘 수 있는지 알기 원합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제련하는 곳이 있으며"(1절). 하지만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하는 것을 얻지만 전부를 얻지는 못합니다. 지혜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은 뭔가를 얻습니다. 하지만 전부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은 모든 것을 얻지 못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얻지 못합니다. 지혜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인간의 지혜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는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7-8절)고 말했

습니다. 솔개같이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밝히 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사자같이 용맹스러운 짐승이라도 모든 것을 취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모두 지혜의 한계 때문입니다. 인간은 지혜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은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12절)라고 말했습니다. 그 역시 지혜를 얻지 못했으며 무엇이 명철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국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13절)라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지혜를 얻고 명철을 찾는다면 당신은 복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지혜를 얻고 명철을 찾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이 당신으로 하여금 복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지혜를 얻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하지만 그 열심을 지혜를 얻는데 투자하십시오. 또한 명철을 찾으십시오. 무엇이 명철인지 찾으십시오. 그럴 때 당신은 복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잠 3:13]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욥 28:23]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욥 28:24]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욥 28:25]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욥 28:26]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욥 28:27] 그 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욥 28:28]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욥은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았습니
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을 깨달은 것입니
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을 얻은 것입니다.
그가 수없이 많은 재산이 있었을 때에도 깨닫지
못했던 것이지만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얻은 것
입니다. 눈물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찾은 것입니

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은 더욱 욥에게 값진 것이었습니다.

욥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며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었습니다. “..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28절 하). 욥이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 역시 그러한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잠 9:10]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솔로몬은 그 시대에 매우 뛰어난 현자였습니다. 지식으로 그를 따를 사람이 없었으며 지혜로 그를 능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욥 역시 솔로몬이 깨달은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지혜와 명철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도 욥처럼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무엇이고 명철은 무엇일까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란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

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까? 만일 당신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욥은 명철을 가리켜 '악에서 떠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맞습니다. 명철은 악에서 떠난 삶을 말합니다. 죄 없이 사는 삶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명철을 가리켜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명철은 거룩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욥기 29장] =====

[욥 29:1]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욥 29:2]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
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욥 29:3] 그 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
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
녔느니라

[욥 29:4]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
를 원하노라 그 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
을 발라 주셨도다

[욥 29:5] 그 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욥 29:6]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
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욥 29:7] 그 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
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
라

[욥 29:8]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욥 29:9]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
리며

[욥 29:10]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

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욥 29:11]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욥 29:12]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 줄 자 없
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욥 29:13]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
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
하였느니라

욥은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
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으며 자녀들도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 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5절). 또한 사람들도 욥과 함께 했습니
다. 이는 욥이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었기 때문입
니다. 욥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 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12절)고 말하
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는 이유를 설명했습
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복있는 사람입니다.
자녀가 함께 하는 사람은 복있는 사람입니다. 사
람들이 함께 하는 사람은 복있는 사람입니다. 욥

은 하나님과 자녀와 사람들 모두 함께 했던 복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자녀도 잃었습니다. 사람들도 잃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잃게 된 것은 순전히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그를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옥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 중에는 옥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옥은 자녀를 잃었습니다. 자녀가 모두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죽었기 때문에 자녀를 잃어버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비록 자녀가 살아 있을지라도 자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은 지금 자녀를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자녀가 죽어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런 저런 이유로 자녀와 헤어져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대체적으로 자녀 스스로 부모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것처럼 자녀들도 부모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처럼 느끼는 옥과 같이 자녀가 우리 곁

을 떠난 것처럼 생각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사실은 자녀가 부모를 떠나지 않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감정을 갖고 있는 부모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들이 자녀에게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이유는 서운함 때문입니다. 욕이 하나님께 느꼈던 서운한 감정처럼 이들이 자녀에게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불려도 대답없는 하나님처럼 불려도 대답없는 자녀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죽어버린 욕처럼 자녀가 죽은 것같이 생각되는 부모들이 존재합니다.

욕은 사람들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지난 날에는 사람들이 욕을 존경하고 기뻐했지만 이제는 아무도 욕을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친구조차 욕을 싫어했습니다. 욕에게 있어서 남아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내까지도 욕을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더 이상 의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욕처럼 우리는 사람들을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누구 하나 나를 위해 마음을 쓰는 사람을 찾기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사람을 잃어버릴 때 마음이 곤고해집니다. 지난 날의 수고가 헛되다 여겨집니다.

혹 당신은 욕처럼 하나님과 자녀와 사람을 잃어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만일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자녀가 함께 있으며 사람이 함께 있다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욥 역시 지난 날에는 하나님과 자녀와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욥의 지금은 하나님도 자녀도 사람도 모두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조심해야 합니다.

[욥 29:14]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겹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욥 29:15]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욥 29:16]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욥 29:17]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잇새에서 빼내었느니라

[욥 29:18]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 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욥 29:19]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욥 29:20]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욥 29:21]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욥 29:22]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둬
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
이라

[욥 29:23]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
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욥 29:24]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 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욥 29:25]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
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
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
과도 같았느니라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소경의 눈이 되었습
니다. 소경을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절뚝발
이의 발이 되었습니다. 절뚝발이를 도와줬다는 것
입니다.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15절). 그는 빈궁한 자의 아버가 되었
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돕듯이 가난한 자를 도
워줬다는 것입니다. 생소한 자의 일을 도와줬습
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16절). 또한 그는 불의한 자가 취한 물건을 빼앗아 원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잇새에서 빼내었느니라”(17절).

욥이 이렇게 선한 일들을 행함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의해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증거는 14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겹옷과 모자 같았느니라”(14절).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스스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는 공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스스로 공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한 사람은 욥 자신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를 공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한 사람은 욥 자신과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의롭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공의롭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었으며 그 스스로 공의로운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의해 의롭게 되었으며 사람들에게 의해 공

의로운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사람들에게 의롭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 더욱 선한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소경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듣기 위해 소경을 도왔는지 모릅니다. 절뚝발이로부터 의롭다 함을 듣기 위해 절뚝발이를 도왔는지 모릅니다. 빈궁한 자로부터 의롭다 함을 듣기 위해 빈궁한 자를 도왔는지 모릅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생소한 사람까지도 도와줬던 것은 어쩌면 그로부터 의롭다 함을 듣기 원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들 중에는 옫과 같이 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들로부터 의롭다 함을 듣기 위해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로움은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의 면류관을 쓰는 것입니다. 면류관이란 하나님에 의해 쓰여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면류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듯 스스로 면류관을 쓰는 사람은 결국 벗겨지고 맙니다. 이는 스스로 썼기 때문입니다.

옫은 지난 날 화려한 면류관을 썼지만 결국은 벗겨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도움을 받은 소경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도움을 받았던 절뚝발이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도움을 받았던 가난한 자도 그를 모른체 했습니다. 아무도 옹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친구조차 옹을 불쌍하다 생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은 그런 옹을 책망했습니다. 어찌 친구들만 옹을 책망했겠습니까? 찾아오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도 옹을 책망했을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옹을 찾아왔더라면 옹을 책망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옹의 친구들보다 더 심한 책망의 말을 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옹을 책망했던 까닭은 옹이 스스로 면류관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스스로 면류관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 모습이 역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결코 스스로 면류관을 쓰지 마십시오. 면류관을 쓰기 위해 선한 일을 행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아무런 유익함이 없는 행동입니다. 옹을 보십시오. 오히려 선한 일을 행한 것 때문에 책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책망의 소리가 당신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욥기 30장] =====

[욥 30:1]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 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 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욥 30:2]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욥 30:3]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욥 30:4]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물을 꺾으며 대싸리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삼느니라

[욥 30:5]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름으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욥 30:6]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욥 30:7]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욥 30:8]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욥 30:9]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욥 30:10]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 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욥 30:11]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욥 30:12]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덩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욥 30:13]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욥 30:14]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욥 30:15]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 같이 날려 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 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욥이 젊은 자들로부터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욥이 평소에 잘 알고 지냈던 자들의 자녀였습니다. 욥이 고난 중에 거하자 이들이 욥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욥이 많이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이들의 부모들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 그들의 아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 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 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1절

하). 욱에게 있어 그들의 부모는 마치 하인이나 종과도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자녀들이 욱을 조롱했으니 욱의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런 조롱을 당합니다. 평소에 하찮게 여겼던 사람의 자녀로부터 조롱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꽃길을 걸을 때는 조롱을 당하지 않지만 어쩌다 고난의 길을 걸을 때면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는 욱이 젊은이들의 조롱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을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욱을 조롱하는 이들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욱에게도 적잖은 잘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욱은 이들을 무시했습니다. 평소에 저들의 부모를 '양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모두 존귀합니다. 개보다 못한 하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쩌면 욱은 젊은이들로부터 조롱을 받을만 했습니다.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

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9-10절). 이러한 조롱은 끝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적어도 욱이 저들을 무시하지 않을 때까지 저들의 조롱은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욱이 젊은이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저들을 무시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욱은 계속 저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뺨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12절). 욱은 젊은이들을 향하여 ‘낮은 무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상대방에게 극도의 분노심을 유발시킵니다. 더군다나 상대는 물불을 안 가리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저들에게 매맞아 죽지 않은 것만도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결코 젊은이들의 분노심을 자아낼만한 말을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젊은이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맞아 죽어도 싹 인간”일 겁니다. 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맞아 죽어도 싹 인간!

혹 당신은 맞아 죽어도 싹 인간은 아닙니까? 욱처럼 젊은이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비참한 모습을 바라 보십시오. 맞아 죽어도 싹만한 값어치가 있음을 발견하십시오. 혹 당신 눈으로 당신의 모습을 볼 수 없다면 지금 이

시간 옴을 바라 보십시오. 옴을 통해 당신을 바라 보십시오. 절대로 맞아 죽을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사람이라도 낮은 자라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개보다 더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개처럼 맞아 죽습니다.

[욥 30:16]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욥 30:17] 밤이 되면 내 뼈가 쭈시니 나의 아픔
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욥 30:18]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 버
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욥 30:19]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욥 30:20]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
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
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욥 30:21]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욥 30:22]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욥 30:23]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

다

[욥 30:24]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
르짖지 아니하리이까

[욥 30:25]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
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욥 30:26]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욥 30:27]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
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욥 30:28] 나는 햇볕에 쪼이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
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
짖고 있느니라

[욥 30:29]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
나

[욥 30:30]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욥 30:31]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욥은 젊은이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을 때 인생이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

다. 너무나 비참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잃고 병든 육신 때문에 가뜩이나 서러운데 젊은이들의 조롱은 더욱 그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16절)라고 그의 비참한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욥은 인생의 비참함 때문에 육신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몸에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17절). 욥처럼 아픈 사람은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들 중에 욥처럼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아픔의 시작은 죄로 인함입니다. 죄 때문에 아픔이 찾아온 것입니다.

욥에게 있어서 죄는 없었습니다. 욥 스스로 죄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있어서 욥은 죄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욥이 매우 큰 죄인이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욥은 그들의 부모를 학대하는 죄인이었습니다. 저들의 부모를 무시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항상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어서 죄인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인

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인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죄 없는 자가 지는 것입니다. 결코 죄인은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욥은 스스로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인생은 하나님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못하니 하나님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욥 뿐만이 아닙니다. 만일 당신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오직 죄인만을 상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으셔서 의인을 상대하지 않으십니다.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의인을 만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욥은 자꾸만 멀어져 갑니다. 자꾸만 의인이 되려고 합니다. 자꾸만 의의 옷을 입습니다. 자꾸만 의의 면류관을 쓰려고 합니다. 자꾸만 사람들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자꾸만 스스로 잘난 체를 합니다. 그래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버림 받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간구한 것들이 하나도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

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26절). 어쩌면 우리도 옅처럼 똑 같은 심정일 겁니다. 우리 역시 복을 바랬는데 화가 임한 사실에 놀라고 있지 않습니까? 광명을 기다렸는데 흑임이 임하는 사실에 기분나빠하지 않습니까?

옅의 간구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죄인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의 간구가 응답되지 못합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긴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응답과 접촉이 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가 틀리기 때문에 로그인 안 됩니다. 오직 “나는 죄인”이라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비로소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친구 옅이여! 이 사실을 당신에게 전해 줄 수만 있다면 좋겠오. 왜 당신은 그런 사실을 몰랐단 말이오. 스스로 지혜자라고 뽐내면서 어찌하여 그 사실을 몰랐단 말이오. 당신을 만나면 좋겠오. 이 사실을 당신에게 전해 주면 좋겠오.

[욥기 31장] =====

[욥 31:1]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라

[욥 31:2]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욥 31:3]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욥 31:4]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욥 31:5]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욥 31:6]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욥 31:7]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욥 31:8]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욥 31:9]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욥 31:10] 내 아내가 타인의 밋돌을 돌리며 타인

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욥 31:11]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욥 31:12]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욥은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온전함을 인정하실 정도로 그는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욥 1:8]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온전한’<탐>이라는 말은 ‘완벽한’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완벽한 성품을 뜻합니다. <탐>이라는 말에는 ‘순결하다’란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욥은 실제로 순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녀를 쳐다 보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눈을 들어 결코 여인을 쳐다 보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1절). 그는 여인에게 마음이 유

혹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이웃의 문을 엿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순결함을 내세우면서 만일 자신이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면 자신의 아내를 누군가 겁탈해도 괜찮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리하였으면 내 처가 타인의 매를 돌리며 타인이 더불어 동침하는 것이 마땅하니라"(10절). 이 구절을 킹제임스흠정역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욥 31:10]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우리들 중 욥과 같이 순전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그 누구도 자신있게 대답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순전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욥처럼 순전하지 못합니다. 욥은 그만큼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욥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마 5:28]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습니다. 물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모두 간음하였습니다. 육신으로 간음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이미 마음으로 간음을 하였으니 이 역시 간음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욥은 이토록 순전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온전한 사람이었지만 훨씬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많은 복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욥보다 덜 고난을 당했으니 복받은 사람입니다.

[욥 31:13]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욥 31:14]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랴 대답하겠느냐

[욥 31:15]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욥 31:16]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욥 31:17]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욥 31:18]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
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
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욥 31:19]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
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본
체 했다면

[욥 31:20]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욥 31:21] 만일 나를 도와 주는 자가 성문에 있
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
다면

[욥 31:22] 내 팔이 어깨 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
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욥 31:23]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
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
니라

욥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
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소홀히 대하지 않았습
니다. 그는 하인들과 쟁변할 때에도 그들의 사정

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13절). 우리들 중에 이런 사람을 찾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나보다 낮은 사람을 멸시합니다. 지극히 낮은 자를 멸시합니다. 조금이라도 나보다 낮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옫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옫은 가난한 자와 과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옫이려 저들을 잘 섬겼습니다.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17절). 이러한 옫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하나님께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 25:40]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옫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실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최선을 다했습

니다. 우리들 중에 옅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찾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런 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토록 많은 고난이 임하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이는 옅보다 한참이나 부족한 우리들에게 얼마나 더 큰 고난이 임할 것인지 생각할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순전하고 착한 성품의 옅에게 그토록 큰 고난이 임했으니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큰 고난이 주어질 것인지 두렵기만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옅의 고난보다 우리에게 임한 고난이 더 적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죄인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복을 원합니다. 지금 받고 있는 복이 너무나 작다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충분히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고 또 따집니다.

우리는 이 순간 옅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옅을 생각할 때 한없는 감사가 절로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 큰 복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그 복들이 너무나 감사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옅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한 것입니다. 욕이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을 자격이 없

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복 받을 자격이 우리보다 더 많았지만 우리보다 더 큰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받은 복에 대해 감사함이 적었던 나의 모습을 되돌아 봅니다.

[욥 31:24]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욥 31:25]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욥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더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욥은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은 것은 철저히 주님을 섬기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요즘 시대에는 기독교인들이 더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가난해야 된다는 말은 이제 옛 말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은 무조건 가난해야 한다고 누군가 가르친다면 아무도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은 부자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어디서든지 인정받지 못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는 욕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는 욕이 바보처럼 느껴집니다. 욕의 재물에 대한 이러한 생각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또 다른 우상으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마 6: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

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욥은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재물에 소망을 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전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욥은 가난했을 때에도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가진 모든 재물을 거두셨을 때 욥은 여전히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 셈입니다.

우리도 욥처럼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지금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럴 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부어 주십니다. 이는 우리를 위해 주신 재물입니다. 우리가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을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우리의 우상이 아님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많은 재물을 부어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우리가 그 재물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것을 아신 것입니다. 실제로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은 재물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재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일 뿐입니다. 결코 세상의 정욕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재물에 대한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갖춰진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재물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재물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재물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욥 31:26]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욥 31:27]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욥 31:28]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욥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우상도 섬기지 않았 습니다. 심지어 그는 태양 햇살의 따사로움과 달 빛의 아름다움을 아름답다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태양 햇살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것 때문에 주 님을 향한 사랑을 잃을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달 빛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것 때문에 주님을 향 한 사랑이 식어질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가 얼마 나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는 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우리들 중에 욥 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 령게 욥은 주님만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욥은 주 님만 섬겼습니다.

그랬던 욥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습니다. 하루 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를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사람을 잃었 습니다. 그런 고난이 욥에게 닥친 이유는 그의 정 직함을 테스트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시험받기 위해 그런 큰 고난이 닥쳤던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에게도 그런 시험이 닥칠지 모릅니다. 두렵습니까? 왜 두려워 하십니까? 모든 것을 잃

어 버릴 것 때문에 두렵습니까? 주님이 당신의 모든 것 아니었나요? 주님을 잃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지 않는 것 아닌가요?

[욥 31:29]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욥 31:30]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욥 31:31]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욥 31:32]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욥 31:33]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욥 31:34]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욥 31:35]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욥 31:36]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왕관
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욥 31:37] 내 걸음의 수효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
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욥 31:38]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욥 31:39]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욥 31:40]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
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
이 그치니라

욥은 그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았
습니다. 욥이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았지만 누군가
욥을 미워했습니다. 욥을 미워했던 많은 사람들
이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기뻐했지만 욥은 고난
중에서도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고난이 임하
게 해 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그들에
게 재앙이 임하도록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실상
은 내가 그의 죽기를 구하는 말로 저주하여 내 입
으로 범죄케 아니하였느니라"(30절).

참으로 욥은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군가
를 미워하지도 않았으며 누군가를 저주하지도 않

았습니다. 자신을 혈뜯는 사람조차 미워하지 않았 습니다. 자신을 욕하는 사람조차 저주스러운 욕설 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옴의 이러한 모습은 우 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은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돌려대라고 말 씀하셨습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동행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 5:39]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 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마 5:40]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겹옷 까지도 가지게 하며 [마 5:41]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고 [마 5:42] 네게 구하는 자 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 지 말라”

옴은 예수님의 교훈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옴의 진실함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는 대부분 사람 들이 예수님의 교훈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옴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실함을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든지 나의 변백을 들을지니라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35절 상)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실함을 모두 알고 계신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교훈대로 정직한 삶을 살았던 욥에게 왜 그런 고난이 닥쳤냐는 것입니다. 욥에게 닥친 고난이 우리에게도 임했기 때문입니다. 욥에게만 그런 고난이 닥쳤다면 우리는 불만이 없습니다. 욥의 고난까지 내가 짊어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게도 욥과 같은 고난이 닥쳤기에 입을 다물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따졌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욥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욥과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이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대부분의 고난은 마귀로부터 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욕과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없이 살아간다면 마귀로부터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그 어떠한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욕처럼 사람과의 관계에서 순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직하며 그 어떠한 우상도 섬기지 않으며 그 어떠한 죄도 용납하지 않는 철저한 삶을 살아갈 때에 마귀는 당신의 삶에 고난을 던져주지 못합니다. 그럴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록 당신이 욕과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없이 살아가지만 당신의 삶에 고난이 임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왜요?"라는 말을 하지 마시고 그냥 시험을 잘 통과하십시오. 괜히 "왜요?"라고 대들었다가는 더 큰 고난만 주어질 뿐입니다. "왜요?"라는 말은 결코 해답이 아닙니다. 해답을 얻을 수 없는 질문입니다. 오히려 한 대 더 얻어 마질 수 있는 적절한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시험하는지 그 이유는 물으십시오. 왜 나같이 착한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냐는 그런 질문은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시험하시는지 그것을 궁금해 해

야 합니다.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홀로 그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옴 역시 홀로 그것들을 묵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곁을 떠났기에 충분히 홀로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생각을 가질만한 충분한 시간을 얻기 위해 모든 사람을 떠나 보낼 필요가 없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얻기 위해 당신 주변의 사람을 모두 정리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생각을 하십시오. 그냥 집에 있는 골방에 들어가십시오. 굳이 기도원에 갈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당신이 기도원에 가면 집이 사라집니다. 당신이 기도원을 좋아하면 가족도 사라집니다.

옴은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혼자 있을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신은 옴처럼 되지는 마십시오. 꿈에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옴처럼 되는 인생은 힘든 인생입니다. '나도 한 번 해 볼까?'란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문제를 푸십시오. 마귀가 주는 문제보다 때로는 하나님의 문제가 더 풀기 어렵습니다.

[욥기 32장] =====

[욥 32:1]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므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욥 32:2]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낸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욥 32:3]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낸은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욥과 세 친구간의 대화가 끝났습니다. 욥의 변론에 더 이상 친구들이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더 이상 욥에게 충고의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욥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욥이 스스로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의로웠기 때문에 자신에게 임한 고난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친구들은 욥에게 그 어떠한 질책의 말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욥처럼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떠한 충고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너무나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좀처럼 우리의 말

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은 전혀 잘못
이 없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욥과 같은 사람입니다.

혹시 당신 스스로 욥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욥이라고 판단하기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 욥과 같은 사람은 아닌지 살펴 봐야 할 것
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욥과 같이 살고 있을 것입
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충고나 질책을 듣지 않
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질책하는 사람에
게 더 강력한 질책의 화살을 던지는 사람일 수 있
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당신에게 쉽게 말을 걸
지 못하게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
주변에는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욥에게 사람
이 없었듯이 당신에게도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
다. 많은 사람들이 욥을 떠났듯이 당신 주변 사람
이 당신을 떠난 것은 아닌지 살펴 보십시오.

이러한 욥에게 엘리후가 입을 열었습니다. 엘리후
는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성경은 엘리후의 아버지 이름을 언급
하고 있습니다.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2절 상). '바라겔'이란 뜻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엘리후가 어

떤 인물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는 욥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욥의 친척도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친구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욥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이름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과 그의 이름에서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과 연관된 의미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엘리후는 상당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엘리후는 오늘날의 목회자와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이는 엘리후가 욥에게 했던 말들을 들어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한 말을 아주 많이 사용했습니다. 세 친구의 말에는 주로 세상적인 지식이나 전통적으로 전해지는 지식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인간의 감정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후의 말에는 세상적인 지식이나 인간의 감정이 포함되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후가 그 당시 선지자나 혹은 하나님의 대변자의 입장에서 말을 전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 아니면 엘리후는 신앙심이 매우 높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엘리후는 세 친구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는 세 친구들이 능히 욱을 질책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만 했기 때문입니다.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낸은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욱을 정죄함이라"(3절). 이는 세 친구들이 지극히 세상적이고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욱을 질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질책할 때에 세상적인 관점에서 질책합니다. 전통적인 지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감정에 휩싸여서 상대방을 질책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도는 결국은 실패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며 상대방이 멀리 도망치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책할 때 상대방의 태도가 사뭇 달라지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 친구의 질책에 전혀 반응도 하지 않던 욱이 엘리후의 말에는 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물론 성경은 욱의 반응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욱기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의 질책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어디에도 욱의 변론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엘리후의 질책이 끝나자마자 곧 바로 하나님께서 등장하시

기 때문입니다.

욥은 세 친구들의 질책을 들었을 때 그때마다 자신을 변론했습니다. 하지만 엘리후가 질책했을 때는 전혀 변론하지 않았습니니다. 왜 욥은 변론하지 않았을까요? 왜 세 친구에게 변론을 했던 것처럼 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는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지 않았을까요? 왜 그는 엘리후의 말이 틀렸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았을까요? 세 친구와 변론하느라 너무나 힘이 들어서였을까요? 엘리후의 말이 변론할 가치도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욥이 엘리후의 말에 변론하지 않았던 까닭은 욥이 엘리후의 말을 듣고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보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변론이 없었던 것입니다. 죄인은 변론하지 않습니다. 변론하는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은 죄인으로 남습니다. 스스로를 변론하는 사람은 아직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 되기 위해서는 변론이 없어야 합니다. 혹 당신은 변론하는 사람입니까? 지금도 누군가를 향해 변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의로움을 누군가에게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고 소리치지는 않습니까? 나는 잘못된 게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욥이 더 이상 변론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욥이 스스로 죄인임을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의인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 죄가 없다고 우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입을 다물고 죄인으로 남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방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욥 42:5]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욥 32:4]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욥 32:5]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욥 32:6]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욥 32:7]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욥 32:8]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욥 32:9]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욥 32:10]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보다 나이가 어렸습니다. "...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 (6절 상). 그는 자신의 나이가 어리다는 것 때문에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는 동방나라의 예의였습니다. 어린 사람은 어른들의 대화에 끼어들지 못합니다. 어린 사람은 어른의 잘못을 꾸짖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엘리후는 말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입을 열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른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나이드는 사람들 틈에 끼어들어 입을 여는 것이 두렵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엘리후는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가만히 지

켜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입을 열지 않고서는 안 될 지경에 이르렀기에 그가 나섰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엘리후가 상당히 예의 바른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할지라도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의 예의를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은 세상의 예의 범절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꺼리낌이나 거부감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에게 화를 냈습니다.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5절). 그가 세 친구에게 화를 낸 것은 그들이 욥의 변론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엘리후가 세 친구들에게 화를 냈던 것은 너무나 지나친 태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 친구들보다 나이가 어렸기 때문입니다. 나이 어린 사람이 자기보다 더 나이 먹은 사람에게 그렇게 화를 낼 수 있는 이유는 없습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이 먹은 사람에게 화를 낼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세 친구들에게 그렇게 화를 내었던 것은 그만큼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자신보다 나이가 더 많은 세 친구들에게 그렇게 화를 냈던 엘리후의 모습은 어딘지모르게 선지자와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단순히 신앙심이 좋은 믿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의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선지자나 목회자라 할지라도 예의없이 윗 사람에게 화를 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최대한 윗 사람에 대한 예의를 갖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후는 세 친구에게 "나이가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오래 살았다고 해서 지혜가 더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7절). 그는 계속해서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9절)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말은 세 친구들을 당황케 했을 것입니다. 젊은 자가 나이 든 자에게 너무 무례히 군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엘리후도 그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엘리후의 그런 태도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을 것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왜

자신이 그렇게까지 무례하게 굴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8절).

엘리후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람 속에 심령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지금도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적습니다. 나이가 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의 존재를 깨닫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젊지만 그런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엘리후의 그런 태도가 불손한 태도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엘리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의 예의범절을 지키는 것보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윗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족 중의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입을 열 때는 입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엘리후가 그렇게 담대하게 입을 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지혜가 주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가 영적인 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자라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영적인 사람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원한다면 당신에게 있는 영의 영역을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롬 8:16]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욥 32:11]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욥 32:12]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욥 32:13]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지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욥 32:14]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욥 32:15]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욥 32:16] 당신들이 말 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욥 32:17]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욥 32:18]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욥 32:19]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욥 32:20]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욥 32:21]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욥 32:22] 이는 아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엘리후가 입을 열었던 것은 그의 심령이 터질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18-19절). 하나님으로부터 전해 받은 지혜가 그의 심령 속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가득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입을 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입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하다고 해서 입을 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입을 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심령이 터질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입을 열어야 비로소 마음이 시원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20절 상). 우리는 엘리후처럼 입을 열어야 합니다. 입을 열 때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질 것입니다.

엘리후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낯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낯을 볼 필요가 없었으며 사람에게 아첨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21절). 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낯을 쳐다 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아침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지혜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낯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아침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기 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엘리후도 그와 같았습니다. 그는 만일 그가 아침하는 자가 되면 “...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22절 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는 실로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마 10:28]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욥기 33장] =====

[욥 33:1]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욥 33:2]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 구나

[욥 33:3]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욥 33:4]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욥 33:5]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욥 33:6]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흠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욥 33:7]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엘리후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하나님 뿐이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나이가 어리지만 그의 말에는 상대방을 제압하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욥이

엘리후의 말에 아무런 변론도 하지 못했던 것은 엘리후의 말에 큰 권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엘리후는 욥보다 나이가 어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엘리후는 욥보다 더 못살았을 것입니다. 욥보다 더 잘 살았던 사람은 그 당시에 찾아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엘리후가 욥에게 변론했을 때에는 욥의 재산이 다 없어진 후였습니다. 하지만 욥이 예전처럼 재산이 많았다 할지라도 엘리후의 말 앞에서는 꼼짝을 못했을 것입니다. 이는 엘리후의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엘리후가 가졌던 권세가 필요합니다. 욥이 엘리후의 변론에 단 한 마디도 꺼내지 못했던 것은 그만큼 엘리후의 변론에 권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후는 변론하는 과정에서 욥에게 언제든지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했습니다. 욥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단 한 번도 엘리후의 말을 가로 막지도 않았으며 단 한 번도 자신의 생각이나 옳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엘리후의 말을 들었을 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권세는 사람들을 제압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권세가 필요합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권세가 있으면 많이 가진 자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다. 비록 우리가 못 배웠을지라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많이 배운 자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는 엘리후처럼 담대합니다.

엘리후의 말을 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4절). 엘리후의 이 말은 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질 수 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리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하나님의 영'을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속에 자리하고 있는 영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있는 영의 영역을 알고 있었으며 영을 통해 하나님의 영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세를 갖게 했던 것입니다.

그는 겸손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두 겸손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교만합니다. 이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마치 하나님의 권세를 재물이 많은 사람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것을 마치 학식이 높은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겸손했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주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의 깨달음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진리를 깨닫게 될 때에 겸손도 함께 배우게 됩니다.

엘리후는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7절)고 말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드높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가 얼마나 겸손한 자인지 보여줍니다. 한편으로는 그의 삶이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보여줍니다.

[욥 33:8]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욥 33:9]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욥 33:10]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욥 33:11] 내 발을 차꼬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욥 33:12]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욥 33:13]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욥 33:14]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욥 33:15]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 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욥 33:16]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니

[욥 33:17]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욥 33:18]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엘리후는 욥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엘리후는 욥이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욱이 스스로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멸망시키기 위해 자신을 대적자로 삼으셨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9-10절).

이러한 엘리후의 지적은 욱의 세 친구들이 했던 지적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세 친구들도 욱의 잘못을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욱은 엘리후의 이런 지적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 친구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반발했던 것을 생각할 때 엘리후에게 보여지는 반응은 매우 차이가 납니다. 어찌하여서 이런 차이가 생겼던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욱의 반응이 달랐던 것일까요?

이 역시 엘리후의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욱의 세 친구들에게서는 엘리후와 같은 권세가 없었습니다. 물론 욱의 세 친구들은 사회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저들에게는 엘리후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권세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욱의 반응이 달랐던 이유였습니다.

만일 누군가 당신의 말을 신통치 않게 여긴다면 엘리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당신의 말에는 엘리후의 권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감정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당신 말을 신통치 않게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이렇게 하십시오. 당신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십시오. 무슨 말을 하든지 주님께서 말을 하시는 것처럼 말하십시오. 누구에게 말을 하든지 주님께서 말하시는 것처럼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권세가 주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말에는 권세가 있게 될 것이고 상대방은 당신의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마치 엘리후의 말에 옴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욥 33:19]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쑤심의 징계를 만나니

[욥 33:20]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욥 33:21]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욥 33:22]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멀

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욥 33:23]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욥 33:24]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욥 33:25]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욥 33:26]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욥 33:27]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욥 33:28]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욥 33:29]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재삼 행하심은

[욥 33:30]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엘리후는 참으로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그는 욥에게 천사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또한 천사를 통해 욥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엘리후의 말은 욥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엘리후는 천사에 대해 입을 열 때에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23-24절)고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엘리후의 이러한 설명은 우리들에게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설마, 천사가 나를 위해 하나님께 어떻게 변호할 수 있겠어?'라는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천사의 그런 역할에 대해 지금까지 전혀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후의 말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도 엘리후가 했던 말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 18:10] 삼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예수님은 천사에 대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천사들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도 우리 주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사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골 1:16]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런 예수께서 천사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은 지극히 진리이며 참된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천사에 대한 설명을 싫어하여서 천사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다른 내용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

다. 아무리 변질시키려고 해도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대로 천사는 존재하며 천사들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들은 우리를 위해서도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를 붙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천사를 가리켜 '수호천사'라고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수호천사가 있습니다. 이 천사는 우리를 지키며 보호합니다. 또한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일들을 보고 합니다. 우리의 수호천사는 우리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듯 천사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성령님과 천사들의 변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처럼 특별합니다.

어쩌면 욥은 엘리후의 말을 듣고 놀라워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욥도 천사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후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상세하게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후가 말한 천사의 내용은 욥의 구원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욥은 단순히 천사

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욥은 천사의 존재와 자신의 구원이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천사가 자신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변론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욥은 천사를 숭배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천사의 존재를 지극히 높이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천사가 자신의 구원을 위해 개입했을 것이라는 생각자체가 매우 불손한 생각이라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욥이 엘리후의 말을 듣고나니 마치 그의 구원이 이뤄진듯한 기쁨이 솟구쳐 올라왔을 것입니다. 암담했던 현실에 도피처가 생기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막혔던 구멍이 뚫리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캄캄하여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한 줄기 빛이 그에게 비춰지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욥은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수호천사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에 매우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혼자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는데 천사가 자신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욥에게 매우 큰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기쁨은 비단 욥에게만 해

당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위안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홀로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도 내 주위에 없다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도 나를 외면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엘리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는 천사의 존재를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욥 33:31]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욥 33:32]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욥 33:33]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엘리후는 욥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권유했습니다.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32절 상). 엘리후가 욥에게 그런 말을 했던 것은 그를 혼내주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따지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엘리후는 욕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32절 하).

우리는 상대방을 의롭게 하기 위해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죄인으로 취급하기 위해서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상대방의 결점을 찾기 위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아니면 뭔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대화를 나누곤 합니다. 대체적으로 나의 이익을 위해 대화를 나눕니다. 내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대화를 몰아갑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후는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오직 욕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대화를 시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엘리후와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도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의로운지를 설명하기 위해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감을 갖고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상대방을 이용하기 위한 대화는 멈춰야 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대화

는 멈춰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그 대화가 당신을 위한 대화인지 아니면 상대방을 위한 대화인지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시도하는 대화라면 그 대화를 멈추십시오. 이미 대화를 하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고 유익을 주는 대화로 바꾸십시오.

[욥기 34장] =====

[욥 34:1]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욥 34:2]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욥 34:3]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욥 34:4]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엘리후는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2절)고 말하였습니다. 엘리후의 이런 말은 마치 선지자처럼 말하였습니다. 어쩌면 그는 선지자였는지 모릅니다.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그의 말을 들으면 마치 그가 선지자처럼 느껴집니다. 어쩌면 그가 선지자였을 거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은 욥이 엘리후의 말에 전혀 변론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엘리후가 옆 집에 사는 이웃이었다면 욥이 그의 말에 변론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엘리후가 단순히 신앙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욥은 분명히 변론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욥에게도 할 말은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엘리후의 말을 듣기만 했습니다. 변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엘리후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욥이 엘리후의 말을 잘 귀담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을 잘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하셨던 말씀이 고스란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늘 하신 말씀처럼 들을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날 귀담아 듣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 소리엔 귀담아 들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좀처럼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오늘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욥의 시대에도 귀담아 듣는 사람은 적었을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러한 모습은 똑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시대가 변했을지라도 내가 귀담아 들으면 됩니다. 시대가 더러워졌을지라도 내가 깨끗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사탄을 따를지라도 내가 주님을 따르면 됩니다.

“[마 11:15]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엘리후는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4절)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욥에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엘리후는 욥기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지자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은 누구를 향한 말입니까? 당신은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로 가족과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는 주로 가족을 향해 말합니다. 하지만 결코 사람들을 향해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당신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 줍니다.

만일 당신이 가족과만 대화를 나눈다면 당신은 주부입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가족 밖에 모르고 가족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삶의 지경은 참으로 좁습니다. 마치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와도 같습니다. 당신이 화를 낼 지 모르겠지만 맞는 말입니다. 만일 당신이 화를 내지 않고서 내 말을 듣는다면 당신이 어떻게 하면 엘리후처럼 살 수 있는지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엘리후처럼 선지자의 모습으로 살기 위한

다면 당신은 대중을 향해 말을 해야 합니다. 적어도 당신 가족 외의 사람이 들어야 합니다. 당신이 다니고 있는 직장 사람들은 가족 외의 사람입니다. 당신의 회사원도 가족 외의 사람에 속합니다. 교회 성도들도 가족 외의 사람입니다. 입을 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어려운 것은 아니라 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엘리후가 말한 것처럼 옳은 것을 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야 합니다. 옳고 그른 것을 따지지 않고 행할 때 무분별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분별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이 선한 지 따져야 합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 따지지 않으면 악한 일에 가담하게 됩니다.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악한 것을 선한 것보다 더 좋아하게 됩니다. 사탄을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사탄을 선택했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저들이 누가 더 선한 분이신지를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사탄에게 속하고 만 것입니다.

[욥 34:5]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욥 34:6]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
니

[욥 34:7]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
기를 물마시듯 하며

[욥 34:8]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
인과 함께 다니면서

[욥 34:9]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
익하다 하는구나

엘리후는 욥의 치부를 드러냈습니다. 욥이 감췄던
것이었는데 엘리후가 그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엘
리후는 욥의 치부를 드러낼 때에 욥이 악한 자와
함께 어울렸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드러냈습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8절).

우리는 욥이 진짜로 악한 자들과 어울렸다는 것
이 사실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엘리후의
말이니 아마도 맞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만일 엘
리후의 말이 틀렸다면 욥이 따졌을 것입니다. 하
지만 욥이 따지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으로 보아
욥이 엘리후의 말이 맞다고 인정한 것 같습니다.

엘리후는 욥이 악한 사람들과 어울려 다닌 것을 드러내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욥의 더한 치부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욥이 악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9절)고 말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엘리후의 이러한 지적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설마, 욥이 그렇게까지 했을까요?'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엘리후의 그런 말에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엘리후의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욥과 같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 역시 악인과 어울려 다니고 있는지 모릅니다. 악인이라고 해서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모두 악인입니다.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모두 악인입니다. 우리는 그런 악인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악인과 자주 만납니다. 우리는 그런 악인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런 악인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악인이 없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합니다. 욥은 한 사람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욥처럼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해 원망의 말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섬겼더라면 오히려 그 사람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을 것이라고 투덜댔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전혀 무익한 일이라고 고백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욥에게 엘리후가 없었더라면 자신의 이런 모습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더러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더러움을 드러냅니다. 욥은 스스로 의롭다 여겼지만 엘리후에게 자신의 더러움이 적나라하게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욥은 자신의 더러움이 그토록 많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신의 더러움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욥 34:10]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욥 34:11]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욥 34:12]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않으시다는 사실을 말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시고 각각 사람의 행위대로 얻게 하신다고 말하였습니다.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11절). 엘리후가 말한 내용은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모든 선지자가 말한 내용과도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불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위에 따라 보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지 않으신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정직하게 살았고 순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으며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욥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든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불의하시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욥이 잘못했습니까? 만일 당신이 욥이라면 어떻

게 했겠습니까? 당신의 반응도 욥의 반응과 똑같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고 느낍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결코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지 않으신다고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심하게 차별 대우를 하신다고 느낍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맞다고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진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선지자의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고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성경 말씀과 우리의 삶이 너무나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죄의식이 생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어쩌면 욥도 하나님과 많이 멀어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결국 우리는 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대로 살아간다면 더 이상 욥기의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욥기를 성경에 집어 넣으신 까닭은 욥기를 통해 하

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는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만날 수는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에 의심이 가지고 있는 상태로 배우자를 만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의심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욕기를 읽을 때에 여러가지 의문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이 의심을 없애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로 공평하게 보응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신 분이 라는 사실을 우리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욥 34:13]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욥 34:14]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욥 34:15]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욥 34:16] 만일 네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
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엘리후는 "만일 네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
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16절)고 말했습
니다. 오직 총명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
습니다. '총명'<비나>라는 말은 '이해력' 또는 '통
찰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는 이해력과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두 말씀을 듣는 것은 아
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듣습니다. 마치 라디오
에서 흘러 나오는 노래를 듣는 것처럼 편하게 듣
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이보다 훨씬 더 집중할 필
요가 있습니다. 마치 학생이 공부를 하듯이 그렇
게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들을 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집중을 잘 하
는 것입니다. 들을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그 말씀
의 뜻이 무엇인지 통찰해야 합니다. 단순히 듣는
것이라면 이 세상 그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겠습니까?

‘귀를 기울이라’는 말은 육신의 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육신의 귀로 듣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귀로는 들을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의 귀로 들어야 합니다. 영의 귀는 육신의 귀와 다릅니다. 듣는다는 것에 있어서는 그 역할이 같으나 영의 귀는 육신의 귀로 듣는 것과 다릅니다.

영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선 영의 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모두 영의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육신의 귀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귀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귀를 만질 수 있으며 실제로 귀를 통해 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영의 귀를 만질 수 있거나 영의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영의 귀가 있다는 소리를 지금 처음 듣고 있는지 모릅니다.

일단 영의 귀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된다면 영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쉬워집니다. 영의 귀는 우리의 영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육신의 귀가 우리의 육신 영역 안에 있듯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귀가 어디에 있는지 느끼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영의 영역부터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은 겉사람과 다릅니다. 겉사람은 우리의 육신을 말하지만 속사람은 우리의 영이 존재하는 영역을 말합니다. 사람은 겉사람으로만 표현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 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겉사람보다 속사람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귀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속사람부터 찾아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속사람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속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속사람을 찾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 당신은 하나님과 자주 만나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면 당신의 속사람을 찾지 못합니다. 그냥 편하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면 어느새 속사람의 영역을 알게 됩

니다. 속사람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속사람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속사람을 다 찾을 수는 없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속사람에 대해 알아가야 합니다. 마치 사람을 만나서 조금씩 알아가듯이 당신의 속사람도 그와 마찬가지로입니다. 당신의 것이라고 해서 속사람을 한꺼번에 모두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 안에 있지만 당신의 것이 아닌 존재처럼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속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속사람의 영역을 찾게 되면 속사람의 생각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속사람의 눈도 찾아야 하고 속사람의 마음도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속사람의 귀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비로소 속사람의 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속사람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누리는 기쁨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 34:17]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욥 34:18]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욥 34:19]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
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
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공의로우신 까닭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족과 천
민을 똑 같이 여기시며 부자와 가난한 자를 똑같
이 대하십니다. "왕족을 외모로 취치 아니하시며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하지 아니하시나
니..."(19절 상).

하지만 사람은 사람을 구분합니다. 왕족과 천민을
구분할 줄 압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할 줄
압니다. 왕족과 천민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웁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어찌 해야 하는
지 배웁니다. 흔히들 이런 것을 가리켜 '처세술'이
라고 합니다. 처세술이 능한 자는 사람 다룰 줄 압
니다. 처세술이 능한 사람은 먹고 사는데 부유함
을 누립니다.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은 다른 사람
보다 훨씬 빨리 진급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처세술로 살지 않습니다. 처세술은 세상 사람들이나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승진이 늦고 가난하게 살지라도 그게 처세술에 능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보다 더 뛰어나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욥은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부유함을 누렸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엘리후는 욥을 왕족에 비유하고 부자의 한 사람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어쩌면 욥은 자신이 누리는 권력과 재산을 가지고서 이 세상의 많은 즐거움을 누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욥은 자신의 권력과 재산의 많음을 통해 지극히 낮은 자를 무시했을 것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기 보다는 처세술에 능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욥처럼 처세술에 능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당신은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 되기 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처세술로 살아가는 사람보다 훨씬 결과가 좋습니다. 일단은 천국의 삶이 보장됩니다. 천국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풍성한 삶이 보장됩니다. 처세술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 밑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밑에서 살면 됩니다. 사람 밑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 밑에서 사는 것보다 더 힘이 듭니다. 사람의 밑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윗 사람과 친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우리의 동행자가 되시며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부자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자녀는 부자만 해당됩니다. 가난한 자는 세상의 자녀가 아닙니다. 세상이 가난한 자를 버렸습니다. 가난한 자는 세상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가난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도 거할 곳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거할 곳이 없으니 말입니다.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의 부유한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은 가난할지라도 부유합니다. 이는 세상 사람의 종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부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옳은 자신의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 슬퍼했을 것입니다. 재산이 없어진 것 때문에 살 이유를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세상의 재산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 재산이 없어질 때 삶의 의욕도 잃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산으로 풍요로움을 누리는 사람은 세상의 재산이 없어져도 그다지 큰 슬픔에 빠지지 않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더 좋겠지만 없는 것 때문에 인생을 포기할 정도는 아닙니다. 비록 세상의 재산이 한꺼번에 없어질지라도 부유하신 하나님 때문에 부유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후 6:10]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욥은 자신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모두 잃고 나니 자신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세 친구와 대화를 나눌 때는 여전히 자신이 기독교인인줄 알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인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자신이 기독교인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못난 사람인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욥이 변화될 수 있었던 동기였습니다. 우리도 욥처럼 깨달아야 합니다. 겉모양은 기독교인이지만 속사람은 전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엘리후와 같은 선지자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비로소 우리의 겉모양이 벗겨질 것입니다. 우리의 진자 우리를 감추고 있는 겉모양이 벗겨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의 겉모양을 벗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속사람이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욥이 스스로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듯이 우리도 그런 깨달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간악한 죄인 중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욥 34:20]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어져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욥 34:21]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욥 34:22]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욥 34:23]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욥 34:24]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욥 34:25]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 사이에 뒤집어엎어 흘으시는도다

[욥 34:26]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 앞에서 치심은

[욥 34:27]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엘리후는 욥을 향하여 "당신은 세력 있는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여전히 자신 스스로를 '세력 있는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진 재산이 모두 없어졌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외면을

당했지만 여전히 자신 스스로를 '세력 있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욱처럼 여전히 '세력 있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 것도 없는데도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이미 나이가 들어 늙어버렸지만 여전히 그런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힘도 없고 돈도 없는데도 여전히 "나는 세력 있는 자"라고 스스로를 인정하며 삽니다.

그런 욱에게 엘리후는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24절). 하나님께서 세력 있는 자를 단숨에 꺾으신다는 경고의 말입니다. 욱은 엘리후의 이런 경고의 음성을 듣고 정신이 깨어났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욱은 엘리후의 그런 경고의 음성이 자신에게 향한 음성임을 인식했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듣긴 들어도 내게 해당되는 음성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은 모두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나에게 경고의 음성이 향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 중에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누

구인지 찾으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들은 들을 귀가 없습니다.

“[막 4:23]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은 스스로 세력 있는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치십니다. 밤 사이에 치십니다.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치십니다.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을 대신하여 세우십니다. “...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24절 하).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세력 있는 자’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절대로 ‘세력 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력 있는 자가 되는 것은 곧 멸망 당하는 길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력 있는 자입니까? 엘리후는 ‘세력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27절). ‘그들이 그를 떠났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말합니다. 스스로 ‘세력 있는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충분히 살만한 자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엘리후는 ‘그의 모든 길을 무관히 여기는 사람’이

세력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재수가 없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 '세력 있는 자'입니다.

우리들 중에 누가 스스로 '세력 있는 자'라고 생각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스스로 '세력 있는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가진 게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능력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잘 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멋지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말 잘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인기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는 못 보면서 남의 죄는 너무나 잘 보는 사람입니다.

"오, 주님! 내가 세력 있는 자입니다. 나를 낮추시

옅소서. 이 죄인을 낮추시옵소서”

[욥 34:28]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엘리후는 세력 있는 자들의 최악된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스스로 세력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주로 연약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는 연약한 자의 대표적인 부류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세력 있는 자들의 횡포에 대해 하나님께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불평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는 세력 있는 자를 벌하십니다.

[욥 34:29]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뵈올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욥 34:30]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움아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잘못 행하고 계시다고 지적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뵈올 수 있으랴..."(29절 상).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침묵'<샤카트>는 '평안하다'란 뜻도 있지만 '침묵하다'란 뜻도 함께 사용됩니다. 이곳에 쓰인 '침묵하시다'라는 단어는 히필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단어가 히필형으로 사용될 때에는 '조용하다', '침묵하다'란 뜻으로 사용됩니다.

욥 역시 하나님의 침묵을 싫어했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침묵은 욥의 고통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침묵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침묵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나를 외면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나만 홀로 버려진 느낌을 들게 합니다. 내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전혀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침묵은 이중적인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침묵은 그 어떤 고통보다 더 큰 고통으로 됩니다. 이는 그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불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심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지적할 수도 없습니다. 이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침묵을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침묵을 원합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다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의 무관심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원할 때 하나님의 관심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관심은 불필요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물과도 같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옆에 계셔야 합니다. 내가 지루할 때 하나님은 노래를 부르셔야 합니다.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줘야 합니다. 내가 피곤할 때 하나님은 내게 힘을 주셔야 합니다. 내

가 돈이 없을 때 하나님은 내게 돈을 주셔야 합니다. 내가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야 합니다. 내가 로또를 구입할 때 하나님은 로또 번호를 맞춰 주셔야 합니다.

어쩌면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 존재이십니다. 욥은 하나님을 필요로 했습니다. 절망가운데 있기 때문에 필요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니 더욱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욥의 뜻대로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원할 때 옆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욥이 힘들어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근처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욥의 이런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욥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엘리후는 욥을 비롯하여 우리 모두를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나님을 오라가라 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뵈올 수 있으랴..."(29절 상)라고 질책했던 것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29절 하)라고 말하면서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욕아

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30절)고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나라의 권세자에게도 공평하시지만 일반 백성에게도 공평하십니다. 그렇게 공평하신 하나님은 욥에게도 공평하시고 우리에게도 공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시는 것은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신 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통해 다른 사람이 사랑을 받으며 당신과 더불어 평안한 관계를 유지하라고 만드신 것입니다. 어쩌면 욥은 다른 사람과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서 연약한 자에게 피해를 끼쳤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욥은 연약한 자에게 함부로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연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고 있는지 모릅니다.

[욥 34:31]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욥 34:32]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욥 34:33]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엘리후는 욥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는 욥에게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31절)라고 말하면서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욥에게 계속해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32절)고 말하면서 욥이 전혀 회개의 삶을 살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아마도 욥은 엘리후의 말을 듣고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회개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욥이야말로 다른 사람보다 훨씬 회개를 잘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오히려 욥이 전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지적했으니 그 말을 들은 욥의 마음엔 적잖은

충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상 욱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욱의 회개는 말 뿐이었습니다. 회개하는 척만 했을 뿐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욱은 자신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만일 욱이 회개를 잘 하는 사람이었다면 자신 스스로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회개는 죄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회개하는지 회개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나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는지 아니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스스로 의롭다 여긴다면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엘리후는 더 이상 욱의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기 싫었습니다. 완벽한 죄인이면서도 스스로 완벽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욱이 역겨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33절 상)라고 말하면서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작정했느냐!"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욱은 지금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의롭게 여겼으며 스스로

자신이 왜 의로운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욥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모습을 거울로 바라볼 때 고스란히 욥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과 닮았습니다. 아니 무엇 하나 다를 바가 없는 완전한 쌍둥이입니다. 가증한 인간입니다. 죄인이면서도 의인처럼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욥 34:34]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 34:35]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욥 34:36]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욥 34:37]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는 욥이 끝까지 시험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36절 상). 우리는 엘리후가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와 같은 사람입니

다. 우리는 엘리후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엘리후의 말을 믿어야 합니다. 그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합니다. 엘리후가 사적인 감정 때문에 욱을 싫어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욱과 같은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에 욱에게 그런 악한 말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욱이 끝까지 시험을 받길 원한다고 말했던 것은 욱이 악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지극히 천국의 질서에 따른 것입니다. 지극히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악인은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의인은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욱은 악인이기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가 의인이 될 때까지 형벌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될 때까지 형벌은 계속될 것입니다. 욱이 의인이 될 때에 비로소 그의 시험은 멈출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시험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욥기 35장] =====

[욥 35:1]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욥 35:2]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나

[욥 35:3]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마는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게 여기는 것을 질책했습니다. "...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나"(2절 하). 엘리후의 이런 욥에 대한 질책은 다소 너무 과장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결코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엘리후가 함부로 말할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엘리후가 왜 욥에 대해 그렇게까지 말했는지를 이해하려고 해야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엘리후에게 그런 질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말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역시 결코 단 한 번도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며 삽니다. 단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할 때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3절)는 말을 묻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엘리후의 이 말은 실제로 맞는 말이었습니다. 욥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욥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욥은 그것이 무익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에게 아무런 유익함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죄나 실컷 지으면서 살 걸" 말하며 지난 날을 후회하였던 것입니다.

욥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욥은 복을 받기 위해 죄를 짓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 죄를 짓지 않았던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유익함을 얻기 위해 죄를 짓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죄를 짓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위해 죄를 짓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욥의 이런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우리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나를 위함입니다. 죄를 짓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유익함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음으로써 빼앗기게 되는 하나님의 유익함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이 욥의 모습입니다. 욥과 우리는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욥 35:4]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욥 35:5]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욥 35:6]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욥 35:7]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욥 35:8]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엘리후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욥에게 설명했습니다. 엘리후의 그런 설명은 욥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너무 친구처럼 대하기 때문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 있어서 욥의 존재가 아주 하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대가 범직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6-7절). 물론 엘리후의 말은 과장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욥을 하찮게 여기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엘리후가 그렇게 말한 것은, 욥의 존재가 하나님에 비해 지극히 낮고 천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엘리후의 말처럼 우리

의 존재는 지극히 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에 비해 지극히 낮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낮은 존재입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보다 더 낮은 존재이며 벌레보다 더 낮은 존재입니다. 따지고 보면 욥의 문제는 높은 자존감입니다. 보통적으로 사람들은 낮은 자존감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욥의 경우엔 그 반대입니다. 욥은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스스로 생각할 때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욥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욥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 자신에게 닥친 고난과 역경이 욥을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욥은 고난과 역경의 순간에 엄청 힘든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는 그가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히려 고난과 역경의 순간에 낙담하거나 절망하는 정도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높은 자존감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 만족하지 못했으며 왜 자신에게 그런 고난이

닥쳐야 하는지 따졌습니다. 이러한 욱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과 견주려고 하는 사탄의 모습처럼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욱을 악인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욕이 악인이라면 우리 또한 악인입니다. 엘리후에게 있어서 욱이 사탄처럼 보여졌다면 우리도 사탄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악인일 뿐입니다. 욱을 통해 우리가 악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면 복있는 자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욱 35:9] 사람은 학대가 많으므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욱 35:10]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욱 35:11]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욱 35:12]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욱 35:13]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

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욥 35:14]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뵈올 수 없고 일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보나

[욥 35:15]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 35:16]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는 욥에게서 고개를 돌려 우리에게 경고의 말을 전합니다. 엘리후는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헛된 부르짖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엘리후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학대를 받을 때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는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으므로 부르짖으며... 도움을 부르짖으나"(9절).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부르짖는 것으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학대를 받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부르짖고는 그것이 끝입니다. 물론 응답받지 못합니다. 물론 감사함도 없습니다. 응답을 받지 못했으니 감사가 있을 이유가 없

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상 부르짖기만 합니다. 마치 개가 이유없이 짖는 것처럼 그렇게 짖습니다. 개가 짖어대면 주인이 나오지만 우리가 부르짖을 때는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는 그 흔한 천사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무시하십니다. 전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부르짖음은 헛된 부르짖음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13절)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 때문입니다. 부르짖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르짖는 것밖에는 모릅니다. 부르짖는 것 외에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르짖기만 합니다. 시끄러운 개가 부르짖기만 합니다. 왜 짖는지 모르겠지만 늘상 시끄러운 개는 짖기만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반응도 이와 같으실 것입니다. '왜 재는 저렇게 짖는거야?'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엘리후는 우리가 부르짖기만 한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들춰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

가 부르짖기만 한다는 사실일까요? 혹 당신은 아십니까? 당신은 부르짖기만 한다는 사실일까요? 당신도 모르는 사실을 엘리후는 어찌 알았을까요? 이런 것은 당사자보다 주변 사람이 더 잘 압니다. 엘리후는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해서 잘 아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눈에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잘 아는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그는 우리가 부르짖는 것밖에는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르짖는 것 외에 행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에 반응하실까요?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짐승보다 더 나은 존재로 만드심에 대해 아는 자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11절).

이러한 모습은 마치 자식이 부모에게 전혀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의 집에서 얹혀 살면서도 감사치 않고 부모가 만들어준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치 않으며 부모의 돈으로 학교를 다니면서도 감사치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자식이 원하는대로 부모가 해주지 않는다면서 부모에게 욕하고 화를 내면서 집을 뛰쳐 나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엘리후가 본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런 못된 자식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엘리후가 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못되게 굽니다. 어쩌면 그렇게 못된 자식일 수가 있을까요? 어쩌면 그렇게 철이 들지 않았을까요? 언제 철이 들려고 계속해서 그런 못된 자식처럼 행동하는 것일까요?

이런 못된 자식은 여전히 부모의 사랑을 받습니다. 여전히 부모는 그런 못된 자식에게 밥을 줍니다. 그런 못된 자식일지라도 해 달라는대로 해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그런 못된 자식보다 철든 자식이 더 나은 법입니다. 그 어떤 부모라 할지라도 철든 자식이 나올 것입니다. 물론 철 들지 않는 자식이라도 사랑합니다. 그것이 부모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식이 철들 날을 바라면서 뒷바라지를 합니다. 하나님도 부모와 같습니다. 우리가 철들길 바라십니다. 더 이상 감사치 않는 철 없는 자식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옅은 철들지 않은 자식입니다. 철들지 않았기 때문에 속이 없습니다. 철이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결코 나이가 적어서 철들지 않

은 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철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철들 수 있습니다. 욕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아직도 철이 안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오, 주님. 나로 하여금 철들게 하소서!"

[욥기 36장] =====

[욥 36:1]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욥 36:2]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욥 36:3]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욥 36:4]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엘리후는 자신의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4절 상). 그가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진실된 내용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엘리후처럼 진실된 내용만을 전한다면 우리도 엘리후처럼 담대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담대함이 없습니다. 이는 진실된 내용만 전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은 진실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거짓된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된 말을 전해야 합니다. 내 뜻과 내 감정에 따라 어떤 것은 진실되게 하고 어떤 것은 거짓되게 전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모든 것을 진실되게 전해야 합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4절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엘리후의 말이 진실됨을 증거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의 말이 진실된지 거짓된지를 모두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욥 36:5]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욥 36:6]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 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욥 36:7]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욥 36:8]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욥 36:9]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욥 36:10]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욥 36:11]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욥 36:12]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아무도 멸시하지 않
으십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5절 상). 하지만 우리는 조금만 힘
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다.
조금만 가진 것이 많으면 없는 자를 무시합니다.
조금만 배운 게 있어도 덜 배운 사람을 무시합니
다. 못 생겼다고 멸시하고 멍청하다고 멸시합니
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도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말아야 합
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행위는 결
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십니다. 고난 받
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십니다. 의인에게 눈을 떴
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의인보
다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보이고 악인이 의인보
다 더 복을 많이 받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악인을 의인보다 더 높이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악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욥 36:13]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욥 36:14]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엘리후는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13절 상)라고 말했습니다. '경건하지 않다' <하네프>라는 말은 '신성모독적인' 또는 '불경건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취하는 사람은 이렇듯 분노를 쌓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에 비해 훨씬 저들의 분노가 심각합니다. 저들은 분노를 쌓기 때문입니다. '쌓다' <숨>이라는 말은 '정하다', '확립하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기둥을 세워놓는 것과 같습니다. 벽돌로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마치 분노를 쌓아놓은 모습입니다. 분노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견고한 분노의 집입니다. 조금만 건들어도

쉽게 분노하는 사람은 신성모독적인 사람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그렇게 분노로 뚝뚝 뭉쳐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쉽게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사곡한 자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합니다. 이는 저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니"(13절 하).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속박을 받았습니다. '속박받다' <아사르>라는 말은 '결박받다' 또는 '감금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결박을 당할 정도로 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감금당할 정도로 속박을 받았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으로부터 빠져 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단 하나의 길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사곡'하게 만드는 것 뿐입니다. 우리를 속박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신성모독적인 행동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해 불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곡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에 의해 묶임을 당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뭔가를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며 그 어떠한 간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엘리후의 눈에는 욥이 그런 자유인이 되어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욥이 자꾸만 자유인으로 살려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따끔하게 경고의 말을 했던 것입니다. "너는 악인이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내 뱉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욥처럼 자유인의 삶을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도 해 봐! 하나님의 속박에서 벗어난 삶이 얼마나 자유스러운데"라며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삶을 누리도록 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는 않을지언정 하나님을 떠나 살라고 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도 죄악 중의 하나인데 사악한 복음을 전하고서 어찌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이런 사악한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냥 죽는 게 아

니라 남창과 함께 죽습니다.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다"(14절). 사곡한 자들이 젊어서 죽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속박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사곡한 자들이 빨리 죽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속박에서 벗어나 세상에 거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삶은 남창과 함께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의 하나가 '남창'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유혹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유혹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더럽게 만드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속박에서 벗어나 사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욥 36:15]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욥 36:16]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 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욥 36:17]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욥 36:18]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욥 36:19]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욥 36:20]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 가리라

[욥 36:21]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곤고한<아니>라는 말은 '가난한', '비천한'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가난하거나 비천하고 억압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모든 곤고한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곤고한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욥에게도 해당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욥 역시 곤고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도 이에 해당됩니다. 우리 역시 곤고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그가 악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곤

고한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지만 악인은 받을 수 없습니다. 곤고한 자와 악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곤고한 자는 자신의 게으름 때문에 가난하거나 비천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외부적인 억압 때문에 가난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를 악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사람들의 동정을 받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마음에도 가난한 자에 대한 동정심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욥은 곤고한 자였지만 악한 자였습니다. 곤고함과 악함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욥처럼 곤고함과 악함을 함께 가질 수 있을까요? 사곡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증오하면 가능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하고 학대해도 가능합니다. 하나님보다 사탄을 더 좋아하고 따르면 가능합니다.

욥은 착실하게 악한 자가 될 수 있는 과정을 잘 밟았기 때문에 곤고함과 악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수고없이 결코 두 가지를 얻을 수는 없었

습니다. 우리도 곤고함과 함께 악한 자가 되기 위해 무던히도 수고합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 어떠한 노력보다 더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곤고한 자들은 대체적으로 악합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17절 상)라는 말로 그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실로 욥은 악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악한 자가 아니라 곤고하면서도 악한 자가 된 것입니다. 만일 욥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악인이 되었다라면 그는 결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욥이 엘리후의 말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았던 욥이 엘리후의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욥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욥처럼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수염이 달린 선지자만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런 선지자를 찾으려면 거지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거지가 선지자입니까? 왜 수염달린 사람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수염이 전혀 없을지라도 선지자

가 될 수 있습니다. 눈썹이 이방 눈썹을 달고 있을 지라도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소 연약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절뚝거리는 사람이라도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왕의 친필이 담겨있는 황금색 서신을 들고 있는 사람을 찾지 마십시오. 황금색 서신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선지자가 있다 할지라도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발달되어야 합니다. 귀가 있어야 들을 것 아닙니까?

엘리후는 욥에게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21절 상)고 말하면서 "...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21절 하)라고 말했습니다. 욥은 마음에 사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사곡한 마음 때문에 그가 악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곡한 마음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사곡한 마음 때문에 악으로 치우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곡한 마음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환난' 때문이었습니다.

'환난'은 우리의 마음을 사곡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욕하게 만듭니다. 신성모독적인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환난'은 우리를 시험하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마귀도 '환난'을 통해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는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물론 '환난' 날에 마귀의 시험도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는 환난보다 악을 택하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부자에게도 환난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환난이 더 많아 보이지만 실상은 부자에게 임하는 환난이 더 많습니다. 가난한 자는 작은 환난 때문에 힘들지만 부자는 큰 환난으로 힘들어 합니다. 덜 배운 사람에게만 환난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에게 환난이 덜 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배울수록 머리털은 더 빠집니다.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많이 배

우면 배울수록 머리는 더 많이 회전해야 하며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 역시 환난입니다. 육신의 근육이 많은 근육맨에게는 환난이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지극히 평범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그만큼 해야 할 운동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잘난 육신을 더 잘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리 역시 그에게 환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환난은 임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악을 택하지는 않습니다. 환난 때문에 악을 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환난이 없으면 악을 택할 일도 많이 없어질 것입니다. 환난 때문에 악을 택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합리화시키는 핑곗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환난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택해서는 안 됩니다. 악으로 치우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환난 때문에 악을 택하였다면 우리는 악인이 될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악한 행위에 대해 그 어떤 것으로 합리화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를 돌아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어떤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건

강입니까? 혹 사람은 아닙니까? 그것이 어떤 모양새를 띄고 있던지간에 그것 때문에 악을 행하지는 마십시오. 악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악으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그 어떤 모양이던지간에 악은 버리십시오. 환난은 환난일 뿐입니다. 환난은 잠시 잠깐 존재할 뿐입니다. 오히려 환난 중에 기뻐하십시오. 어렵겠지만 기뻐해 보십시오. 그러다보면 환난이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기쁨이라면 취하십시오. 환난을 두려워 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쫓아 내십시오.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모든 대상을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당당하게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기쁨으로 찬양하십시오. 환난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마십시오. 환난 주신 하나님을 찬양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당신 스스로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십시오. 당신으로 하여금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환난은 기쁜 것이 아니지만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욥 36:22]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
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욥 36:23]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욥 36:24]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욥 36:25]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욥 36:26]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햇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욥 36:27]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욥 36:28]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욥 36:29]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렛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욥 36:30]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욥 36:31]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욥 36:32]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과녁을 치시도다

[욥 36:33]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 주

니 가축들도 그 다가움을 아느니라

엘리후는 욥에게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24절 상)고 권고했습니다. 만일 욥이 악인이라면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할 것입니다. 환난 중에 거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난 때문에 악으로 치우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습니다.

엘리후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바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바라보니 찬송이 나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물을 가늘게 끌어 올려서 안개로 만들고 비를 이루게 하신 것을 찬양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찬양하지 않습니다. 안개는 안개일 뿐입니다. 안개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구름의 폐임과 그의 장막의 울리는 소리를 듣고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번개와 우뢰 소리를 듣고도 찬양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찬양치 못하게 만드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있다면 오직 '사곡한 마음' 뿐

입니다.

[욥기 37장] =====

[욥 37:1]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떨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마음의 떨림을 당할 때에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엘리후는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1절)고 고백했습니다. 엘리후가 그렇게 고백했던 까닭은 그가 하나님으로 인해 마음이 떨렸기 때문입니다. '떨다' <하라드>라는 말은 '떨다', '진동하다', '두려워하다', '놀라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 떨렸을 때 그의 마음은 심히 진동했던 것입니다. 이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놀라움과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의 보다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질서의 관계입니다. 전혀 질서가 없는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이런 관계는 질서가 없는 관계입니다. 이는 마치 남편이 아내가 될 수 없고 아내가 남편이 될 수 없는 관계와도 같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되거나 아내가 남편이 되는 관계는 죽도 밥도 아닌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내가 되는 관계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는 무질서이며 그 자체만으로도 혼돈이며 암흑입니다.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을 때 혼돈의 상태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떨림'이 필요합니다. 엘리후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떨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떨림이 있을 때 엘리후에게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가 자리를 떠났습니다. "...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1절 하). '자리'<마콤>이라는 말은 우리가 거하는 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상태가 있습니다. 주부는 주부로서의 상태가 있습니다. 회사원은 회사원으로서의 상태가 있습니다. 모두 각자의 상태가 있습니다. 목사가 학생의 상태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회사원이 주부

의 상태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주어진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에 맞는 상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를 어긋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어긋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변화시키십니다. 또 하나는 마귀가 우리의 상태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마귀의 변화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변화는 하나님에 의한 변화입니다. 엘리후가 그의 처소에서 떠난 것은 하나님에 의한 변화였습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변화는 엘리후가 취한 변화입니다. '떠났다' <나타르>라는 말은 '뛰다', '놀라 펄쩍 일어나다', '풀어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내가 처한 상태에서 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물이 뜨거워서 깜짝 놀라듯이 그렇게 뛰어야 합니다. 이러한 펄쩍 뛰며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를 묶고 있는 좋지 않는 것으로부터 풀어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잠자고 있는 성도는 일어나야 합니다. 설교말씀이 벌써 끝났습니다. 이제는 일어나 식사할 시간입니다. 헌신하지 않는 성도는 깨어나야 합니다. 빗자루를 들 때가 되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성도는 일어나야 합니다. 입으로만 전도하려 하지

말고 손과 발을 움직여서 전도해야 합니다. 게으른 주부도 일어나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 일어나야 합니다. 정성껏 음식을 만들기 위해 일어나야 합니다. 백수건달로 살아가는 자녀들도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어나야 합니다. 백수건달이 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언제 일어날 것입니까? 언제 제대로 공부를 할 것입니까? 하지만 마귀가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이는 목사를 주부로 변화시키거나 남편을 아내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학생이 선생으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회사원이 사장이 되기도 합니다. 성도를 목사로 둔갑시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질서를 파괴시킵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셨지만 마귀는 그 질서를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마귀의 존재 목적입니다. 마귀에게 붙잡힌 자들은 지금도 변화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의한 변화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변화입니다.

[욥 37:2]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욥 37:3]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욥 37:4]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 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엘리후는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2절)고 말했습니다. 그는 "들으라"라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두 번씩이나 '들으라'는 말을 강조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원어 성경에는 <샤마>가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개역판만 원어성경대로 들으라는 말을 두 번 기록하고 있지만 그외의 성경번역판은 한 번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번역판들이 제각각 강조 또는 수식어를 첨가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들으라'<샤마>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대로 '듣다'란 뜻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귀를 통해 소리를 듣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듣다'라는 의미는 육신의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귀로도 들어야 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듣다'라는 말은 '경청하다', '주의를 기울이다'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종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에 응답하다'란 의미도 있고 '이해하다'란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당신은 아마도 매우 주의력이 높은 사람일 것입니다. 또한 당신은 매우 순종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또한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매우 신속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은 하나님의 진짜 음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음성을 말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 음성은 내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

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이 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나의 음성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엘리후가 언급한 '소리' <헤게>는 '우르렁 거리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이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대표하고 있는데 주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와 같은 소리처럼 들립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와 같은 음성이었습니다.

“[출 19:16]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뱅뱅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엘리후가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켜 '우르렁 거리는 소리'와 같다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와 같은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자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으

르렁 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듣는 언어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으르렁'거리며 소리를 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이해력이 부족할까요? 혹 당신도 그 사람과 같은 부류는 아닌지요?

엘리후가 하나님의 음성을 으르렁 거리는 우리와 같다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이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주 선명하고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떨며 진동합니다.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충분히 지금 이 말을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전혀 마음의 떨림도 없고 펄쩍 뛰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현상도 없다면 당신은 진실로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뿐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강력하여서 변화를 발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주 좋은 씨앗과 같아서 금방 열매를 만들어 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완전히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의
특성입니다.

[욥 37:5]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욥 37:6]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욥 37:7]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
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욥 37:8]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
소에 머무느니라

[욥 37:9]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욥 37:10]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열게 하고 물
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욥 37:11]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
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욥 37:12]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
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욥 37:13]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
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는지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5절).

당신의 삶에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남긴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송두리채 바꿔놓습니다.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꿔놓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놓습니다.

[욥 37:14]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욥 37:15]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욥 37:16]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욥 37:17]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욥 37:18]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 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엘리후는 욥에게 "...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
으라"(14절 하)고 권했습니다. '깨달으라'<빈>이
라는 말은 '분별하다', '지각하다', '이해하다', '식별
하다'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지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할 필요가 있
습니다.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곰곰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
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궁구하기 위해서는 가만
히 서야 합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 가만히 서
서..."(14절 중)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
고 말했습니다. 가만히 선다는 것은 멈춘다는 것
을 의미합니다. 마치 차가 신호등 앞에서 정지하
듯이 그렇게 정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정지하지 않습니다. 할 일이 너무나 많
기 때문입니다. 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 할 일이 많
은 것은 아닙니다.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
에 할 일이 많은 것 뿐입니다. 많은 일을 하는 사
람들 중에는 오히려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약

간의 일을 하면서도 엄청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분주한 사람입니다. 이런 분주한 사람은 산만합니다. 생각이 많습니다. 여러 생각을 한꺼번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궁구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줄여야 합니다. 물론 일도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해 궁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할 일을 줄이라고 권했습니다. 마르다가 많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마르다가 많은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마르다 스스로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눅 10:39]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눅 10:40]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 주라 하소서

[눅 10:41]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

심하나

[눅 10:42]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 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많은 일로 분주했던 마르다는 주님의 꾸지람을 받았지만 오히려 예수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는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마르다가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고 마리아는 얄미운 짓을 하는 못된 여인일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눈과 우리의 눈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 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너무나 산만하기 때문에 주님을 놓칩니다.

어쩌면 욕도 분주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산만했을 것입니다. 그의 재산이 없어지고 그의 자녀가 모두 죽었고 그의 사랑하는 아내와 사람들도 그를 떠났지만 여전히 그는 분주했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산만했습니다. 더 가졌을 때보다 덜 가진 지금이 어쩌면 그를 더 분주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없이 홀로 있지만 오히려 더 많은 생각으로 산만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역시 욱처럼 분주하고 산만합니다. 이렇게 많은 일로 분주하고 여러 생각으로 산만할 때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면 도무지 집중이 안 됩니다. 마음이 편치 않기 때문입니다. 조급하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과 함께 할 시간조차 만들지 못합니다.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조급한 사람은 금방 일어나고 맙니다. 기도실에 들어간지 5분도 안 되었는데 금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새벽기도 와서 목사님 말씀듣고서 5분도 안 되어 일어나 예배당을 떠나는 사람들은 조급한 사람들입니다. 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 오래 앉아있지 못합니다. 생각이 너무나 많아서 오래 앉아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해 궁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분주함을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의 조급함도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의 산만함도 내려놔야 합니다. 육신의 일들을 멈춰야 합니다. 조금더 오래 앉아 계십시오.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해 궁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궁구할 때 무엇을 궁구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궁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행하신 일들을 궁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와 민족

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궁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궁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궁구할 때에 항상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하신 하나님만 궁구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만 궁구합니다. 그래서 그토록 하나님을 만나기 힘든 것입니다. 당신이 대통령이라면 모를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궁구하는 당신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욥 37:19]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욥 37:20]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욥 37:21]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욥 37:22]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욥 37:23]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욥 37:24]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

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
니라

엘리후는 욥에게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19절 상)고 말했습니다. 엘리후의 이 말은 비꼬는 투의 말입니다. 욥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비꼬면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19절 하)고 말했습니다. 이 역시 비꼬는 말입니다. 욥이 하도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니까 엘리후가 스스로 "나는 너에 비해 너무나 무식한 자다"라고 밀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욥은 엘리후의 그런 말을 좋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진짜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는 진짜로 미련한 자입니다. 그런 미련한 자는 엘리후의 비꼬는 말을 비꼬는 말인줄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 지혜롭기 때문에 그런 말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이런 지혜로운 자가 있습니다. 욥과 같이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엘리후의 비꼬는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 말씀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본인 스스로 성경보다 뛰어나다 여기기 때문에 도무지 성경 말

씀이 그런 사람을 지적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지혜로운 자를 버리십니다. 그가 필요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모우지 않듯이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를 버리십니다. 버려야 할 물건이니까 버리시는 것입니다. 필요없으니 버리는 것입니다. 더러우니 버리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니 버리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를 버리시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24절 하). '무시하다'<로라아>라는 말은 '바라보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친구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를 바라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욱을 바라보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욱이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욱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으시는 것은 그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마치 부모가 자녀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아내가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모든 일

이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버림받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의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사람까지 잃은 것은 버림받은 모습의 흔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욥으로부터 얼굴을 돌리신 것은 가장 큰 버림받음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이키실 때의 고통을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합니다.

성막의 진설병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진설병'이라는 말은 '얼굴의 떡'이라는 말입니다. '진설'<파님>이라는 말은 '얼굴'을 뜻합니다. 우리는 진설병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만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얼굴을 보시면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설병에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 간구합니다. 생명의 양식을 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내 배우자를 위해 구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 구합니다. 내 가정의 필요를 위해 간구합니다. 내 교회와 내 이웃과 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구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떡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출 25:30]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욥기 38장] =====

[욥 38:1] 그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뵈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 뵈기를
원했던 욥은 소원을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신 모습이 어딘지 모르
게 무섭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뵈기를 원했을
때에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은 아니었을듯 합니다.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로 욥에게 임하셨기 때문
입니다. 물론 욥은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었습니
다. 하나님의 모습을 뵈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실 때에 '폭풍'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1절). '폭풍우'<
사아르>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폭풍'과 '태풍'을
말합니다. 이는 회오리바람으로도 사용된 말입니
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을 때 그를 하늘로 끌
어올린 것은 회오리바람이었습니다.

"[왕하 2:11]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하지만 대체적으로 ‘폭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상징입니다. 욥에게 ‘폭풍우’로 임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하는 아기를 품에 안아주기 위해 나타나신 그런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그보다 어쩌면 욥을 혼내주기 위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고해서 ‘폭풍’ 가운데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도 폭풍 가운데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출 19장 참조).

그렇다 할지라도 폭풍 가운데서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욥의 심정은 매우 큰 두려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과의 만남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놀랍고도 두려운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욥의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큰 두려움을 갖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여호수아와 모든 사사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편한 자세로 듣지 않았습니다.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두렵고 놀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경외함의 자세를 갖게 됩니다. 경외라는 말 자체가 두렵고 떨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의 모습에는 경외함이 매우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당신 역시 경외함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욥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경외함이 있었습니다. 말문이 막힐 정도로 놀라고 말았습니다. 오금이 저릴 정도로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모든 신경과 조직이 바짝 긴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처럼 우리를 긴장시킵니다. 하나님이 무

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를 그렇게 긴장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 중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너무나 편하게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듣기는 들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항상 이처럼 긴장감으로 듣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두렵고 떨림이 심합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은 친숙해지며 친근감이 더해집니다. 이는 결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종처럼 만나지만 나중에는 자녀로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될 때에는 마치 연인 관계처럼 지내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결코 불경스러운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변화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길 원하십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는 그들이 죽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위대한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감히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불경스러운 것이며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을 뵈는다는 것은 죽음을 뜻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도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무척 실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마도 "네가 언제까지 계속해서 그런 모습으로 나올 것이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 부담없이 나아오길 원하십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부담없이 나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오길 원하십니다. 때로는 친구가 친구를 만나듯이 그런 만남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욥 38:2]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 38:3]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

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욥 38:4]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욥 38:5]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욥 38:6]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잇돌을 누가 놓았느냐

[욥 38:7] 그 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하나님은 욥에게 천지창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천지창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지 못했던 까닭은 그가 천지창조에 대해 깊은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천지창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그 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7절)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이미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롬 8:29]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습니다. '미리 아신 자들'이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란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미리 아신 자들을 의미합니다. 현재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입증해 줍니다.

“[렘 1:5]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 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를 선지자로 택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내 보내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롬 8:30]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

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잠언서는 우리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음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옆에 함께 했으며 세상의 창조를 보고 함께 기뻐했다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잠 8:22]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잠 8:23]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잠 8:24]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잠 8:25]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잠 8:26]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잠 8:27]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잠 8:28]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 있게 하시며

[잠 8:29]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
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잠 8:30]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
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
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욥 38:8]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
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욥 38:9] 그 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욥 38:10]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욥 38:11]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
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
라 하였노라

[욥 38:12]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
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욥 38:13]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 버린 일이 있었느냐

[욥 38:14]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
었고 그들은 옷 같이 나타나되

[욥 38:15]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욥 38:16]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욥 38:17]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욥 38:18]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욥 38:19]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나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나

[욥 38:20]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욥 38:21]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 때에 태
어났으리니 너의 햇수가 많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지으셨을 때 질서 아래
두셨습니다. 바닷물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
다. 바닷물이 태어서 나옴 같이 넘쳐 흐르게 하셨
습니다. 하지만 어느 선 이상으로는 넘어오지 못
하도록 한계점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 네 높
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11절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질서 아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서 아래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 아래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잠 18:12]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욥 38:22]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욥 38:23]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 두었노라

[욥 38:24]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흠어지느냐

[욥 38:25]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리와 번개 길을 내어 주었느냐

[욥 38:26]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욥 38:27]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욥 38:28] 비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욥 38:29]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욥 38:30] 물은 돌 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욥 38:31] 네가 묘성을 매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욥 38:32]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 때에 이끌어 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욥 38:33]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욥 38:34]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욥 38:35]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욥 38:36]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욥 38:37]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욥 38:38]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욥 38:39]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욥 38:40]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욥 38:41]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잡을 수 없으며 견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의 뛰어난 지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것은 욥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뛰어난 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 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전혀 알지 못하신다고 여겼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전혀 관심없어 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욥은 자신 혼자서만 고통을 당할 뿐 하나님은 전혀 욥의 고통을 해결해 주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 욥과 같은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지에도 비를 내리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비를 내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26-27절). 짐승조차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당신을 모른체 하시겠습니까?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41절). 결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

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십니다. 세상 만물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욥기 39장] =====

[욥 39:1]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욥 39:2]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욥 39:3] 그것들은 몸을 구푸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욥 39:4]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 들에서 크다
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욥 39:5]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의 매인 것을 풀었느냐

[욥 39:6]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
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욥 39:7] 들나귀는 성읍에서 지껄이는 소리를 비
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
게 들리지 아니하며

[욥 39:8]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욥 39:9]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
겠으며 네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욥 39:10] 네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

라 쓰레를 끝갠냐

[욥 39:11] 그것이 힘이 세다고 네가 그것을 의지
하갠냐 네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갠냐

[욥 39:12] 그것이 네 곡식을 집으로 실어 오며
네 타작 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위탁하
갠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욥에게 하나님의 뛰어나신 지
혜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이는 욥으로 하여금
얼마나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설명을 듣지 않았더라
면 결코 그는 스스로를 바라보지 못했을 것입니
다. 그가 얼마나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자인지 깨
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없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지혜
가 한없이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
의 뛰어남을 아는 것이며 우리의 어리석음이 한
없이 크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
를 깨닫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분명 당신은
한없이 어리석고 지혜없다는 사실을 느낄 것입니
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면
분명 당신은 스스로 지혜있다고 뽐낼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하지만 지혜롭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의 지혜를 뽐냅니다. 만일 당신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당신의 모든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릅니다. 세상의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세상의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지만 세상의 지혜자 중에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지혜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의 지혜만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매우 낮은 지혜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지혜보다 더 뛰어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사랑보다 더 뛰어난 사랑이며 모든 지식보다 더 뛰어난 지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합쳐도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하지 못할 정도로 크고 넓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을 살리며 세상을 이롭게 합니다. 악을 악으로 대항하는 지혜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덮는 지혜입니다. 하찮은 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저들을 아끼고 돌보십니다. 들나귀를 자유케 하시며 들나귀가 머물 처소를 마련해 주시는 돌봄이 있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혜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지혜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지혜입니다.

[욥 39:13]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욥 39:14]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욥 39:15]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욥 39:16]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욥 39:17]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욥 39:18]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욥 39:19]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흘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욥 39:20]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엄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욥 39:21]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욥 39:22]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욥 39:23]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욥 39:24]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욥 39:25]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히히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욥 39:26]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네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욥 39:27]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 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네 명령을 따름이냐

[욥 39:28]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욥 39:29]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욥 39:30]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
님의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타조는 자신의 알
을 함부로 땅에 버려둡니다. 그래서 뜨거운 모래
에 알이 상하게 되기도 하며 들짐승의 발에 밟혀
깨지기도 합니다. 타조가 이처럼 무정한 짐승이
된 것은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타조에게 지혜
가 부족한 까닭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
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17절).

만일 당신에게 지혜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혜를 부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에게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을 찾습니
다. 총명한 자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지
혜와 하나님의 총명함을 얻는 자는 복있는 자입
니다.

어쩌면 욥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였습

니다. 만일 욕이 세상의 지혜만 가지고서 그대로 죽었더라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욕은 경건한 자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던 거룩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였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통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을 답답하게 여깁니다. 세상의 지혜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만이 천국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히 부어질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이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알게 하며 천국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의 다른 점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냥 모두 똑같은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다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당신은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 셈입니다. 세상의 지혜자는 세상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자는 세상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까지 받습니다.

[욥기 40장] =====

[욥 40:1]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욥 40:2]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 40:3]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 40:4]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랴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욥 40:5]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
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은 욥의 말을 듣기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하나님께 변박하며 다투려는 자세를 취하였기 때문입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2절). '트집잡는 자' <잇소르>는 '훈계하는 자', '책망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가리켜 '변박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욥이 하나님을 훈계하고 책망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욥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매우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훈계하거나 책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욥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욱을 통해 훈계를 받으셨고 책망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처를 받으신 것입니다. 욱이 하나님께 상처를 입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욱의 트집 잡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고 욱의 훈계와 책망 때문에 힘드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 상처를 입히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트집잡는 것 때문에 상처를 입고 계시며 우리의 훈계와 책망 때문에 힘드시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오히려 힘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되지 않는 것 때문에 힘이 듭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치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상처를 입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 때문에 힘이 듭니다.

욱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으로 깜짝 놀랐듯이 아마 우리도 하나님의 그런 심정을 알고서 깜짝 놀라야 합니다. 우리 때문에 힘드셨을 하나님을 바라 봐야 합니다. 자꾸만 힘들어 하는 나의 모습만 바라 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만 힘들다고 나의 모습만 바라 보면 정작 힘들어 하는 상대방의 모

습은 바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상대방이 나보다 더 힘들어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나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상대방을 통해 상처를 받은 것보다 어쩌면 상대방이 나 때문에 더 많은 상처를 받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배려입니다. 남을 배려한다는 것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마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입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말을 나누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말하고 싶지 않았을 때 그가 내뱉은 말을 들어 보십시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랴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 소이다"(4절). 욥은 전혀 스스로 비천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비천하다' <칼랄>은 말은 '하찮다', '시시하다', '보잘 것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욥은 스스로 하찮은 사람으로 생각지 않았습니다. 결코 자신 스스로 시시하거나 보잘 것 없는 사람으로 생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비천하오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가 진짜로 미천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을 몰라주는 하나님이 미웠기 때문

에 입을 닫은 것입니다. "나는 비천하오니"라고 말한 것은 말하기 싫은 자신의 마음을 아름답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옅과 같은 핑겟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추기 위해 포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말은 항상 포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알려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품은 뜻을 알려면 그 사람의 속 사람을 봐야 합니다. 상대방의 속사람을 말을 듣기 위해서는 속사람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보는 것이 듣는 것보다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보는 것이 듣는 것보다 훨씬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대방의 말만 듣습니다. 상대방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진실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포장된 것이 많습니다. 과장되어 있으며 숨어 있는 의도가 있습니다.

옅은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5절)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옅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옅이 다시는 말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기분이 나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

는 하나님이 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미워질 때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꿀보기 싫을 때 입을 닫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몰라 줄 때 마음이 상합니다. 더 이상 함께 하고 싶지도 않게 됩니다.

욥의 그런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욥의 마음을 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욥의 속사람의 생각을 다 읽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욥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지 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욥처럼 어리석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데도 하나님께서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위선된 행동을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욥 40:6] 그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욥 40:7]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욥 40:8]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욥 40:9]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욥 40:10]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는 표현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6절). 주로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굳이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실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욥은 개인일 뿐이며 군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작은 소리로 말씀하셔도 충분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화가 나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화를 내시면서 욥에게 말씀하신 것은 결코 욥이 미워서 화를 내신 것이 아닙니다. 욥이 그런 식으로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욥이 그런 식으로 자신의 속 마음을 감췄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왜 그런 식으로 대답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7절)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장부’<게베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보통적인 사람이 아니라 힘이 아주 강력한 남자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너는 대장부처럼...”이라는 말은 “너는 남자처럼 대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거짓없이 솔직하게 말할 때 “남자처럼 말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을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거짓없고 솔직한 대답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만 거짓없고 솔직한 표현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짓없고 솔직한 말을 해야 합니다. 남자처럼 말해야 합니다. 물론 오늘날의 남자는 여자처럼 변해 버려서 ‘남자처럼’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어떤 상상을 가져다 주는지 의문입니다만 그래도 조금만 깊이 있게 생각하면 ‘남자처럼’이 어떤 사람의 모습을 그리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는 사람들을 여자처럼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여자처럼 삽니다. 이 말이 여자들에게 안 좋은 말로 들려질지 모르겠으나 ‘여자처럼 산다’는 말은 여자들에게도 좋은 말은 아닙니다. 이는 여자들도 남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물론 남자들은 당연히 남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여자처럼

산다는 말은 욕입니다. 우리를 폄하시키는 말입니다. 우리를 나약한 사람으로 만드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남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남자의 생식기관을 달고 살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살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 '아들'이라고 표현하신 이유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있어서 '아들'입니다. 단순히 성경저자들이 지극히 남존여비 사상에 빠져 있어서 남자를 우선시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우리를 '아들'로 표현한 것은 우리는 모두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시 2:7] 내가 여호와와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남자'로 살기 원하십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강인함입니다. 하나님은 남자가 아니시지만 남성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남자로 생각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남성의 기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의 기질이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별이 없으시기

때문에 남성의 모습과 여성의 모습이 모두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10절)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위엄과 존귀로 꾸미고 있습니까? 당신은 영광과 화미로 입고 있습니까?

위엄과 존귀는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위엄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위엄과 존귀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욥 역시 위엄과 존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는 대장부처럼..."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를 갖게 되길 원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과 화미'를 입길 원하십니다. '화미'는 영화로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으며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로움은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과 영화로 옷을 입히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로 옷을 입을 자격이 있습니다.

“[롬 8:30]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당신의 모습을 바라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위엄과 존귀함이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영광과 영화로 옷을 입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는 지금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라”는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당신이 여자일지라도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십시오. 당신이 남자라면 더욱 허리를 묶으십시오. 당신이 배운 게 없더라도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십시오. 당신이 장애자라 할지라도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십시오. 허리가 마비가 되었을지라도 허리를 묶으십시오. 두 다리가 없다 할지라도 허리를 묶으십시오. 당신은 하

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십시오.

그렇게 위엄과 존귀를 취하십시오. 당신 것이니 취하십시오. 남의 눈치를 왜 보십니까? 누가 눈치 보라고 시켰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어찌 세상 사람의 눈치를 보십니까? 당당하게 취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이니 당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러니 영광과 영화로 옷을 입으십시오. 당신의 세마포를 바라 보십시오. 영광과 영화로운 옷을 입었습니까?

“[롬 8:17]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욥 40:11]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욥 40:12]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욥 40:13]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욥 40:14]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하나님은 욱으로 하여금 교만한 자를 낮추고 악한 자를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서"(12절). 만일 욱이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욱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자로 인정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14절).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하신 이유는 욱이 교만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욱이 악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욱이 연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욕은 스스로 교만하여서 결코 교만한 자를 낮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욱에게 교만한 자를 낮춰 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욱은 스스로 악하여서 결코 악한 자를 밟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욱에게 악한 자를 밟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욱은 스스로 연약하여서 결코 대장부처럼 강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욱에게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한 자를 밟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한 자를 밟으시고 그들을 흙에 묻어 버리십니다.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돌지니라"(13절). '어둡한 곳에 돌지니라'는 말씀은 그들을 음부에 두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악한 자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악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욥 40:15] 이제 소 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욥 40:16]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욥 40:17] 그것이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얹혀 있으며

[욥 40:18]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니

[욥 40:19]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 오기를 바라노라

[욥 40:20] 모든 들 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욥 40:21] 그것이 연 앞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
나 늪 속에 엎드리니

[욥 40:22] 연 앞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
를 감싸는도다

[욥 40:23] 강물이 소용돌이칠지라도 그것이 놀
라지 않고 요단 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
도 태연하니

[욥 40:24]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
겠느냐

하나님은 매우 충격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19절
상). 하나님은 '하마'를 가리켜 모든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
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하마를 가장 으뜸이
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취향이 아주 독
특한 사람이라면 또 모를까 하나님처럼 그런 생
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리 쉽게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마가 모든 창조물 중의 가장 으뜸
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마가 가지고 있는 힘
때문입니다.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16절

상). 하나님도 허리의 힘의 중요성을 알고 계셨습니다. 허리의 힘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마는 허리에만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힘은 배의 힘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꼬리까지 힘이 뻗어 있습니다. 그의 넓적다리 힘줄에도 강력한 힘이 연락되어 있습니다.

하마의 힘의 근원은 뼈와 근육에 있었습니다. 그의 뼈는 놋쇠 같았습니다. 그의 뼈는 쇠막대기 같았습니다.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니"(18절). 사람은 뼈가 튼튼해야 힘이 있는 법입니다. 뼈가 튼튼한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하마의 뼈가 쇠막대기와 같았으니 그 힘에 누구를 비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마를 창조물 중의 가장 으뜸으로 삼으셨던 것은 비단 그의 힘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힘만 강한 것이 아니라 자신감 또한 강했습니다. 그를 두렵게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가 거하는 곳이 물로 범람할지라도 그는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강물이 소용돌이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23절 상).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마를 잡을 수 없으니 이는 그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

갯느냐”(24절).

하나님께서 하마를 창조물 중에 가장 으뜸으로 삼으신 이유는 그의 강함이었습니다. 강력한 힘과 강력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어찌 하마가 창조물 중의 으뜸이 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이런 생각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서 하마를 창조물 중의 으뜸으로 삼으신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당신은 지금 상당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강함이 으뜸이라고 생각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마의 힘과 강인함 때문에 그를 으뜸으로 여기셨지만 어쩌면 당신은 다른 요소를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힘과 강인함보다 '돈'이나 '명예'를 더 으뜸으로 여길지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아름다움'이나 '말솜씨'를 더 으뜸으로 여길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으뜸은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으뜸은 명예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으뜸

뜸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으뜸은 말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으뜸은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결코 하마처럼 힘이 센 사람이 으뜸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혹시 힘이 세면서 잘 생겼다면 또 다르겠지만 하마처럼 힘만 세다고 으뜸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점수로 따진다면 하마급 사람은 10점도 채 안 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은 다릅니다.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다를까요? 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까요? 누구의 생각이 옳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고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지혜롭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마가 으뜸이라고 하셨으니 그것이 맞다고 여겨야 합니다. 아무리 못생겼을지라도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못생긴 하마가 가장 으뜸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마처럼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마가 못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도 아는 것을 어찌 하나

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하마보다 더 잘 생겼습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하마보다 더 못생겼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어쩌면 당신이 하마보다 더 못생겼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하마가 당신보다 더 잘 생겼다고 생각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충격 받았습니까? 하마보다 더 못생겼다는 말이 당신에게 충격을 가했습니까? 어찌 진실에 충격을 받습니까? 당신이 충격을 받은 이유는 자꾸만 우리의 생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세상의 지식이 우리를 감싸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하마가 못생겼다고 생각할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들은 겉모습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마가 못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마의 속모습을 중요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마가 으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실 때 무엇을 중요하게 보신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의 외모? 그토록 당신은 외모에 자신이 있습니까? 당신의 돈? 그토록 돈이 많습니까? 당신의 지혜? 그토록 지혜롭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강인함'입니다. 그 어떤 문제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인

함입니다. 그것이 그토록 하나님께 멋져 보이는 것입니다. 강력한 뼈와 강력한 힘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토록 멋져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식입니까? 근육맨을 좋아하는 것은 구식입니까? 뼈쩍 마르고 여자보다 더 예쁜 남자가 더 매력이 있습니까? 당신은 그런 남자를 좋아할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취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근육맨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이 없는 대장부를 선호하십니다. 힘을 키우십시오. 강인함을 키우십시오.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정신력을 키우십시오. 하마처럼 되십시오! 결코 욕이 아닙니다.

[욥기 41장] =====

[욥 41:1]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욥 41:2]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욥 41:3] 그것이 어찌 네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네게 말하겠느냐

[욥 41:4]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욥 41:5]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 듯 하겠으며 네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매어두겠느냐

[욥 41:6]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욥 41:7] 네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족을 찌르거나 작살을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욥 41:8] 네 손을 그것에게 얹어 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욥 41:9]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욥 41:10]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욥 41:11]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값
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악어를 칭찬하셨습니다. 하
나님께서 악어를 들어 욥의 교만을 꺾으셨습니다.
악어는 매우 추악한 동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은 욥의 교만을 꺾기 위해 악어의 아름다움을 칭
찬하셨습니다. 이전에 하마를 통해 욥의 연약함을
꾸짖은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악어를 통해 욥의
교만함을 꾸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
이니라”(11절 하)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이 하
나님께 속해 있음을 밝히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
리 것이 우리 것처럼 느껴지지 때문입니다. 나의
재산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재산처럼 느껴집니다.
내 건강도 나의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의 자녀도
내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 남편도 내 것처럼 느껴
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의견이 충돌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해하지 못합니다. 끝내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

고서 하나님을 떠나고 맙니다.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여전히 저들의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저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합니까? 당신의 모든 것에는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의 세포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 맘대로 함부로 사용할만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당신 맘대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남의 것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욥 41:12]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능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욥 41:13] 누가 그것의 겹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욥 41:14]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욥 41:15] 그의 즐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욥 41:16]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욥 41:17]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욥 41:18]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
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욥 41:19] 그것의 입에서는 햇불이 나오고 불꽃
이 튀어 나오며

[욥 41:20]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솔이 끓는 것과 같구나

[욥 41:21]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욥 41:22]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욥 41:23]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
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욥 41:24]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멧돌
아래쪽 같이 튼튼하구나

[욥 41:25]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
며 달아나리라

[욥 41:26]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

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쏘이지 못하는구나

[욥 41:27]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 같이 여기니

[욥 41:28]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 같이 되는구나

[욥 41:29]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욥 41:30]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 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 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욥 41:31] 깊은 물을 솥의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 같이 다루는도다

[욥 41:32]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느니라

[욥 41:33]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욥 41:34]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하나님은 악어가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34절)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악어가 욥의 교만을 꺾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악어

는 하찮은 짐승이지만 그 견고함과 용맹함이 그 어떠한 사람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강력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어 앞에서는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하찮은 미물보다 못한 자라고 여기십니다. 만일 우리가 교만하다면 우리는 악어보다 못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는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욥은 교만함으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교만함이 하늘을 찔렀기 때문에 그의 고통도 하늘을 찌를 정도로 극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만일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고통이 혹 교만 때문에 온 것이 아닌지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잠 18:12]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욥기 42장] =====

[욥 42:1]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 42:2]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 42:3]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심 앞에 스스로 낮아진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소불능하시며 전지전능하신지 깨달았습니다.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2절). 이 사실을 욥이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욥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알고 있었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실제로 깨달은 것입니다. 아는 것과 깨달는 것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아는 것도 쉬운 단계는 아닙니다. 이 세

상에는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다고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모
두 하나님에 대해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욥은 하
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해 깊이
있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욥은 자신이 그동안에 하나님에 대해 깨닫지 못
했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 나
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3절 중). '깨닫다' <빈>이라는 말은 '식별하
다', '분별하다', '지각하다', '이해하다'란 의미를 가
지고 있습니다. 이는 눈으로 직접 보고서 지각하
는 이해력을 말합니다. 이는 마음으로 주의깊게
생각하거나 분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마음
으로 이해하며 머리로 지식을 쌓아가는 것을 의
미합니다. 사람은 오감을 통해 뭔가를 듣고 보고
느끼며 지식을 쌓고 이해하게 됩니다. 어쩌면 욥
은 육적인 오감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던 것입니
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깊이 있는 깨달음이 없
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그는 "...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 이다"(3절 하)라고 고백했습니다.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은 문장이 길지만 '이해 하지 못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아다>입니다. 이 단어는 '알다' 또는 '이해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 역시 육신의 한계에 국한됩니다. 비록 이해하다가 <빈>보다는 다소 높은 경지의 단어일지 모르나 <아다>역시 우리 인간의 혼적인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 이해력이 높다 할 지라도 그것이 인간의 혼적인 영역에서 이해하는 것이라면 결코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이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오감과 혼의 지정의는 하나님의 외향만 감지할 뿐입니다.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외향만 감지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입니다. 영으로 만나는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웁이 이러한 육신의 오감과 혼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깊은 후회를 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

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5절). 옴이 언급한 '귀'는 육신의 귀를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옴이 언급한 '눈' 역시 육신의 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옴이 말한 '귀'는 그의 육신을 의미한 것입니다. 육신의 오감과 혼의 지정의 영역을 의미한 것입니다.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알아갔던 자신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혼의 지정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던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비로소 영의 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비로소 하나님을 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옴 42:4]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옴이 육신의 오감을 버리고 혼의 영역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과 교제가 이뤄졌습니다. 드디어 그가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4절 상)라고 말했습니다. 이전에도 옴은 하나님께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말

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울부짖음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절망과 함께 내뱉은 한탄의 말이었습니다. 고통가운데 불평어린 절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가 더 이상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한탄스런 말을 내뱉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불평의 절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했습니다. 가까운 친구에게 말을 건네듯이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옴의 변화는 매우 큰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이렇게 말을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옴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건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던 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옴은 "...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4절 하)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질문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한다는 것은 관심입니다. 단순히 말하는 것보다 훨씬 친밀한 표현입니다. 딱딱한 사람은 말만 합니다. 물론 말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로 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함께 있기 거북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질문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

신에게 질문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욥 42:5]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
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 들을 뿐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아버지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욥이 '...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5절 하)라고 말했던 것은 그의 영의 눈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오직 영의 눈으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영의 눈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의

눈'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육신의 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육신의 눈을 뜰 수 없는 사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그 기능을 상실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는 육신의 눈과 영의 눈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눈이 떠졌던 것입니다. 그의 영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당신의 눈은 열려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주님을 뵈 수 있습니까? 당신의 영의 눈이 열려 있습니까?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외향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으로 사물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의 눈은 속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내면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의 외향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한 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내재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자꾸만 하나님의 외향만을 바라보려고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과 거리감을 두고 살게 될 것입니다. 가까이 하고 싶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마음으로 느끼십시오. 그리고 영의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을 바라 보십시오.

오. 하나님의 외향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까지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시오.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느
끼십시오. 하나님의 만지심을 느끼십시오. 하나님
의 치유하심을 느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욥 42:6]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
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회개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보았더니 회
개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회개가 있습니다. 욥의 회개는 진실된 회개였습니
다. 참된 회개였습니다. 그의 회개는 '티끌과 재'가
있었습니다. "...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
이다"(6절 하). 그의 회개가 티끌과 재를 동반했
다는 것은 참된 회개임을 증명합니다. 때때로 우
리들의 회개는 티끌과 재가 없습니다. 티끌과 재
가 없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종종 진실된 회개에는 금식이 함께 따릅니다. 금
식이 회개와 함께 하는 것은 티끌과 재를 동반해
야 하기 때문입니다. '티끌'은 황무지를 말합니다.
아무 것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 황무지에는 음식

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사람도 없으며 세상의 부귀영화도 없습니다. 명예도 없고 존경받음도 없습니다. 그저 홀로 있는 것입니다. '재'는 고난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부서진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태어져 없어진 상태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상태입니다. 죽음보다 더 잃는 것은 없습니다. 가난보다 죽음이 더한 고통입니다. 병듦보다 죽음이 더한 고통입니다. 티끌과 재가 있는 회개만이 진실된 회개입니다. 우리의 모든 정욕이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탐욕과 정욕이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욕구가 비워져야 합니다. 온전히 없어지고 낮아지고 비워져야만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옉은 회개할 때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6절 상)라고 고백했습니다. '거두어들이고'<마아스>라는 말은 '거절하다', '멀시하다', '흐르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옉이 스스로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높아짐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욕구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욕망입니다. 더러운 세상의 정욕 중의 하나입니다. 옉 역시 이러한 욕구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그의

높아지려는 욕구는 훨씬 강했습니다. 그런데 옘은 자신의 이런 욕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아예 자신 스스로를 멸시했습니다. 마치 하찮은 짐승을 무시하고 멸시하듯이 그렇게 자기자신을 멸시했습니다. 스스로를 멸시했습니다. 스스로 멸시하는 것은 때때로 옳지 않습니다.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멸시치 않는 사람은 높은 자존감을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스스로 멸시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벌레보다 못한 자로 취급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배설물(똥)로 여겼습니다.

“[빌 3:8]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옘 42:7] 여호와께서 옘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데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옘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옘 42:8] 그런즉 너희는 수소 일곱과 숫양 일곱

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값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욥 42:9] 이에 데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를 벌하셨습니다. 저들이 욥에게 말한 것이 정당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친구 중의 대표인 엘리바스에게 다음과 같이 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일곱과 숫양 일곱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8절 상). 수송아지 일곱과 수양 일곱을 바치는 번제는 그렇게 쉬운 번제는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에게 있어서 수송아지 일곱과 수양 일곱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는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용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내가 남에게 상처를 가한 사실을 너무 쉽게 잊어 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용서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용서가 그리 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십니다. 욕의 친구들은 매우 쓰라린 번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저들은 속으로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이토록 큰 요구를 하시는가?'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들 눈에도 욕의 친구들이 욕에게 행한 것이 그렇까지 큰 번제를 드리면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당한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번제는 욕의 친구들이 행했던 죄악에 아주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분지 일을 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할 때에 반드시 오분지 일을 더하는 값음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누군가에게 10만원의 손해를 끼쳤다면 그 사람에게 12만원을 보상해야 합니다. 만일 누군가의 뺨을 10대를 때렸다면 당신 뺨을 12번 때릴 수 있도록 내 밀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10번 찢었다면 당신의 마음이 12번 찢김을 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값입니다.

“[민 5:7]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 값을 온전히 갚되 오분의 일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욥 42:10]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 42:11]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케쉬타 하나씩과 금 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욥 42:12]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 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만 사천과 낙타 육천과 소 천 겨리와 암나귀 천을 두었고

[욥 42:13]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으며

[욥 42:14]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겿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욥 42:15]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

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욥 42:16] 그 후에 욥이 백사십 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사대를 보았고

[욥 42:17]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이 친구들을 용서했습니다. 욥이 친구를 용서했을 때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욥은 친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10절 상).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 비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빌 수 있는 것은 이미 그의 마음에 상대방을 향한 모든 원한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좋지 않은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는 결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욥은 친구들에 대한 좋지 않는 마음을 지웠습니다. 이는 욥이 스스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욥이 직접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욥이 친구를 용서하고 저들을 위해 하나님께 빌었을 때 하나님은 욥의 모든 곤경을 돌이키셨습니다. "...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10절 중). 그리고는 그전 소유보다 갑절의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10절 하).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는 말을 주목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곤경을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래야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곤경이 돌이켜져야 합니다. '곤경'<세부트>라는 말은 '포로로 사로잡힘'이라는 뜻입니다. 욥은 곤경에 포로로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가난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질병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버림 받음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곤경으로부터 돌이키셨습니다. '돌이키다'<슈브>라는 말은 '돌아가다', 또는 '회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욥이 곤경을 받기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욥은 곤경을 받기 이전에 전혀 곤경이라는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곤경을 알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 때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아무런 곤경도 없는 그 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그를 알던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밋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11절 상). 그들이 욥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욥이 당한 곤경을 생각하며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로했습니다. "...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11절 중). 그들은 욥을 위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불쌍히 여길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욥은 곤경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만일 저들이 욥을 위로하고 불쌍히 여기려고 했다면 그 이전에 했어야 했습니다. 욥이 곤경에 놓여있을 때 했어야 옳았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오히려 욥의 곤경이 지나갔을 때 욥을 위로하고 슬퍼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곤경에 처해 있는 형제를 바라보며 위로하지도 않으며 슬퍼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저들은 욥에게 나올 때에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습니다. "... 각각 케쉬타 하나씩과 금 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11절 하). '케쉬타'는 금 화폐단위를 말합니다. '금 한 조각'이라기 보다는 값어치가 있는 화폐를 건네 준 것입니다. '금고리'는 귀걸이나 목걸이 또는 코걸이를 말합니다. 욥은 더 이상의 금 조각이나 금고리가 필요치 않았습니다. 이미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셀 수도 없는 많은 짐승을 소유한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늘 사람들은 있는 사람에게 귀한 것을 줍니다. 없는 사람에게는 주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없는 자의 것은 빼앗으려고 하지 결코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갑절을 더해 주셨습니다. 원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양이 7천마리였고 낙타가 3천마리였고 암나귀가 5백마리였는데 정확히 그것의 갑절을 채워주셨습니다. 자녀들만 원래 있던 수대로 그대로 주셨습니다. 아들이 일곱이고 딸이 셋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똑같이 채워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만 사천과 낙타 육천과 소 천 겨리와 암나귀 천을 두었고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으며"(12-13절).

데이빗의 영맥주석(David's Commentary):
읍기

초판발행	2026. 7. 8
지 은 이	데이빗리 목사
펴 낸 이	홀리타임즈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75-1
전 화	010-3280-7689(데이빗리 목사)
홈페이지	www.RevivalForChurch.com
이 메 일	inourlove@gmail.com

참여성 **참목회자** 양성기관

World Spiritual Leadership Seminary

BEST SOLUTION FOR SUCCESS LIFE
추진
CHANCE

국제 신학교

결심했으면
국제신학교에서
학습할거야~



강력한 능력으로 강력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까?
영성과 신학을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면 학비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역학 과정

사역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사역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목회학 과정

목회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로 개척하고 싶은 분

목회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최고의 실력과 영성 능력을 겸비한 **훈련과정**

국제신학교는 성경과 성령 두 날개를 달고서 보다 강력한 목회를 할 수 있는
목회자와 사역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국제신학교를 통해 당신도
강력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셔서 세계 최상의 신학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제신학교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51길 25
www.WSLseminary.com / 010-3280-7689



데이빗의 학장

University of Arizona 석사
University of Hartford 석사
Gordon-Conwell 신학교 목회학석사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대표